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4월 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22 호

지금도 그때 그일을 생각하면 대추나무 가시에 손톱밑을 찔리듯 가슴 아픈 가책을 느끼게 된다.

한 세대가 훨씬 지난 일이다. 한국에서도 세계문학이 읽히기 시작할 무렵, 졸지의 몇몇 출판사들이 세계문학전집 간행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때만해도 막대(?)한 투자였으며 성패가 미지수였던 시도의 단계에 있었다.

출판사마다 다투어 하루라도 먼저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성공의 기본 전략이었다.

몇몇 군데로부터 번역 부탁을 받고 나도 느닷없이 바빠지게 되었다. 더욱이 그때 나는 대학 강단에 선지 얼마 안돼 매일매일 강의 준비하는 일만으로도 쉽지는 않았다.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조 달 공

나도 번역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호기심에 끌려 얼떨결에 출판사측과 계약을 하고 나서 막상 착수해 보니 예삿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출판사에서는 약속날짜를 꼭 지켜달라는 사전 독촉이 있었다. 아무리 잠을 안자고 해낸다 하여도 도저히 그 기일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출판사가 요구하는 날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때 나에게는 지상명령처럼 여겨졌다.

"사기꾼이 따로 없구나"

마치 코너에 몰린 생쥐처럼 나는 한 꾀를 생각해냈다. 한 작가의 명작 두 권을 한 권으로 엮어내자는 것이다. 그 중 한권은 남의 손을 빌리자는 명안(名案)이 떠올랐다.

하도 다급해서 궁즉통으로 생각해낸 이 명안이란 것이 나중에 그토록 처참하게 죽을 쑤 줄은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 나 자신도 하루 종일 공공거려 몇 장을 채우지 못했는데, 설사 불문과 학생이라도 양도 그렇거니와 질적으로는 너무 말 할것이 없다.

편집자들 역시 촉박한 시간때문에 그 거친 번역을 일일히 손질할 수는 없었으리라.

새책을 받자마자 잉크냄새 물씬 풍기는 책장을 넘겨보고, '아차차! 사기꾼이 따로 없구나.'

나는 두고두고 양심의 가책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 그후에도 번역에 손을 대면서 이 자책감을 통해 두번 다시 실수가 없기를 다짐하곤 했다.

아울러 과거의 가지가지 잘못을 뉘우치며 죄망심멸양구공(罪亡心滅兩俱空)으로 참된 참회를 삼으려 한다.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구독 · 광고 문의 (02)737-8881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개혁정신 퇴색안된다"

조계종 월주원장 3주년 담화문서 '지속추진' 다짐

재야단체 '지도부 책임행정' 촉구

조계종개혁 3주년을 맞아 개혁 성과와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일 '종단개혁 3주년에 즈음하여'라는 담화문을 발표한데 이어 10일 오후3시 '4·10승려대회 3주년 기념법회'를 연다.

월주스님은 담화문을 통해 "3년동안 개혁불사의 정신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직영·특별분담사찰의 지정, 결직금지, 교육원과 포교원의 법원화 등의 제도개혁이 개혁불사의 대표적 상징이다"고 천명했다.

특히 "총무원은 금년 종단예산이 2백억(94년 20억)으로 늘어나 교육 포교 등 종단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직영 특별분담사찰의 지정과 운영, 예산회계제도 등 사찰과 종단의 재정운영이 투명한 결과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혁불사의 완성을 위해 제2의 개혁불사 추진을 향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총무원의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개혁의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의 여론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개혁당시 주도세력이었던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 지선)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 현봉) 등 교계 8개단체는 3월 29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현 총무원은 종단개혁의 성과를 계승하고 새로운 종단개혁 불사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행사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개혁정신을 바탕으로 종단 최고지도부로서 책임행정을 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계 일각에서는 "현 종단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침묵·회피하고 외부행사에만 주력해와 종단개혁이 퇴색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개혁 3주년을 맞은 조계종은 총무원 자체평가처럼 순탄치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단대표인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담화문 내용대로 "종단 내부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여 종단개혁을 더욱 추진하겠다"는 실천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중근 기자〉



부처님 오시는 길 밝히오리
이 오신 듯하다.

부처님오신날을 한달여 앞두고 언어와 국경를 초월해 연등을 만드는 불자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부처님 〈서울 화계사=고영배 기자〉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지난 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우수성을 다시한번 세계에 알린 세계적인 성보 석굴암 본존불(국보제 24호)은 한국의 대표적 불상입니다. 현대의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석굴암의 구조는 신비함을 더해줍니다.

탑골 미륵골 부처골 냉골 등 40여개의 골짜기와 산줄기로 이루어진 경주 남산은 석불 90여체(體), 석탑 80여기, 115곳의 절터가 있고, 보물 사적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만도 35점에 이르는, 말 그대로 노천박물관입니다. 곳곳에 모셔놓은 부처님과 석탑, 절터를 사이를 걷다보면 여기가 그대로 불국정토라고 느껴집니다.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돌부처님들이 우리 민족의 얼굴을 꼭 닮았다는데, 정말 그런지 함께 답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얼굴—석굴암과 남산 부처님

4월 테마여행—석굴암 · 남산

■ 참가 안내

◇출발: 4월 26일(토) 저녁 10시 · 조계사 앞
◇안내: 정병국연구원(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회비: 4만원(조식 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입금후 현대불교신문사로 연락바랍니다.

5월 25일 대흥사—禪 茶 그리고 한국인의 풍류
6월 29일 부석사—한국 목조건축의 아름다움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주)일양약품

교계 북동포돕기 창구 단일화

실천승가회 등 '공동기구' 조계종에 제안

북한동포돕기를 위한 불교계 공식기구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 대북 쌀지원을 대폭 허용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불교계도 북한동포돕기를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구성, 창구의 단일화를 통해 활성화와 함께 효율성을 기다는 것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 지선)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선)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 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고영삼) 등 각 단체 실무자들은 2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조계종 총무원에 기구 구성을 제안키로 결의했다.

통일원, 北 접촉 승인

조계종 총무원이 북한주민긴급식량지원을 위해 통일원에 제출한 북한주민 접촉 요청이 3월 29일 승인됐다.

통일원은 북한주민 접촉 목적을 남북불교교류 및 북한 불교활동 활성화 협의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월주(총무원장) 혜창(총무부장) 능관(사회부장)스님을 접촉인으로 승인했다.

이에따라 조계종은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과 접촉, 식량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 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님 가르침 세계로"

한 · 중 · 일 우호대회 공동선언문 확정

日 교토 나라서 10월 26~29일 열려

제3회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가 10월 26일~29일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로'를 주제로 일본 교토 나라에서 개최된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대표단은 3월 31일~4월1일까지 일본 경도 입정교성회 경도회관에서 제1차 예비회의를 갖고 제3회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공동선언문과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공동선언문은 "21세기는 정신의 시대로 일컬어진다. 전환기시대를 맞이하여 역사의 바른 인식을 숙지하고 전쟁의 재난을 교훈삼아 3국불교도가 가져야 할 사명은 사회의 안녕과 정화를 촉진하고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여기서 선언코자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선언문에서는 아시아 안정과 세계평화 기여사업 △삼국불교우호교류회의 발전 확충 위한 협의 △학술과 인적교류를 위한 사업 △불교이해를 한층 심화시키기 위한 사업 △불교홍포를 위한 사업 등을 펼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능관(조계종 사회부장), 지성(태고종 총무부장)스님, 덕혜(진각종 문사부장)정사 등을 비롯 신재부 중국불교협회 부비서장, 애즈레(江恩 俊則) 한일불교교류협의회부의장 스님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대체가정' 복지시설 '호평' 19면
米壽展 연 단청장 만봉스님 9면
불교소설 줄이어 봄 나들이 13면

'97 문화 유산의 해 기념!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 (축소모형) 보급

'97 문화 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조형미와 온화한 미소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금동미륵 보살반가사유상을 소장용으로 축소 보급합니다.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반가사유상은 흔히 "미륵보살사유상"혹은 "태자사유상"이라 하는데 이는 후세에 출현할 미륵보살이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우고 깊이 고민하는 모습과, 출가 전 부처님께서 '生老病死'의 의미를 사유하는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우리 문화재 중 여러점의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으나 그 대표적인 작품은 국보 제 78호와 제83호의 금동미륵보살반가상입니다. 전면의 단아한 모습과 더불어 아래로 길게 늘어진 천의 주름이 아름다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고전미와 현대미를 가미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하였습니다.

제 품 사 양

품명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재질 : 청동
가격 :

규격(폭×높이) \ 형 태	골동품형, 코팅형
11cm × 26.5cm	230,000원
16cm × 40.5cm	350,000원

※ 개금을 원하시는 경우 개금비가 추가됩니다.



골동품형



코팅형(브론즈착색)

30여년간 불교조각에 전념해온 指定文化財 彫刻技能 제680호 佛敎彫刻院 이진형 院長이 심혈을 기울여 축소 제작한 작품으로 고전미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감상하실수 있습니다.



이 진 형
LEE JIN HYUNG

- '81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총무원장상)
- '8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특별상)
- '89~'95 대한민국전통문화재 조각회원전 4회
- '93~'94 (사)문화재 기능인 협회 회원전 2회
-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추천작가
-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제680호

현재: 전통문화재 기능인협회 이사

제 작 : 불교조각원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2-1522, 737-8881
팩 스 : (02)737-0697

사 설

조계종 종회 왜이러나

조계종의 '개혁불사'가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3년전 조계사에서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범종추)'가 출범했을 때 그 순수한 구종의지와 구도의 길로 매진하려는 개혁적 스님들의 모습이 점점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이번 제125회 조계종 결산중앙종회를 지켜본 많은 종도들로부터 '종단개혁불사'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터져나고 있다.

지난 3월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열린 종회는 유회를 거듭한 후 자동 폐회되고 말았다. 조계종이 생긴 이래 이렇게 안건 하나도 처리못하고 성원미달로 폐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70년대 동국대 관선이사 선임을 막기위해 교권수호차원에서 회기를 38일동안 끌었던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종회의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유회되고만 직무유기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문제가 있으면 더욱더 종회는 열려야 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종단의 현안을 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록 회의 진행의 기술이 어설프더라도 종단의 대의기구로서의 최소한 기능은 수행해야 한다.

이번 중앙종회의 행태를 보면서 많은 종도들이 개혁종단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중앙종회의원들의 자질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됐다.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중앙종회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고,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저 한다.

첫째, 이번 중앙종회를 의도적으로 유회시키고, 의회기능을 마비시킨 진상을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종단의 반개혁적 행위이므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도 져야한다.

지금 나라꼴을 보면 각종 부정부패로 인하여 위기정국이 계속되고 있는데 책임질 양심적 지도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종단도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

중앙종회의원 모두가 우선 종도들의 뜻을 저버리고 제대로 성원도 못시킨 '직무유기'에 대하여 깊은 자성과 참회가 있어야 마땅하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종회회의 자체를 원천봉쇄한 결과를 초래하여 시급한 종단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그 실마리라도 찾으려는 노력도 없었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크게 위배되는 일이다.

둘째, 중앙종회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고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앙종회는 명실공히 종헌종법에 근거하여 의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부대중의 대의기구이다. 산중공의 대중공사의 전통적인 불교정신을 말살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한국불교의 중흥과 대중불사를 위해 중앙종회는 의회기능과 비관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

셋째, 중앙종회가 대의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법하게 계율을 지키고 수행과 정법수호에 앞장서야 한다. 세속의 정치판에서 흔히 볼수 있는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회향의 참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조계종단 지도부는 개혁불사를 추진하는데 중심이 흔들리고 있고 이해관계에 편승해서 사분오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도들이 우려하고 있다. 중앙종회는 출범 초기 열띤 안건토의로 회기 마지막날 자정까지 진행됐던 생산종회의 면모를 되찾아야 한다. 사부대중이 사심을 버리고 힘을 모아 구종법회를 열며 종단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부르짖던 개혁불사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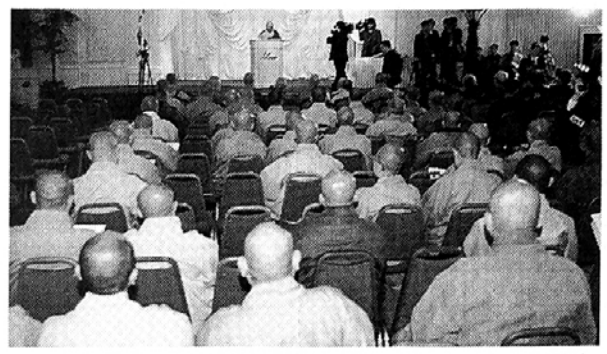


조계종 개혁 3주년

열 린 마 당

지난 3월 31일 앰베서더호텔에서 열린 동국대학교승가총동문회(회장 월탄) 주최 정치지도자 초청강연회는 3당 대표의 종교관 및 불교에 대한 이해도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정치지도자가 기대하는 종교인의 역할'이란 주제의 이번 강연회에서 3당 대표는 오늘날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 종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민족불교인 불교야말로 호국, 사회발전, 국민계도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한결같이 정치의 종교 중립을 강조했다. 3당 대표가 기대하는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편집자 주〉



◇3당 대표는 모두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역할이 막중하며, 특히 불교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종교의 역할 동국대 승가총동문회 3당대표 초청강연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종교는 절대의 가치와 진리를 추구하나 정치는 상대적인 가치와 진리로 만족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절대적인 가치가 헌법의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종교는 정치의 관심을 떠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와 종교는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먼저 종교인은 민족과 국가의 존립과 융성에 이바지 할 사명이 있다. 특히 불교는 우리민족의 운명과 더불어 국가의 존립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신라의 화랑도에서부터 고려 팔만대장경, 임란에서 승군의 역할, 만해의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온 호국신앙으로 요즈음과 같이 혼돈과 어두움이

정치-종교 상호 존중·협력관계
교육·자선 사업 통한 국민교화

가득한 국난의 시기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국가의 건전한 유지에도 종교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종교적 입장에 근거해 행하는 건전한 국정비판기능은 국가의 자기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다만 종교의 절대적 진리를 막바로 정치의 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따라서 종교적 입장표명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이나 종교적 신앙을 가진 정치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셋째, 종교인은 종교 본연의 영역인 교육과 자선에 기여할 수 있다. 현대국가의 교육은 국가와 부모, 종교단체의 공동영역이다. 특히 종교인들의 설법과 강론을 통한 시민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것도 종교인의 숭고한 역할이다. 또 북한 동포들을 위한 민족적인 도움의 기반도 종교인들이 중심이 돼야 할 것이다.

불교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 첫째 민족문화유산 보존에 힘써주기를 부탁한다. 종교재산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라면 국가도 마땅히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둘째 지구환경보호에도 기여했으면 한다. 불교는 자연과 일치된 조화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이니만큼 불교의 절대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종교의 으뜸 역할은 개인의 정신적인 구원과 사회 전체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소승과 대승이 하나가 되어 발전하는 것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인구원과 사회구원 모두가 이같은 역할을 말는 것이다.

사회정의 실현도 종교의 역할 중 하나다. 21세기는 급속한 격변을 맞고 있다. 여기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신적 혼란과 불안에서 사교, 범죄 등으로 타락할 수 있는데 종교가 이들에게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르쳐서 변화에 자신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간여해서는 안되나, 정치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교화하고 잘못이 있

정치 正道 가도록 중도적 비판
사찰환경 파괴 다함께 풀어야

으면 비판해야 한다. 세계 4대 종교도 그렇게 해왔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종교생활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자신의 종교생활을 유보한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다만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 타종교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마땅하다.

해방이후 50여년간 국가정책에서 불교가 불공정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불교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종교를 차별하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불교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인류를 위해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

최근 국토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사찰환경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찰자체는 곧 문화재다. 이같이 인식하고 있다면 사찰환경을 파괴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회의는 집권하든 못하든 불교계가 이와 같은 문제들로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밝혀둔다.

불교는 일체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불교가 환경문제를 푸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종필 〈자민련 총재〉



우리는 정치와 경제 사회가 파산지경에 이른 총체적 위기의 오늘을 살고 있다.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면서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새로운 대전환을 이룩해야만 오늘날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덕 높으신 스님 여러분이나 승가동문 여러분의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성과 헌신이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스님 여러분께서 노심초사하는 그대로 21세기를 제대로 열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한국불교가 법난을 당하고 교의(敎義)의 다름으로 인해 정권과 갈등을 빚었던 것도 모두 절대권력 때문이다.

호국불교정신 국가 위기 극복
깨·사운동 정치 실천덕목으로

한국불교는 1천6백여년동안 민족과 함께 영고성쇠(榮枯盛衰)를 같이 해왔다.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 호국불교로서 국민의 등이 되고 등불이 되었다. 나라가 미증유(未曾有)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때, 한국불교의 호국정신이 유감없이 발휘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금년 휘호를 〈벽암록〉에 나오는 '줄탁동기(啐啄同機)'로 삼았다. 불교적 해석으로는 수행이 성숙하여 깨달음을 열어 가는 제자에게 스승이 빈틈을 주지 않고 깨달음의 완전한 경지로 이끌어 들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민과 정치가 줄탁동기가 되어 한몸 한뜻으로 나라의 운명을 열어 갈수 있도록 스님 여러분의 큰 이끄심과 가르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일체중생에 불성이 있다는 제불사상을 현재화(顯在化)하여 한국정치의 참길을 일깨우고, 중생을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게 하는 대승불교적 차원에서 국민을 구도해 주기 바란다. 또 탐·진·치 삼독을 씻고 나를 버리는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이 우리 정치에서도 최고의 덕목으로 인식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길 기대한다. 마음이 곧 부처라는 심즉시불(心卽是佛)로 마음을 깨우치고 정신을 일으켜서 신심일여(身心一如)의 경지로 우리 사회를 인도해 주길 기원한다.

종단개혁 3주년에 즈음하여

94년 종단개혁은 사부대중의 자주적 역량의 결과입니다.

전 종도들의 원력이 모여 시작되었던 개혁불사가 어느덧 3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94년 개혁불사 이전 종단은 정치권력과 유착한 일부 권승들이 종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함으로서, 불교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종단의 분규상을 국민들에게 보여왔습니다. 그에 따라 불교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속에서 이 사회와 민족을 향도하는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총무원장의 3선연임을 반대하고 종단개혁을 요구하며 전 종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개한 329구종법회와 410승려대회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므로서 이천만 불자 모두에게 희망과 가슴벅찬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부태한 종권을 유지시키려는 편파적인 공권력과 폭력행위를 극복하고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의 대장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출·재가를 떠난 사부대중 모두의 자주적 역량이 발현된 결과입니다.

현 종단은 제도개혁을 통해 종단의 중심을 튼튼히 세워 왔습니다.

개혁회의를 계승하여 출범한 현 종단은 지난 2년여 동안 개혁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제도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개혁불사 이전 20억대에 불과하던 종단 예산이 올해 200억에 가깝게 늘어나고,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이 교육, 포교·역경·사회복지·문화 등 종단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직영·특별 분담사찰의 지정과 운영 예산회계제도 그리고 사찰에 대한 지도감사 등을 통해 사찰과 종단의 재정 운영이 투명해진 결과입니다.또한 이미 사용중인 회계프로그램과 더불어 승적관리·종단소유부동산·교육·포교등 종무행정 전반에 대한 전산화가 하반기까지 완성되어 지난 2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종무행정의 체계가 확립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아과들은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전근대적 종무행정의 질적인 비약을 의미하며 더불어 삼보정재가 수행과 교화에 사용되어 종단분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승가교육과 포교의 중요성에 대한 종도들의 요구를 받들어 별원화된 교육원과 포교원 제도와 내실화 또한 제도개혁의 핵심사업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지난 2년여동안 종무행정의 체계화와 더불어 별원화된 교육원과 포교원의 제도정착을 위한 종단의 노력은, 개혁불사의 정신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이었으며 한국불교 중흥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개인과 사중의 이해를 우선하는 종단의 구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올해는 불교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될 불교종합회관의 건립과 중앙승가대학 이전이라는 종단적 불사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도들의 의지가 하나로 모아져 용맹정진해야 할 지금에, 개인과 사중의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종무행정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직영·특별분담사찰의 지정은 겸직금지, 총무원장 권한 축소 및 산중총회를 통한 교구본사 주지선출, 교육원과 포교원의 별원화와 더불어 개혁불사의 상징입니다.

더구나 직영사찰의 지정은 사찰의 재정을 양명하게 함으로서 재원으로 인한 분규의 씨앗을 제거하고, 그 재원을 종단목적사업에 사용함으로서 종단과 불교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1억원에 불과하던 선본사의 1년예산이 2년을 거치면서 37억원으로 무려 3배이상 증가하여 투명하게 관리 운영된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지속적인 종회의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바 있는 선본사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시비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명분으로 선본사의 직영사찰을 해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개혁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부패한 승려들의 사금고 역할을 하던 개혁불사 이전의 선본사와 직영사찰 지정으로 재정이 양명해진 현재의 선본사를 비교해볼 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구적인 가는 모든 종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직영사찰 지정이후 선본사의 재정이 대구지역의 불교발전(대구 불교방송 출연금 등 8억원)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 대폭 증가되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불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든 종도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승가교육은 이제 구체적으로 내실화되고 현실화되어야 하며,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개인과 사중의 이해에 집착할 때 종단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근자의 모습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단과 불교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개혁불사의 기본정신을 유지,계승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혁불사의 완성은 개혁을 염원하는 종도들 모두의 몫입니다.

종도들의 숙원사업인 중앙승가대학교의 정규대학교 승격, 중앙신도회 창립,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를 결성하여 청소년 포교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종토세 비과세 실현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불교방송 지방국 개국등 불교계의 대정부현안이 해결된 데는, 종단의 안정과 함께 대사회적 활동의 강화에 따른 불교의 위상이 높아진 결과입니다.

근세불교의 역사를 통해 보듯이 종단이 허약하고 혼란하면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종단의 자주화는 종단의 지속적인 개혁과 안정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종도들의 화합을 이루어 종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나가야할 종무행정의 책임자로서, 종단 내부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여 종단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선본사를 둘러싼 문제제기 또한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떠나 종도들의 화합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 등 선본사의 운영에 대한 관리를 더욱 합리적으로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저는 개혁정신을 퇴행시키는 일부의 기도에 주저함이 없이, 94년 뜨겁게 모아졌던 전 종도들의 염원을 받들어 94년 개혁불사의 완성을 위해 제2의 개혁불사 추진을 향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54년 불교정화운동의 이념을 계승한 94년 개혁불사는 개혁을 염원하는 종도들 모두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제2의 개혁불사 또한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를 염원하는 종도들의 책임있는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종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불기 2541(97)년 4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 월 주

"출범초 열정 식고 있다"

조계종 개혁 3년 재야단체 여론

개혁 3주년을 맞은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이 출범 초기의 뜨거운 열정처럼 순탄치만은 않다. 종정 월하스님의 사표 제출 부터 '선본사 직영사찰'의 존폐문제, 불교방송 공금횡령 사건, 전국신도조직의 3년 공백끝에 이룬 중앙신도회 결성 등 불거져 나온 사안들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평이다.

94년 개혁당시 주체세력이던 단체들마저 개혁의 새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 지선)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 현봉) 전국승가대학인연합(의장 지선) 중앙승가대학생회(회장 무량)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 등 교계 8개단체가 3월29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개혁불사 이후 들어선 월주 총무원장 체제에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단 개혁을 추스릴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활동을 펴나가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개혁종단은 출범 2년5개월여 동안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3원 분립체제를 이뤄낸 성과를 거두었다. 종무구조를 개선해 문화부 사회부로 기능을 강화했다. 또 '청소년의 해' '전법의 해' 등 종책차원의 포교전략을 대내외에 드러내기도 했다. 불교관련 법규를 개정해 교권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사찰수행환경보호를 위한 활동 '깨달음의 사회화' 사업 등을 통해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제고에 일익을 담당했다.

이처럼 개혁의 대원칙을 명분으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은 적지 않은 부분 종도들의 공감대를 도출해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의 종단 자주화의 실현의지가 퇴색됐다는 우려와 종무집행의 방향이 '원장 내세우기식'의 일과성 행사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고있다. 또 집행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종단 분위기가 단체별 직능별로 '이익집단'화(化) 되고 있는 추세도 가세했다는 진단이다. 불교개혁의 신선함과는 동떨어진 현상으로 자성과 우려의 소리가 높다. 개혁이전의 활동했던 견전한 비판세력들이 침묵을 보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세력이 형성되지 못한 것은 현 집행부의 불행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중차대한 교육제도개선을 마련하는데 종단발전을 위한다는 내로라는 단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또한 개혁당시 선포했던 종단 차원의 방생법회금지와 정부요인 초청 기원법회를 않기로 한 선언을 스스로 저버리고 대규모 방생법회와 기원법회를 추진했고, 종헌으로 금지된 거리탁발도 실시했다. 이와 관련 총무원이 행사의 방향을 보완하고 선회하는 노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분으로든 개혁정신과 다른 행사였다면 사전에 공의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또 무리한 인원동원 요구에 종도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개혁 종단의 행보에 초창기의 지지 못지않게 비판이 가해진 것은 그만큼 종도들의 신심이 적지않게 떠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종단 지도층도 지난해 종회의장선거를 전후로 미묘한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내년 11월 총무원장선거를 앞두고 더욱 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개혁 3주년을 맞아 총무원은 지난 해와 달리 원장 '담화문'을 내는등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어쨌든 현 집행부는 첫 개혁종단으로 종단혁신에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있다.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절실한 것은 개혁의지 못지않은 실천력이며 무엇보다도 신뢰형성이 관건이라는 여론이다.

위영란 기자

"이벤트행사 종도들 공감대 못얻었다"

깨달음 사회화·교권 강화등엔 긍정적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개최된 조계종 1백25회 임시종회(결산종회)가 의원들의 불참으로 4차례 유회를 거듭한 끝에 자동폐회됐다.

"自省論 대두"

조계종 125회 종회 자동폐회 되던 날

성원미달·시간끌기 '일쑤'
5일동안 10시간 회의
상정안건 20건중 1건 처리

조계종 제1백25회 임시종회는 20건의 안건 가운데 1건만을 다뤄 종회의 직무유기라는 질타와 '자성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성원미달로 유회를 거듭하면서 3월 25~29일까지 회기 5일동안 정작 회의시간은 불과 10시간여로 결산종회가 결산마저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자동폐회됐다.

3월 29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 1층. 속개예정이던 종회가 산회 될 위기에 처하자 재적의원 80명가운데 30여명만이 자리한 회의장 여기저기서 40여명의 '등돌린 종회의원'들에 대한 심경이 '독백' 형식으로 터져나왔다.

종회의장 설정스님은 "종회의원은 종도의 대표이지 사찰이나 행정부서의 대표가 아닙니다"며 "안건에 이견이 있거나 나한테 오해가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떨구었다.

스님은 또 종회의원들의 불참유형을 3가지로 꼬집었다. "첫째 일이 있어 안나온다. 둘째 관심부족이다. 세째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종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것이든 경론을 벌여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우스님(서울 구룡사 주지)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집행부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종회의원의 책임"이라며 "종정스님의 사퇴, 또한 종회의원들의 종회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장스님이 참석치 않았고, 재정결산검사가 지연 된 것 등이 이번 종회가 산회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님은 "불참한 종회의원들의 출석을 확인해 본사에 알리고 차기 종회의원으로 출마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종회를 참관했던 한 스님은 "종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도 참회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종회의원들은 모두 부처님께 3천배를 해야 한다"며 회의실을 빠져 나갔다.

설정스님은 "집단이나 개인의 이해로 인해 종회가 끌려가서는 안된다"며 "사안별로 분석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경고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종회예정시간 2시간이 지난 오후 4시 낮은 목소리로 "의도적으로 종회를 해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런 종회는 종단에 이익도 보탬도 안될 뿐 아니라 이런 모습 때문에 바로 종회무용론 소리도 나옵니다"며 "적당한 시기를 택해 임시종회를 다시 열겠다"며 폐회를 선언했다.

김중근 기자

목어

3년전 '조계종의 봄'

3년전 이맘때, 조계종은 구태를 벗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흥역을 치뤘다. 봄의 열꽃과 외침이 가라앉으면서 '개혁'이 시작됐다.

불교가 '개혁'이란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은 부처님께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다는 증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참회'였기에 시선을 끌었다.

이제 3돌을 맞아 평가의 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다. 때마침 총무원은 속히 풀어야 할 묵직한 과제를 여러 건 안고 있어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일부 불자들은 행여 '구습'이 발동하여 '개혁'이 무색해질까 가슴졸이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일은 없어야 한다. 만약에 불화와 반목이 다시 견지동 45번지에서 생긴다면 그것은 부처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다.

"늘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교단의 분쟁을 화합시키면 반드시 해탈문을 여는 것이 되리라."(普賢經)

"교단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능히 화합하며 남의 착한 일은 들어올리되 잘못은 숨기며,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선심을 일으키며…"(우바세계경)

부처님께서 교단의 불화를 염려하여 일러주신 말씀이다.

독일의 루이저 코저가 쓴 '갈등의 사회적 기능'에 이런 귀절이 있다. "융통성 있는 사회는 갈등으로 부터 득을 본다. 왜냐하면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고 수정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변화된 상황아래 존속되는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비판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불화와 갈등의 요인을 수정 해결하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쉽지는 않겠지만 남의 말을 비방까지도 의연히 들어 '약'으로 삼을 수 있는 큰귀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본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3주년 담화문에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종단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부대중은 '개혁불사'를 북돋우며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자. 그래야만 불교는 사회의 믁탁이 될 수 있다.

수요인터뷰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이 발생 2개월을 넘기며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90년 불자들의 성금으로 전파를 띄운 불교방송이 개국이래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다. 조해형사장(96년 3월 11일 취임)에게 인터뷰를 요청, 사건 전말과 대책을 들었다.

〈편집지주〉

공금 횡령 진통겪은 佛放 조해형 前사장

"재정운영 고질부패 청산기회로 삼아야"

-지금의 심경은 어떠신지요.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방송국의 관리와 운영의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처음 사건 발견당시 왜 김선도씨를 잡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주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물증이 있어야 고발이 가능하기때문에 조사하던중 도망을 갔다고 송상무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사건발생 두달이 지났는데 구체적인 해결대안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이사회에서도 사건과정을 보고했고, 손실금 보존방안 등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때는 소송도 걸 계획입니다. 또 회사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을 낼 생각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규모를 얼마라고 추정합니까. 검찰 조사로는 44억이 횡령됐다는데…

▲그건 모릅니다. 검찰이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재단수습대책위원회의 최종조사결과가 가장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대략 18억원정도라고 봅니다. 여기에 종회에서 추가로 밝힌 8억원이 첨가된 26억원이 총 손실액일 것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과연 경리직원 몇몇이 마음대로 유용 횡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다른 관련자는 없습니까.

▲솔직히 김선도 김현안 박지현씨 이외에 또 다른 관련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현안씨가 검찰에서 자신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출을 집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검찰에 구속된 사람이 자신의 변호를 위해 무슨말이든 못하겠습니까. 주범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살아나갈 방법을 찾는 것으로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검찰에가서 확인하니 횡령사건으로 들어온 사람은 모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노조의 자료에 의하면 사장취임이후 나라기획의 불교방송 수주율이 평화방송보다 월등히 떨어졌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된 사실입니까.

▲나는 나라기획 말고도 여러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어요. 모두 직접적인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기획의 종교방송에 대한 광고배분비율을 체크할 수도 없는 위치이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번 사건해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4일 이사회서 96년 결산보고를 합니다. 96년까지 결손금액이 횡령액을 제외하고 2천5백만원이고 횡령액까지 합하면 95년과 비슷한 26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손은 방송국 개국때부터 96년까지 총 94억원이 넘게 있어왔습니다. 매년 이사회 결산보고에서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26억원에 이르는 돈이 결손금으로 밝혀졌었지만 전혀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도 내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결산과정에서 그대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같은 엄청난 손실금액은 방송국운영이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로 만연돼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건해결의 최대 관건인 김선도씨를 잡아올 계획은 없으신지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잡기위해 경찰청 검찰청 외무부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 상당한 진척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사람은 반드시 잡힐 것이고, 더 이상은 밝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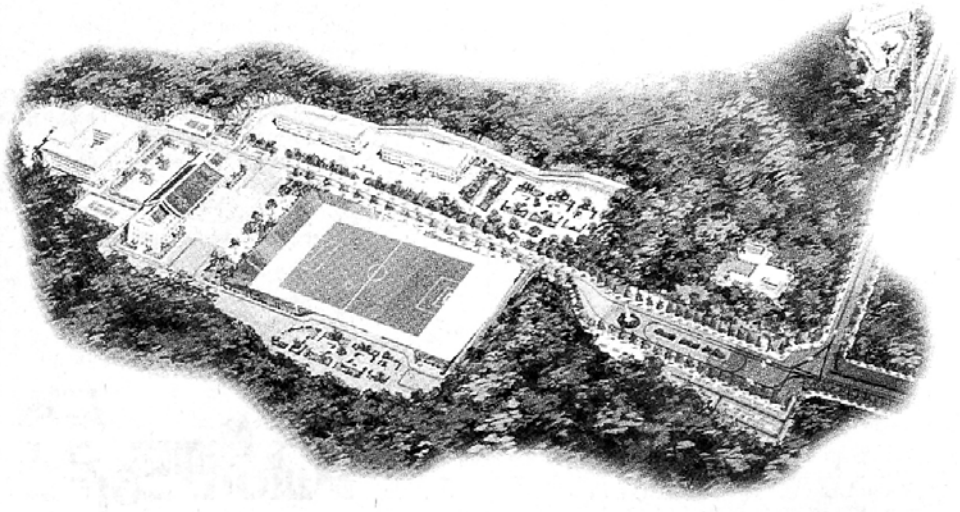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이처럼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 이유가 따로있다고 하는데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단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현재 떠돌고 있는 것이 가슴아플 뿐입니다.

이은자 기자

中央僧伽大學校

김포학사 신축불사 후원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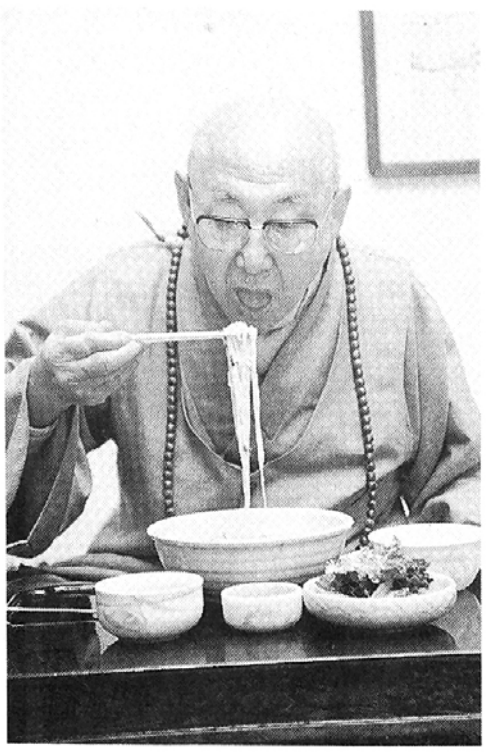


귀의삼보하옵고, 금번 중앙승가대학교는 지난해 12월 정규대학으로의 승격을 합께 축하하고 보다 나은 내일의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발전을 위한 김포학사 신축불사를 하루속히 성취하기 위해 다시 한번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으고 의지와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 이에 사부대중을 모시고 뜻깊은 법회의 장을 마련하오니 부디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중앙승가대학교 발전위원장 겸 이사장 송 월 주
중앙승가대학교 총 장 방 지 하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장 신 무 상

■ 일 시 : 불기 2541(1997) 4월 14일(월) 18:00
■ 장 소 : 힐튼호텔 1층 컨벤션 센타
■ 내 용 : 1부. 법회
2부. 축하공연 및 만찬(저녁공양)
■ 주 최 : 중앙승가대학교 발전위원회
■ 후 원 :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조계사, 도선사, 봉은사
■ 협 찬 : 불교방송, 불교 CATV, 불교신문, 대한불교진흥원

☎ 929-9831, 926-4377, 925-5507~9, 923-1794



덕암스님 하루한끼 국수 공양

Focus

15년동안 점심으로 국수만 먹은 스님. 서울 종로 사간동 법륜사에 주석하고 있는 덕암스님(85, 태고총림 방장)이 그 주인공.

국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15년전만 해도 먹을것이 부족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결사결사 하루 한끼만이라도 국수를 먹기로 하면서 국수와 인연을 맺었다.

"요즘 세상에도 쌀이 없어 굶는 결식아동이 많다"는 스님은 특히 북한동포를 생각하면 한 톨이라도 더 아껴야 한다고 강조한다. 쌀 한 톨이라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스님의 '국수 사랑'이 향기롭다.

한명우 기자

"원로회의·종회 독립 필요"

월하종정 83회생신… 설정스님 등 3백명 참석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월파)는 지난 2일 경내 설법전에서 종정직 사퇴를 표명한 월하스님의 83세 생신을 맞아 축원법회를 봉행하고 감로전에서 대중공양을 가졌다.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설정스님(중앙종회 의장)의 축원문 낭독에 이어 청하스님(통도사 부방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정스님의 생신이 곧 우리 모두의 생일인 것이니 다같이 태어남의 기쁨을 나누자"고 말했다.

비가 내린 이날 영축총림에는 이른 시각부터 각 말사 스님들과 문도들이 내방했다. 또 설정스님, 서울 구룡사 주지 정우스님, 종회의원 동광·영배스님 등이 자리했다.

특히 설정스님과의 환담에서 월하스님은 "불교방송 공금횡령 사건은 확실하게 밝혀서 종도들이 원하는 방송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종회가 순조롭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종회나 원로회의가 총무원에 예속돼 있다. 종회는 자신의 입장이 따로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종단을 잘 이끌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월하스님과 생일이 같은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자리하지 않았다. 한편 개혁종단이 출범했던 94년 이날은 통도사에서 종정스님과 총무원장스님이 합동 축원법회를 가졌었다.

통도사=천미희 기자

"부회장단 구성 초파일전 완료"

조계종 중앙신도회 **조종래** 사무총장



지난 70년 조계종총무원 종무원으로 종단행정에 참여한 이래 28년째 총무원에서 일하고 있는 조종래거사(61·총무부국장). 최근 창립한 조계종중앙신도회 사무총장직도 맡았다.

"신도조직에는 문외한인데 중앙신도회의 중책을 맡아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만 마지막 소임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 총장은 조계종중앙신도회가 과거와는 달리 '아래로부터' 조직되었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단위사찰과 교구신도회가 모여 중앙신도회를 구성한 것은 종단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부회장단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직과 운영에 관심을 갖는 분으로 모시려니 조금 시일이 걸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초파일 안으로는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들과 신도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내가 조직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신도회는 물론 불교발전도 가능하겠지요."

정성운 기자

교차로

신입회원 환영 법회



성오 부산불교고등학생연합회 회장스님은 지난 3월 30일 범어사 탑전에서 신입회원 환영법회를 개최했다.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연합회장단 및 지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중·고생 10명에게 3백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전달했다.

시찰건립위한 개산재



지원 삼보사 주지는 오는 13일 낮12시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도리산에서 사찰건립을 위한 개산재를 개최한다.

출발은 오전10시 삼보사이다.

(02)352-6406

속초경실련 공동대표



지홍 낙산사 주지는 최근 속초문화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가진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포교원 연수국장에 임명



법경 분당 기원정사 주지는 3월 31일자로 조계종포교원 연수국장에 임명. 66년 월정사에서 태허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백양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했으며, 선운사 재무국장과 옥천사 주지를 역임했다.

법화불교대학 개설

자일 완주 안심사 주지는 오는 12일 법화불교대학을 개설해, 〈천수경〉, 천자문, 기초교리, 〈법화경〉 등을 1년간 강의한다. (0652)73-7475

자비의 전화 개설 7돌

정덕 자비의 전화 회장스님은 오는 23일 낮 12시 종로구 인사동 남양빌딩 4층에서 개원 7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선정문화와 민주주의' 포럼



고준환 하나로포럼선정회 상임공동대표는 오는 15일 오후2시 서울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선정문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을 주제로 제4회 포럼을 연다.

서울시립大 법정대 학장



최철화 서울시립대 교수는 학장선거에서 법정대학 학장으로 선출돼 지난 3월 1일 공식 취임했다.

지구장배 체육대회 개최

이정환 대불청 경북지구장은 지난 6일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경북지구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게시판

♣ 강연

고은시인 초청=동화사포교원 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원장 지도)은 오는 10일 오후7시 시인 고은씨(본지 논설고문)를 초청하여 '불교가 현사회에서 해야할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053)784-3669

♣ 강좌

기초교리=조계사(주지 현근)는 오는 19일부터 제17기 기초교리 강좌를 개설한다. 강의내용은 불자예절, 불교의식, 부처님의 생애, 불교기초상식, 근본불교, 대승불교, 승단과 계율, 찬불가 등이다. 강의는 매주 목·금요일에 있다. 수강료 7만원. (02)720-1390

♣ 답사

중국불교 성지순례=불교TV(사장 태응스님)는 오는 21일 8박9일 일정으로 중국불교 성지순례를 떠난다. 순례지는 오대산 보타산 등 4대명산, 운강석굴 등 3대 석굴, 백마사, 소림사 등이다. 순례비는 1백15만원. (02)3270-2471

♣ 행사

우리는선우 수련회=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서)는 오는 12, 13일 남원 실상사에서 정기수련회를 개최한다. 돌아오는 길에는 천운사와 진안 마이산 탑사도 답사한다. 회비는 일반 45,000원 대학생 30,000원 초·중고생 20,000원

(02)278-8672

사명대사호국선양회 창립=표충사(주지 신허)는 밀양시와 공동으로 15일 오전11시 표충서원에서 사명대사 추모 제507회 춘계향사를 봉행하고, 사명대사 호국선양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0527)356-0322

자비의 연등 밝히기=자비의 집(원장 동광스님)은 '자비의 연등' 밝히기 행사를 실시한다. '자비의 연등' 수익금은 무의탁 노인들의 치료비와 한끼식사가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1회 반찬배달봉사에 쓰여진다. 접수는 오는 5월 10일까지며 동참보시금은 20,000원이상(1년연등)이다. (02)945-4200

♣ 모집

영어·수학 강사=부산 개금사회복지관(관장 범산스님)은 중학생 영어·수학교실 강사를 모집한다. 대상은 영어·수학 전공자 및 경력자며 수업은 월~금 오후7시부터 9시까지다. 구비서류는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051)893-5034

♣ 안내

청소년 후원회원=(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스님)는 청소년 및 지도자를 위한 불서 발간과 청소년포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회원을 모집한다.

(02)723-6165

불교도서관 개관=대전 녹야원(원장 박형권)이 불교도서관을 개방한다. 대장경, 불교경전, 불교입문서, 불교논문, 동양철학, 어린이 도서, 법문테이프 등을 갖춘 불교도서관은 무료열람이며 대출도 가능하다. 열람시간 매일 오전9시~오후7시(일요일 오후2시).

(042)625-1080

카운슬러대학=대구 자비의 전화(회장 지도)가 제6기 카운슬러대학을 8일부터 5월 9일까지 미국 교육실에서 개설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불교와 건강법(성우스님) △전화상담의 특징과 기법(장기순소장) △가족관계와 가족갈등(이인자교수) 등 10여개 강좌가 진행된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2시에 시작되며 수강료는 3만원.

(053)951-3340

은빛생활정보 총람발간=한국노인의 전화(대표 이성우)는 노인관련 기관, 시설, 건강정보 등을 수집하여 〈은빛생활정보총람〉을 발간했다.

(02)365-2272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현대불교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오현스님)는 오는 26일 오후5시 조계사에서 제2회 현대불교문학상시상식과 시낭송회를 갖는다.

♣ 이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이 사무실을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2번지 2층으로 이전했다.

(02)723-5101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공동가두캠페인 3,835,420원 △밥 한 공기 나누기 3,580,000원 △청년정토회 1,477,000원 △대행스님(한마음선원) 1,000,000원 △대한불교청년회 1,000,000원 △조동종 1,000,000원 △서초불법당 상주중 500,000원 △이춘경 500,000원 △박상희 500,000원 △종현 스님(해인사) 410,000원 △아니룻다 승만회 400,000원 △김묘길 350,000원 △청계사 영등포포교원 325,000원 △이나라 300,000원 외 62명

〈2일 현재 총159,975,033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정

◇문화예술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봉축음악회	4월 9일 오후7시30분	KBS홀	851-3881
만등민화공양법회	4월 12일 오후3시	장충체육관	887-6458
시낭송회	4월 26일 오후5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308-9520
봉축음악회	4월 29일 오후6시	엠버서더호텔	260-3606
불교판화전	4월 30일~5월 6일	단성갤러리	739-8430
'희안초상' 공연	5월 1일~6일	국립극장	725-1674
봉축사진전	5월 6일~14일	조계사	611-8262
고려연등의식재연	5월 18일 오후1시	덕수궁	3672-4030

◇어린이·청소년 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청소년탐돌이 한마당	5월 3일 오후6시	탑골공원	723-6165
연꽃노래잔치	5월 4일 오후1시	동국대 중강당	730-9108
부처님그리기 대회	5월 5일 오전10시	목아박물관	420-3300
참니 청소년 통일 환경문화예술대전	5월 18일 오전9시30분	보라매공원	747-5787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	5월 25일 오후2시	동국대 중강당	735-8165

◇학술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고찰	5월 2일 오후1시	동국대 학술문화관	(0523)81-7479
민족통일과 불교	5월 6일 오후4시	만해교육관	720-1902
불교청소년 복지의 방안	5월 8일 오전10시	중앙승가대 정진관	929-2105
불교의 시각에서 본 생명복제	5월 9일 오후1시30분	동국대 80주년 기념문화관	260-3500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5월 24일 오후2시	불교회관 1층	720-6618

◇기타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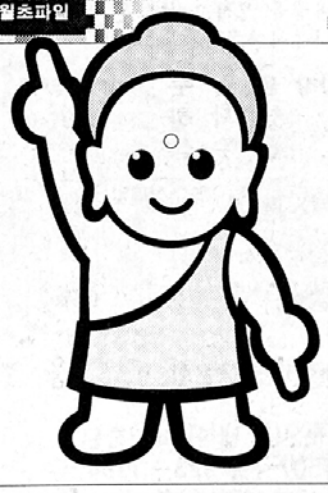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애기봉 OP점등식	4월 25일 오후6시30분	애기봉	(0341)988-4906
탑골자원봉사	5월 3일 오전11시	탑골공원	723-5101
건강가족마라톤대회	5월 5일 오전10시	목동청소년회관	646-6819
불교 웅변대회	5월 11일 오후1시	조계사	735-1896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공식지정업체

최첨단 고품질의 전사방식!

봉축현수막



2541.5.14 사월초파일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Buddha's Birthday

※ 봉축위원회에서 지정한 현수막입니다.

2541년 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부처님
그 깊은 자비심을 더욱 뜻깊게 전하려는 불교계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봉축위원회 공식지정업체인 불교이벤트하우스가
행사용품에 세심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보다 아름다운 행사를 위해, 고품질의 전사방식으로 인쇄한 봉축현수막,
품위있는 불교스티커, 등꼬리표, 만불기 등을 봉축위원회가 제정한 EIP에 의거하여
제작보급하고 있습니다.

- 불교이벤트하우스에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행사용 아취, 탑 등의 구조물은 상담바랍니다.

■ 봉축행사용품가격표

품 명	규 격	가 격
현 수 막	90×600Cm	40,000원
	90×800Cm	50,000원
	90×1,000Cm	60,000원
	90×1,200Cm	80,000원
폴 배 너	A SET(2종)	40,000원(거치대별매)
	B SET(4종)	80,000원(거치대별매)
만불기형 배너	1SET(5개/2m)	20,000원
깃 발		
어 께 띠	95×180Cm	2,000원
스 티 커	1SET(15종)	1,500원
차량용 스티커	개 당	300원
등꼬리표	100개(소 20Cm)	1,000원
	100개(대 30Cm)	1,500원
버 튼	개 당	300원
타이슬링	개 당	1,500원
풍 선	개 당	300원
셔 츠	종류별	6,000원/8,000원/10,000원
점 퍼	벌 당	35,000원
조 끼	벌 당	30,000원
모 자	개 당	3,000원

● 현수막제작시 단체명 또는 사찰명을 삽입해 드립니다.
● 주문일로부터 7일이내에 모든물품이 납품가능합니다.

불교이벤트하우스에서는 이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1) 교내의 각종 행사의 기획 및 시행
- 각종 종교행사 이벤트 기획 시행
- 서화전등 행사 기획 시행

2) 각종 홍보물 기획 및 제작
- 사찰별 EIP 기획/제작
- 캐릭터 개발
- 사찰 이미지 부각 공익 광고물 기획 /제작
(신도신문/잡지의 기획제작, 사찰용 각종 인쇄물 기획제작)
- 봉축현수막, 행사용 각종 현수막, 배너, 대형 괴불탱화 제작
- 옥내·외 광고물 기획 제작 관리,
- 신문 잡지광고 제작 및 포스터 카달로그 제작

3) 불교 서적 출판
- 불교서적 편집 출판
- 불교관련 전자서적 제작 (CD-ROM TITLE, VCR)

4) 컨설팅
- 사찰의 법률 관련 컨설팅 (불교전문 법률고문 위임)
- 사찰의 세무/회계 관련 컨설팅
(불교전문 세무/회계고문 위임)
- 사찰의 건축 관련 컨설팅 (불교전문 건축고문 위임)

불교이벤트하우스
불교계 Total Consulting Group

문의 및 주문처:3785-3381(代)

본사: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4-22 삼림빌딩 3층 TEL: (02)3785-3381~4 FAX: (02)3785-3385 인사동지사: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빌딩 503호 TEL: (02)733-4277 FAX: (02)733-4279



◇용주사에서 주지 정락스님의 지도로 합장인사를 해보는 주한 외국인들. 〈사진=고영배 기자〉

"사찰음식 맛 반했어요"

주한 외교사절 45명 용주사 답사현장

"Delicious!(맛있어요)" "Very good!(너무 좋아요)"

용주사(주지 정락)에서 전통 사찰음식으로 점심공양을 한 주한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좋아요!'를 연발한다.

'97 문화유산의해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주한 외교사절 초청답사'에 참가한 외국인들

탑에 새긴 '부모은중경' 중국의 효와 비교 열심

은 사찰에서 먹는 채식위주의 음식이 마냥 신기한 듯 연신 싱글벙글이다. 체코대사관 비서관 에바는 "음식이 보기에 예뻐요. 맛도 좋구요!"라며 서툰 젓가락질로 산채며 전들을 집어먹는다.

지난 3월29일 올들어 두 번째로 치러진 이번 답사는 '정조대왕의 효심을 찾아서'란 주제로 용주사를 비롯 수원화성과 융건릉을 둘러봤다. 용주사 대웅전 앞에서 주지 정락스님에게 합장을 배운 외국인들은 스님들의 일상생활과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대사관 일등서기관 김연광씨는 능숙한 한국말로 대웅전 옆 탑 4면에 새겨져 있는 〈부모은중경〉의 의미를 묻는가 하면 중국의 효와 비교하는 열성도 보였다.

수원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신청 중에 있어 외국인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하립 대그 터키 대사는 "수원화성의 견고함과 거대함에 감탄했다"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잘 보존돼 있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을 만하다"고 소감을 말하기도 한다.

이번 답사는 윤흥로 문화재 전문위원의 안내로 대그 터키 대사 부부를 비롯한 외교사절, 상사원 등 10여개국 45명이 참가했다.

용주사=윤기석 기자

탐 부천 법륜회 방

"자비실천 법륜 굴려요"

지난 3월30일 부천 중앙공원. '장애인과 함께 하는 한마음 한뜻' 행사가 다채로운 퀴즈와 게임으로 진행되어 장애인들에게 모처럼 즐거운 하루를 선사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부천법륜회(회장 송기준)는 최근 회원들로 구성된 아마추어무선단체국 '복지법인 룸비니'의 첫 전파를 발사, 현장을 생중계하는 전파포교를 개시했다.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과

봄·가을 장애인 위로행사 무선국 룸비니 개설 '홍보' 위급환자 병원 후송 솔선

함께 부천 중3동 지역의 3급이상 중증장애인과 보호자 70여명을 초청, 한마음 한마당을 이룬 이날 행사는 장애인들에게 자활의지와 '이웃은 하나'라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자비와 평등을 실천하는 움직이는 법당'을 표방하며 지난 91년 12월22일 88명의 운전불자들이 석왕사에서 창립한 부천법륜회는 92년부터 매년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정신·시각 장애인, 뇌성마비자 등을 위한 장애인 가족행사를 펼치고 있다.

때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회원들의 개인택시에 나눠 태우고 통일전망대, 청와대 등으로 여행을 시키기도 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우리가 보살핀 장애인들이 나름의 기술을 배워 새 삶을 꾸려갈 때가 가장 기쁘다"는 송기준회장은 "앞으로 장애인 행사 외에도 양로원 및 결손가정 돕기 등으로 보살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자신감을 보인다.

법륜회는 이런 복지활동외에도 평소 기동력 있는 1평규모의 작은 포교도량에서 1대1의 전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고의 전법사라는 자부심 아래 승객에게 모범적인 불자의 자세를 보이면서 대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다. 또 BBS 교통통신원 부천지부의 통신망을 통해 위급한 불자들을 구호하거나 병원에 수송하기도 한다.

회원들은 매월 셋째 금요일 오후 2시 석왕사에서 열리는 정기법회와 매월 명산대찰을 답사하는 순례법회를 통해 교리를 배우고 신심을 드높여 치마불교를 능가하는 거사불교의 중흥을 다짐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지난 3월30일 부천중앙공원에서 열린 '장애인과 함께 하는 한마음 한뜻' 행사.



교각·교통표지판 매주 청소

부산불교운전기사회 '청정도시 가꾸기'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백봉도)가 지난달 9일부터 매주 일요일 부산시내 각 교각과 교통표지판 청소를 실시하고 있어 시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다음달 열리는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앞두고 실시되고 있는 이번 '청정부산 가꾸기' 행사는 지난 3월 9일 문현동 도시고속도로 교각청소에 이어 16일 동서고가-주례-감전동 인터체인지, 23일에는 부두 자성대 일대를 청소했다.

동회는 13일 당감동입구-개금일대, 20일 구덕운동장-영주동, 27일 사직운동장 일대의 교통표지판을 청소할 예정이다.



반야삼성 어린이집 개원식

삼성복지재단과 직지사가 업무제휴하여 운영하는 반야삼성어린이집(원장 박화문)이 지난 3월 27일 경북 구미사 송정동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직지사회주 녹원스님, 도리사주지 법등스님, 김관용 구미시장, 이용원 구미시의회 의장, 권기양 구미교육청장, 구교찬 구미경찰서장, 김무 삼성상용차 대표이사등 내외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했다. 96년 4월 착공하여 14억원이 투입된 반야삼성어린이집은 대지 396평 연건평 289평의 지상3층 지하 1층 규모이다.



불자연 호국금강사서 은행나무심기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지난 3월 30일 경기도 포천 제5군단사령부 호국 금강사에서 자원봉사자및 군관계자 장병등 1백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 푸르게 가꾸기 제 5차 춘계 은행나무심기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약 1천그루의 은행나무를 5군 사령부 호국금강사 예하 특공연대에 골고루 나누어 심었다.



부산 불심홍법원 바라밀제 봉행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이사장 정관)은 지난 3월29일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제7회 홍법바라밀제를 봉행했다.

정관스님, 감로사 주지 혜총스님, 월강스님, 보암스님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정각스님, 고우익 법사, 장성화법사가 홍법대상을 수상했고 청소년 불교단체지도자와 청소년불교단체가 지원금을 전달받았다.



'문화유산의 해'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청교련 대전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장 종실스님)는 지난 3월29일 삼성초등학교에서 문화유산의해 청소년자원봉사 실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실스님, 대전 교육청 부교육감 이화영, 문화체육국장 이강호씨를 비롯 대전시내 중고등학생 5백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종실스님은 "전통문화의 얼을 살려 이 시대의 역군이 되자"고 말했다.

우리 모임에선

파계사 '항일투사' 영가천혼

파계사(주지 성우스님)는 11일 홍범도 장군 등 러시아에서 활동하다 숨진 우국지사 48위의 영가천혼 법회를 봉행한다.

향과 음식을 차리고 〈지장경〉을 독송하는 영가천도재는 영혼이 악연을 풀고 성품을 깨달아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으로 지장재일에 맞춰 거행된다.

천리안 불교동호회 모임

PC통신을 통해 불교를 공부하면서 불법홍포에 앞장서 온 신세대 신행단체인 천리안 불교동호회(Sysop 박수호)가 오는 19, 20일 대전 동학사에서 올해 두번째 전국모임을 갖는다.

불교동호회는 19일 계룡산에서 민박을 하며 토론회를 가진 후 20일 동학사에서 새벽예불과 기도, 계룡산 남매탑 답사 등으로 불심을 다지고 향후 동호회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인천광역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단장 선일스님)은 지난 3월29일 등인천역에서 감시단 단원과 1천여명의 중고등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유해환경근절 및 학교폭력추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선일스님은 "유해환경감시는 온 시민이 청소년 보호의 목적으로 함께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독려했다.

황령산 살리기 나무심기

황령산 살리기 63개 시민단체 비상대책위(공동대표 정각 미룡사 주지스님)와 늘푸른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공동대표 조성래 변호사·손덕만 신부)은 지난 5일 황령산 봉수대 일대에서 온천개발 추진 등으로 위기에 처한 부산 황령산을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식수운동을 벌였다.

이날 시민들은 5천원의 나무값을 내고 황령산에 가족 덩의로 된 나무를 심었다.

전주 상산고 파라미타

전주 상산고등학교 파라미타(지도교사 백준기)는 지난 3월29일 8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생환영회를 가졌다.

각 회원간 상견례 및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한 이날 환영회에서 백준기 지도교사는 "사찰순례 및 문화기행을 통해 신심과 향토사랑을 진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만일동안 이어지는 목탁소리"

사경회 만일기도추진위 8일 헌다식

한번도 목탁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만일생명기도를 아십니까. 대한불교사경회 만일생명기도추진위원회(회장 이양대 법사)는 8일 오후 2시 범어사 지장암(주지 묵화)에서 차(茶)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곳에서의 백일기도를 기념하는 헌다식 법회를 봉행했다. 헌다식 법회란 만일기도중 1백일마다 부처님께 차와 꽃을 공양하며 도덕성회복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발원하는 의식.

대한불교사경회는 불법에 의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발원하며 지난 95년 1월1일부터 만일생명기도를 시작했다.

현재 지장암에는 8명의 스님들이 3시간씩 돌아가며 염불을 계속하고 있다. 약 30년이 소요되는 이 대작불사에는 불자라면 누구든지 언제나 동참할 수 있다. (051)554-7535

약천사 삼월 정대불사및 경로대잔치

부처님의 성스럽고 위대한 교훈을 받들어 향화(香華)를 밝히고 화엄의 중중무진(重重無盡)한 진리를 열어 사부대중의 복전이 되어온 약천사에서 정대수호(頂戴守護)하는 정성으로 정대불사및 경로대잔치를 열고자 하오니 무루 참석하시어 개인적으로는 불자님의 한없는 복덕과 지혜를, 국가적으로는 평화와 안녕을 닦는 법연을 함께 맺으시기 바랍니다.

귀의 삼보 하옵고

먼저 부처님의 가피와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건립된 약천사 대웅전에서
년년행사인 삼월정대불사 및
경로대잔치에 초대코저
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불법의 향기와 감로의 법문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오며
불자님의 가정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식 순

■ 4/21(음3/15)
14:00 입제식
14:30 경로대잔치 및 후원금전달
인기탤런트 전원주 외 불자연예인
인기가수 김용민 공연
고성옥 제주 민요단 공연
(국악가요) 도신스님
18:00 저녁공양
19:00 저녁예불(법고춤 시범)
20:00 설법(삼중스님)
21:00 특별강연(박완일 교수)
22:00 수륙천도법회(주지스님)
24:00 철야기도

■ 4/22(음3/16)
04:00 새벽예불
05:00 불공시작
06:00 정대불사
(법성게)
타종의식
및 법고
07:00 아침공양
09:00 자유관광

극락도량 제주 약천사 주지 혜인 합장 TEL 064)38-5000, 38-2597 FAX 064)38-5022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동림 동문회

'97 정기총회 및 자랑스러운 동림인상 시상식

산자락 붉게 물들인 그늘 화창한 봄 햇살이 아른거리며 온 대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동문스님!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방에서 수행정진과 가람수호및 포교전법의 지도자로서 노심초사 지역과 한국불교의 최일선에서 주도적 전문성으로 우뚝선 스님. 평소 동림동문회에 깊은 사려와 성원을 주신 스님께 늘 송구하게 생각하오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여러 동문스님들의 아낌없는 큰 지혜와 넉넉한 마음으로 서리같은 질책 겸허히 받들어 존중하겠습니다. 모쪼록 97년 정기총회를 계기로 출가공동체로서 동국의 건학이념과 현실과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동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 일시 : 1997년 4월 14일(월) 오후3시
● 장소 : 남산타워호텔 렉스룸(T:250-9292)
● 특강 : 한국불교법맥(월정사주지 현해스님)

97자랑스러운 동림인상 시상			
학술연구	1명	사회복지봉사	1명
포교	1명	가람수호	1명
본회발전공로	1명	상패및 격려금 100만원시상	

본부:상주 남장사 (0582)34-6331
사무처:동원정사(0346)593-6829/7584 (02)736-6202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동림동문회 회장 성 _ 웅 합장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300회 기념음악회에 후원과 동국대 승가총동문 총회에 동참해 주신 동문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무처)

법회안내

불암사(0346)65-8345



◇주지 일면스님

초하루인등법회 매월초하루(음) 10시30분(3일간)
지장기도 및 108 참회법회 매월 18일(음) 10시30분(3일간)
관음기도 매월 24일(음) 10시30분(3일간)

혜원정사(051)866-7771~3



◇주지 승원스님

자비화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선지식화법회 매월3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24일(음) 오전10시
연꽃부부화법회 매월넷째주 일요일 오전10시
어린이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청년화법회 매주화요일 오후7시30분
중등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고등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무진법장사(02)932-2333



◇주지 법장스님

일요합동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학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지역법등법회 매주 목·금요일 오후2시
거사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법륜회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7시
초삼일법화성중기도 매월1~3일 오전10시30분
안등광명기도 매월15일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업장소멸기도 매월18일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행복발원기도 매월24일 오전10시30분

청계사포교원(0343)95-6311

산중기도 매월 초하루(음) 오전10시
보광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녹야원(042)625-1080

일요일반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중·고등부법회 매주일요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일요일 오전10시30분
참선법회 매주 화요일 오후7시~9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이렇게 들었다 — 보시의 힘으로…

팔순의 최은순 할머니가 평생동안 광주리 행상과 삯바느질로 모은 돈 1억원을 대학 장학금으로 쾌척(快擲)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교계에서는 박상은씨가 20년 재소자 생활로 젊음을 보내고 8년동안 모은 1천만원을 북한동포돕기 기금으로 기탁했다. 불자들은 왜 물질과 마음으로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실천해야 하는지 경전의 말씀을 듣는다.〈편집자 주〉

○… 보시가 보살의 정토다. 보살이 성불할 때 온갖 것을 능히 베푼 중생이 그 나라에 태어난다. 〈유마경〉

○… 불자여, 보살은 큰 시주(施主)가 되어 온갖 가진 것을 다 보시하되, 그 마음은 평등해 뉘우치거나 인색함이 없으며, 과보를 바라지 않으며, 명성을 구하지 않으며,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온갖 중생을 구호하고 온갖 중생을 이롭게 하기만을 위할 뿐이다. 〈화엄경〉

○… 보시하는 힘을 수행해 완성하면 이 보시하는 힘으로 인하여 성불할 수 있게 된다. 〈광명경〉

○… 보살은 세상의 뛰어난 물건에 대해 탐심을 내지 않아서 늘 모든 중생에게 이를 보시한다. 왜냐하면 대비(大悲)의 마음으로 중생들 하나하나를 외아들인양 평등히 보아서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길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육바라밀경〉

○…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이와같이 보시하여 상(相)에 집착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상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큰 까닭이다. 〈반야경〉

○… 부처님께서는 옛날에 몸과 국토와 처자를 버리사 보시의 수행을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드린다. 〈부자합집경〉

○… 제어하기 힘든 어려운 인색한 마음을 제어하여 재물을 품되, 꿈과 같이 하고 뜬구름같이 해야 한다. 보시하는 집착없는 마음을 키우는 경우 이로인해 지혜가 완성된다. 〈화엄경〉

○…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할 때는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며 복전(福田)에 보시할 때는 기뻐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친우에게 보시할 때는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우바새계경〉

○… 온갖 중생을 관찰하건대, 보시를 염두에 두지 않는 까닭에 도로 악도에 떨어져 윤회를 받게 된다. 만약 익히 깨달아 길이 보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필코 불환과(不還果; 뒷걸음질 치지 않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지)를 얻어 이 세상에 다시 와 태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본사경〉

○… 인색과 탐욕에 집착하면 사람들과 신들의 천히 여기는 바가 안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혜있는 사람은 응당 보시해야 하는 것이다. 〈노지장자인연경〉

○… 다섯 가지의 보시가 있다. 첫째는 때에 맞추어 보시함이다. 둘째는 행인에게 보시함이다. 셋째는 병자와 간호하는 사람에게 보시함이다. 넷째는 법기(法器; 불법을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시함이다. 다섯째는 다른 나라에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시함이다. 〈비야비문경〉

신행수첩

활안스님 초청 생활법문

불법을 공부하고 생활속에서 정진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11일 활안스님(천자암 조실)을 친견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천안 천불암(주지 인경)이 '생활속에 실천해야할 불교윤리'를 주제로 활안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천불암은 전국의 덕높으신 스님만을 초빙하여 법향 그윽한 말씀의 자리를 3년째 마련하고 있다. 이날 활안스님은 중생구제의 크나큰 원력으로 '나'를 비워야 바로보고 쓸줄아는 지혜를 얻는다는 내용으로 설법을 한다. (0417)557-3223

육조단경 강좌 · 108참회

향긋한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충북 괴산으로 스님, 도반과 함께 떠나는 유행길.

불교문화센터 교리강좌반은 1박2일 과정으로 오는 17일 괴산 다보수련원으로 수련대회를 간다. 혜거스님(금강선원 원장)과 〈육조단경〉을 공부하는 법우들 그리고 일반인도 참가하는 수련대회에서는 108참회와 참선, 〈육조단경〉 강의, 발우공양 등을 한다.

참가자는 17일 오후1시 불교방송 앞에서 출발하며 동참금은 5만원이다. (02)703-0108



◇칠불암 일광삼존불. 8세기 중엽의 마애불로 석굴암에 견줄만하다.

정토회 제8차 신앙대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이 땅에 불국정토를 이루자."

교도소, 병원, 양로원 등에 9년간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해온 정토회(회주 법륜스님)가 12일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제8차 신앙대회를 개최한다.

서암, 법륜스님, 각해보살 등의 법문과 생활속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는 일반불자들의 신행사례담을 듣는다. 108배, 좌선염불정근 등의 순서로 철야 용맹정진을 하다보면 스스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 보며 이 땅의 정토 발원을 굳건히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철야 용맹정진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581-4077

19일 신라역사 탐방

보름달이 휘엉청 뜬 밤에 인자하신 부처님의 미소를 느끼며 밤을 지새워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19일 신라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달빛속에 은은히 풍겨나는 부처님의 미소를 맛볼 수 있는 '제4회 달빛과 함께하는 신라역사탐방'을 떠난다.

칠불암-신선암-천룡사로 이어지는 답사코스에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불국토를 이루려는 신라인들의 진솔한 마음이 깊이 배어있다. (0561)771-1950

해인사 일요가족법회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보광)는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해인사 신도 정기 주말가족법회를 개설하고 있다.

감로의 법문은 마음이 복잡하고 골치가 아프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과 도견 일타 지관 보광스님 등이 나서,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진행된다.

화엄사 진신사리 친견

능인선원(주지 지광)은 28일 화엄사(주지 종열) 참배 및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갖는다.

또 돌아오는 길에는 지리산 노고단에 들러 봄기운이 만연한 철쭉제를 참관, 봄내음을 한껏 즐긴다. 이번에 친견하게될 부처님 진신사리는 각황전앞 7층석탑에서 출토됐다. 출발시간 5시30분. (02)577-5800

경주일대 삼국유사 현장을 찾아서

천리안 답사모임 20일 출발…신청자 접수

한국 고대불교문화사의 진수라 일컬어지는 〈삼국유사〉. 그 속에 담겨진 이야기들이 살아숨쉬고 있는 현장을 찾아 떠나는 답사가 있다.

천리안 삼국유사답사모임(대표 이형기, ID=INNDORY)은 '삼국유사의 자취가 서린 유적을 찾아'란 주제로 20일 경주 안강일대 답사를 떠난다. 안강지구에는 일반적인 신라석탑과 달리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혜사지 13층석탑(국보 40호)을 비롯 나원리 5층석탑(국보 39호) 옥산서원 독락당 등의 많은 유물 유적이 있다.

답사코스는 옥산서원-독락당-정혜사터 13층 석탑-나원리 5층석탑-금장대 암각화. 출발은 20일(일) 오전10시, 참가희망자는 PC통신 천리안 '삼국유사 소모임게시판'에 신청하면 된다.

나의 수행일기



김생호

"내가 변하니 이웃도 변하고"

매일 경전 50쪽 읽기로 삼독 씻어

"김기자, 이번에 서울로 진출하게 되서 참 잘됐네."

김부장은 나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이내 불쾌한 얼굴색으로 변해 "당신은 내가 이 직장에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좋수?"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무안해서 악수를 하려고 내밀던 손을 움츠리고 말았다. 매년 봄철이 되면 3~4년된 경력사원들을 동종업체에서 스카웃해 가곤 한다.

다시 한 해가 지나고 또 다른 동료가 다른 직장으로 가게 되었다. 이번에도 서울로 가게된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진터라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동료에게 "박기자! 당신같은 유능한 인물이 떠난다니 서운하이…" 웃음을 지어가며 말을 건넸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또 가는 길을 축복해 주었기에 손 내밀어 내게 악수를 청할 줄 알았는데 반응은 의외였다. "내가 잘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슈?"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후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고 누구를 쳐다보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위사람들이 "김형은 왜 말을 않고 삽니까? 딱딱하게시리…" 하고 지적하는 것이었다.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시고 푸념과 욕설로 그들을 매도하였는데, 나와 함께 자리를 한 사람들도 머쓱해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그러던 어느날 신장(神將)에게 목줄을 밟혀 몇 년을 살려느냐는 물음을 받아 3백년에서 단 3일까지 생명줄이 내려가는 꿈을 꾸다 잠에서 깨었다. 그 후 처음으로 불교경전을 접하게 되었는데,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헌책방을 뒤져 〈한글대장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방대하여 포기하려는 생각을 여러번 했다.

그러나 꿈속에서 신장님과 매일 50페이지씩 경전을 읽겠다는 약속을 철썩같이 하였던 터라 쉽사리 포기할 수 없어 매일매일 열심히 읽어나갔다. 그랬더니 탐진치 삼독이 점점 풀려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연히 시기, 질투심이 마음속에서 사라져 갔고, 술 담배도 끊게 되었다.

직장생활 이외의 시간은 무조건 경전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아내가 불안한지 걱정의 소리도 했다. 술주정과 악담만 내뱉던 남편이 방향을 180도 급선회하니 혹시 저러다 돌아버리는가 하고 조심스런 얼굴로 나를 대했다. 그러나 마음과 육신이 편안해지는데 어찌 경전읽기를 멈출 수 있겠는가.

술 담배에 찌들어 창백하던 얼굴에 화색이 돌고, 날카롭게 구사하던 악담이 어느덧 부드럽고 어눌한 말로 변해가고 못된 버릇이 줄자 많은 직장동료들이 사람이 변했다며 말을 건네왔다. 그러나 나 자신은 변했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다. 차라리 내 본 모습을 찾았구나 싶었다.



진정 내 가슴깊이 흐르는 삼독심의 출처를 알게되는 순간, 부처님의 가피력에 눈물을 떨구게 되었다.

얼마전에 또 다른 직장동료가 타회사로 옮기게 되었다.

"송기자! 이번에 새로 창간되는 주간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지? 축하해!"

그는 흘깃 내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며 "고맙다"고 했다.

'나'를 기준하여 볼 때, 지금까지의 일들이 변해서 내게 다가온 것이 틀림없는 일이지만 '나'라는 기준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금강경〉에 나와있다) 기준이 없는 '내'가 변했기에 지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삼독심에 젖은 상태에서는 어떤 진리의 말을 옮긴다해도 그것은 비굴하게 반응되어 내게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삼독심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면 주위에 부드럽게 반사되어 되돌아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대전일보 기획실 부실장〉

3월29일자(제308호)

대한불교신문에 게재된 불교부산방송에 관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불교부산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1.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개국한 불교부산방송에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는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는 불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경남지역 400만 불자들의 오랜 소망이었던 불교부산방송은 수많은 불자들의 기대속에 범어사, 통도사, 삼광사를 비롯한 사부대중의 삼보정재가 모여 이루어진 말그대로 부산,경남지역 불자들 모두가 주인인 소중한 방송입니다. 그리고 불교부산방송의 운영위원과 임직원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산,경남 지역불교를 활성화 시키는 방송, 그리고 올바른 불교를 생활화 시키기 위한 좋은 방송을 보내드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3. 그러나 지난 3월29일자 대한불교신문사에서 불교방송 경리사건을 다룬 어이없는 기사는 불교부산방송 애청자에게 당혹감을 주었으리라 믿으며, 아울러 불교부산방송 운영위원과 임직원 모두에게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허탈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애청자 여러분께서 가졌을지도 모르는 의혹을 풀어 드리기 위해 3월29일자 대한불교신문의 불교방송 관련기사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나마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된 점을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3월29일자 대한불교신문은 1면과 3면, 그리고 사설면에서 불교부산방송 개국시 성금 모금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불교부산방송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5.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초 서울 불교방송에서 발생한 경리사고는 그사건의 핵심 인물인 경리부차장이 베트남으로 도피한 관계로 아직까지 정확한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그리고 이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서울 불교방송 노조에서는 나름대로의 조사를 통해 지난 20일 "불교방송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개요"란 보고서를 냈는데, 이보고서 중 불교부산방송에서 개국당시 19억8천5백만원을 모금 서울로 송금 했으나 서울 통장에서는 24억여원이 입금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당시 서울 불교방송의 경리체계가 허술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불교신문은 그 부분을 인용 기사화하면서** 상기 보고서를 제대로 읽었는지 의아스럽게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여 마치 불교부산방송도 공금횡령이 있었다는 기사로 의혹을 제기하여 부산에서 공금유용이 밝혀 진것 같이 기사와 사설을 게재 했을뿐 아니라 그 제목마저 **기사의 내용과 맞지 않는 자극적인 문구로 일관하여, 불교부산방송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6. 따라서 **불교부산방송에서는 대한불교신문에 빠른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며, 불교방송노조에서도 자체 보고서를 원뜻과 전혀 다르게 보도한 대한불교신문에 유감을 나타내고 즉각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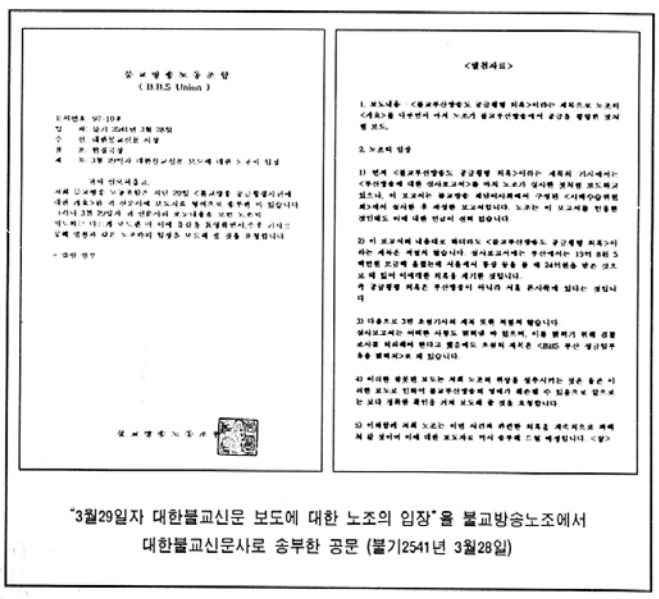
7. 그러나 **대한불교신문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으므로** 답답한 마음을 억누를 길 없으며, 불교부산방송 운영위원과 임직원 일동은 실추된 불교부산방송의 명예를 되살리고 진실이 제대로 통용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이러한 지면을 통해서라도 전후 사정을 밝혀야 불교부산방송의 주인인 애청자 여러분에 대한 도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8. 다시한번 이런 식으로라도 저희들의 가슴아픈 심정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된 현재의 슬픈 사정을 **불제자로서 참회하며 모두다 삿된 마음을 버리고 정법의 길로 나아가도록 기도하고자 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2541년 3월 31일

재단법인 불교부산방송
운영위원 · 임직원 일동 합장



"3월29일자 대한불교신문 보도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불교방송노조에서 대한불교신문사로 송부한 공문 (불기2541년 3월28일)

불자 세상보기

與野 '경제대책회의' 구성

국가위기 민족저력 발휘 '호소'

정치권이 경제살리기에 나섰다. 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 국민회의총재, 김종필 자민련총재, 이회창 신한국당대표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4자 회담을 갖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깊이 있게 협의하기 위해 여야정당과 각계각층 대표가 참여하는 경제대책협의회를 빠른 시일안에 구성한다"고 합의문을 통해 발표했다.

여야대표들은 또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민족의 저력과 지혜를 다시 발휘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며 국민들의 애국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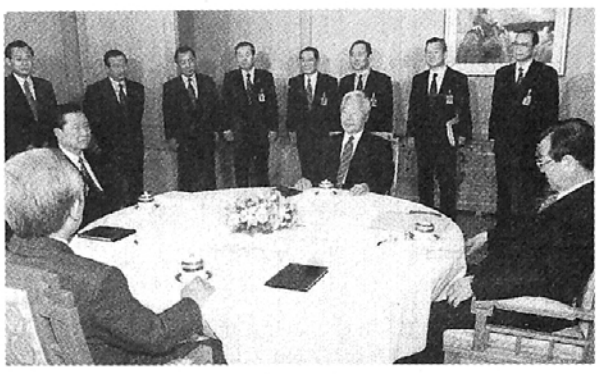
이에따라 3당 정책위의장은 2일 모임을 갖고 기구의 명칭을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대책회의'(약칭 경제대책회의)로 하고 활동시한을 연말까지로 정하는 등 구체적 활동에 들어갔다. 이 기구에는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5단체장, 노총과 민노총,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계 대표 각1명 등 모두 13명이 참여한다.

정책위의장들은 무역수지 방어책, 고용안정 물가안정, 저축증대 및 소비절약, 금융실명제 보완, 중소기업 지원책,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을 시급한 논의사항으로 꼽았다. 또 이 기구의 성격을 정치적 합의기구로 규정, 집행과 실천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올들어 수출이 내리 3개월째 감소치를 기록하고 있고 총외채는 1천4백억달러를 넘어서 94년 외환위기를 겪은 멕시코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지역에서만 하루평균 24개 업체가 부도를 냈으며, 또 체불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원대를 넘어섰다. 그런가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소비절약운동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이번 4자 회담에 대해 "경제회담의 외피를 입은 정치회담" "내막적으로는 정쟁으로 서로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공생을 위해 자제하자는 3김씨 사이의 다짐"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대체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는 점에서 늦기는 했지만 다행스런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마음모으기에 경제회생의 성패가 달려 있다.

정성운 기자



◇여야대표들이 1일 낮 '경제회담'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수출 3개월째 감소·외채 1천4백억 달러
국민 표류상태…정치권 자정 노력 급선무

불교의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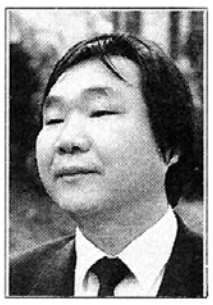
"우유와 물 섞이듯 서로 화합하라"

경불련 김동흔 사무처장은 "정치권이 경제살리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저비용의 정치제도 실시 등 정치권의 자정노력을 먼저 보여줄 때 국민들도 동참할 것"이라며 경제를 정치도구화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침 구실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라. 서로 화합하기를 우유와 물이 잘 섞이듯 하라. 서로 치고 싸우지도 말고 말로 다투지도 말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겨 모든 생명에게 근심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 내가 항상 칭찬하는 것이로다." 〈증일아함경 제16〉

시론

한배를 탄 사람들



김 항 배
〈동국대교수 · 철학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모든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날로 상실해 가고 있는데, 이는 계속되는 임금상승이 중요한 원인이며, 또한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신소재 개발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기를 꺼리고, 안이하게 돈을 벌수 있는 사치성 물품의 수입에만 열을 올리는 일부 몰지각한 기업인들의 타성에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현실은 경제문제보다 더욱 심각하다.

정치 국민신뢰 회복 관건

집권당이나 야당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거의 완전히 상실하여,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가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걸지 않고 있으며, 허탈감에 빠져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거기에는 오랫동안 쌓여진 원인이 있다. 5·16혁명 이후 조국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러 국민의 결집된 힘과 과감한 행정적 뒷받침으로 달려온 속도의 경제성장을 한때 이룩할 수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많은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기 유보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집권의욕을 지닌 정치가들의 분노와 저항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국민들의 호응을 등에 업고 즐기차게 민주화 투쟁을 지속한 결과 시대의 대세에 따라 문민정부가 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구시대의 모든 병폐를 일시에 척결하려는 과감한 개혁정치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모든 정치인들이 구도자나 수행승 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데 개혁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진정한 개혁은 지도자 자신을 비롯하여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에게 변화를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사회적 병폐의 원인을 남이나 다른 집단에게만 돌리고 이를 단죄하려고 하면, 자칫 정치보복과 자기합리화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게 된다. 결국 우리 사회의 정치개혁 및 경제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음을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제야말로 모든 정치인들이 대오각성해야만 할 때이다. 더 이상 상대 집단에게 상처를 내는 일을 능사로 삼아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타고 가는 운명공동체임을 잊지말고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데에는 나와 나의 집단의 과오도 적지 않았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또한 권력쟁취를 정치생활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되고, 권력이란 단지 국리민복을 위한 수단임을 깨달아야만 한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권력쟁취를 위한 조직과 선전선동에는 능했으나, 집권한 다음에 전국민이 자발적으로 정책에 협조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동기 유발에 실패한데 있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다른 모든 분야에 비해서 정치분야의 비중과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데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야만 한다. 개혁이란 이름아래 사회 각 분야의 권위와 신망을 파괴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으려 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위기를 초래한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과 일에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들이 독선과 아집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 이제야말로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업윤리를 확립해야만 할 때이다.

즉 종교인은 종교인답게, 학자는 학자답게, 예술인은 예술인답게, 정치가나 경제인은 또한 그들답게 생활하면서 인간의 이상을 추구할 때, 바람직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책임과 의무다하는 사회

부처님은 "마음이 깨끗해야 국토가 깨끗해진다"고 하였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불자들은 '나라 바로세우기'운동의 중심 축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심청정 국토청정'을 실현할 수 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열등감에서 기인하는 모든 허세와 허욕을 털어 버리고 광명정대한 마음으로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일에 함께 매진할 때, 모든 어려움은 극복되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지계 금주 파계

신한국당의원 세비10% 반납

●…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매월 세비의 10%를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신한국당 박희태총무는 지난 2일 당무회의에서 "세비 10% 반납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곧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3천3백59만8천원이 기금으로 전달된다.

오갈피묘목 무료분양

●…충남천안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성광수씨(51)가 식목일을 맞아 오갈피 묘목 1만5천주를 가구당 10그루까지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에 나섰다. 오갈피나무는 항염 항암 항피로 항스트레스 중추신경흥분 대사촉진 해독작용 등과 같은 효능이 있는 신비의 나무.

韓赤, 대북지원물자 북송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2일 인천항에서 북으로 보낸 제14차 대북식량지원품이 4일 남포항에 도착, 북한적십자사측에 전달됐다. 이번 대북지원은 95년 11월 한적을 단일창구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시작된 이후 최대규모로, 감자 1천6백50톤, 전지분유 10톤, 무 및 배추종자 1만1천톤 등 모두 10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번에 지원되는 구호물자는 불교 개신교 등 종교단체와 YMCA연합회 등이 한적에 기탁한 성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장애인 승용차 사주기

●…서울 송파구가 지체장애인에게 재활의지를 북돋워주기 위해 '장애인 승용차 사주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승용차 기증대상은 10여명으로, 관내 종교단체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문을 보내 5월말까지 기증받을 계획이다.

주민에게 대학 도서관 개방

●…건국대 충주캠퍼스가 도서관내 장서와 각종 교육용 자료를 주민들에게 무료개방키로 해 지역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충주캠퍼스는 오는 5월부터 시내 각급학교 교원과 도의원 및 시의원 일반주민 등 3천여명에게 도서열람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하루 26건 산불 '비상'

●…전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3월 30일 하루동안 전국에서 26건의 산불이 발생, 약 50Ha의 임야를 태웠다. 경기도 양주군 천보산 산불로 보물 제387호인 선각왕사비가 크게 훼손되기도 했다. 이번 산불은 대부분 담배불과 취사화기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날 서울 서부이촌동 중산아파트에서도 2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하루 2377명

●…경찰청은 지난 3월 31일 오후3시부터 자정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무단횡단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2천3백77명을 적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무단횡단 등 보행질서 위반자 5만3천9백11명에게는 1만~3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이비종교 인터넷 침투

●…사이비종교 집단이 인터넷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3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집단자살한 39명의 젊은이들은 모두 기독교에 뿌리를 둔 사교집단인 '천국의 문' 신도들로, 이들은 인터넷에 '하이어소스'란 사이트를 개설, 그들의 교리를 전파하기도 했다.

강화군청 직원 억대수뢰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1일 관급공사의 준공허가를 내주면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인천 강화군청 공무원 5명을 수뢰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해 9월 강화군 석모2리 도로포장공사 준공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시공업체로부터 3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학습지채택 비리교사 적발

●…특정출판사의 학습지나 참고서를 부교재로 채택한 대가로 금품을 받는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광주지역 교사 1천4백여명을 조사, 이가운데 5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백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1백여명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중국명문 한의대
박사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연수 대학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남경한의대)
중국 남경 TEL. 660-7129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스님,
침·기공에 관심 있으신분
■기 간 :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
당뇨병, 중풍. 간염, 비만, 좌골신경
통등의 침치료, 기공등
■연 수 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高級課程 도修 證明書)
■인 원 : 10명 선착순
■출 발 일 : 1997년 5월 22일
■문 의 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511/2026-8

제3회 능엄법회

봉선사 서울포교당 광명선원에서는 매년 능엄경 강좌를 개설·스님 및 불자를 대상으로 능엄세계를 펼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강 사 : 송찬우교수(중앙승가대학)
●일 정 : 불기2541년 4월14일(월)개강
오전 11시 ~ 12시30분
매주 월요일(6개월과정)
●교 재 : 능엄경 주해
●강의료 : 십만원

문의 : (02)584-1108
587-3753

봉선사 서울포교당 광명선원

■홍천임협조합 마크를 확인하세요

長腦 山蔘 (장뇌 산삼)

정통 심마니의 대를 이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최고의 산삼을 보급합니다.

강원도 홍천임업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15~30年根

장뇌산삼 눈이 맑아지고 뇌의 기능을 좋게하며 인체 저항력을 강화시켜 면역기능과 자연 치유력을 높여 줍니다.

장뇌산삼이란?

장뇌산삼은 산삼의 씨앗을 산삼이 자생할 수 있는 깊은 산중에 뿌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양생된 일명 山養蔘입니다

●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능
長腦山蔘을 통해 山蔘의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효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봄철'은 허한 몸을 보하는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장뇌산삼 서울 사업부
02)884-0468~9
017-232-2786(김남일)



존경하옵는 불자님!

건강과 성분을 발원하옵고 가내화평하시길 빕니다.

최고의 산삼을 보시하는 마음으로 최저가격에 모시고 있사오니 연락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특품 1세트 3뿌리 65만원

홍천임업협동조합 검수품

시중에서 장뇌산삼이 자연산삼으로 둔갑하여 수천만원대의 고가로 잘못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물량 홍천 임업 협동조합에서 인증서가 첨부되여 가짜로 부터 보호하고 고객분들게서 안심하고 드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뿌리도 주문 배달이 가능하며 단체주문 및 선물용이 다량 주문시 가격절충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 자연산삼 별도 상담 환영
● 기업체 VIP선물용 단체 주문시 별도 상담해 드립니다

공급 강원도 홍천임업협동조합 검수품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②

혜개의 자서(自序)

禪宗無門關: 佛語心爲宗, 無門爲法門. 旣是無門, 且作麼生透. 豈不見道, 從門入者不是家珍, 從緣得者始終成壞. 任麼說話,大似無風起浪, 好肉瘡. 何況擧言句覓解會, 掉棒打月,隔靴爬痒,有甚交涉. 慧開紹定戊子夏, 首衆于東嘉龍翔, 因衲子請益,遂將古人公案, 作敲門瓦子, 隨機引導學者. 竟爾抄錄, 不覺成集,初不以前後敍列, 共成四十八則, 通曰無門關. 若是箇漢不顧危亡單刀直入, 八臂那吒, 他不住. 縱使西天四七, 東土二三, 只得望風乞命. 設或蹉過, 也似隔窓看馬騎, 眨得眼來, 早已蹉過.

頌曰, 大道無門,千差有路, 透得此關, 乾坤獨步.

책을 보려면 서문을 보라는 말이 있다. 무문관의 핵은 이 서문과 제1칙에 있다. 제목부터 보자. 선종무문관(禪宗無門關)! 선(禪)은 교(敎)에 짝하는 말이다. 교(敎)는 문(門)으로 둘러싸여 있다. 성문(聲聞) 연각(緣覺)의 소승에서 보살승의 대승에 이르기까지 삼승십이분수(三乘十二分敎)의 계제(階梯)와 절차(節次)가 그것이다. 선은 이 겹겹이 쳐진 법의 문을 일거에 돈파한다. 진정한 소식은 팔만대장경의 장광설(長廣舌)을 벗어나(敎外別傳) 문자의 미로 너머에(不立文字) 있다고 말한다. 삼장의 숲을 헤집던 사람들은 놀랍고 의혹에 찬 눈으로 다시 묻는다. 그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고. 혜개는 대답한다. "진리는 다름아닌 너의 '마음'에 있고 거기에 이르는 문은 없다!" 하여 무문관(無門關)은 문이 없는 본원의 진실과, 그럼에도 문을 일러 주어야 하는 방편의 필요가 탄생시킨 것이다. 서문은 바로 그 역설의 고민과 저작의 인연을 담고 있다. 문맥을 따라 번역해 보면 이렇다.



*부처가 설한 가르침 가운데 핵심은 '마음'이다. 그 진리로 통하는 입구에는 (그러나) 문이 없다. 문이 없는데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옛 현자가 하는) 이런 소릴 듣지 못했는가. "문을 통해 들고 나는 것은 잡스런 것들이요, 인연을 통해 얻은 것은 마침내 부서지고 말 것이다." 기실 이런 이야기도 평지에 괜히 일으킨 풍파요, 멀쩡한 살갗에 종기짜는 칼을 들이댄 것. 하물며 언어문자에 매달려 지혜를 구하는 짓이야 (말해 무엇하리). 이는 몽둥이를 휘둘러 달을 쳐내는 것과 같고, 근지러운 발을 구두 위에서 긁어대는 것과 같으니 (진리와) 무슨 절실한 교섭이 있겠는가.

*소정 무자년(1228년) 여름, 동가의 용상사에서 대중들의 수좌로 있을 때, 나는 가르침을 청하는 납자들의 부탁을 어쩌지 못해, 옛사람들의 공안을 '문을 두드리는 기와조각'으로 삼아, 각각의 근기에 따라 학인들을 인도하였다. 이모저모 초(抄)하다 보니 어느새 책 한 권 분량이 되었다. 처음부터 계통과 순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모아보니 모두 48칙이었다. 둥뚱그려 〈무문관〉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용기있는 자, 위험을 돌아보지 않고 칼 한 자루 꼬나잡고 곧바로 뛰어들면 여덟팔 가지 나타(神將)도 막지 못할 것이며, 서역의 28조사와 중국의 6조사도 그 늠름한 기상에 목숨을 구걸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혹여 주저하고 머뭇거리면, 창 틈으로 달리는 말을 보듯 눈깜박할 사이에 벌써 (진리를) 놓치고 말 것이다.

*송하여 가로되, "큰 길에는 문이 없다. 그렇지만 길은 또한 어디에나 있다. 이 관문을 뚫고 나가면, 온 천하를 당당히 걸으리라."

글은 모두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근본 취지는 1) 불입문자, 즉 언어에 매달려 진리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2) 그런데도 왜 나는 공안의 문자를 고르고 거기다 평창이라는 뱀발까지 달았는가. 3) 이 책은 그렇게 엮은 방편의 집록이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손가락을 통해 달을 보고, 뗏목을 의지해 강을 건너듯 이 공안은 다만 '문을 두드리는 기왓장'일 뿐이다. 공안의 참구를 통해 자신의 본래 면목을 체회(體會)

"48칙 문없는 문 두드리는 방편"

문자 뛰어넘어 자성관문 뚫으면 온천하 얻어

견성(見性)하게 되면 온 천하를 독보(獨步)하는 대장부가 되겠지만, 문자에 미혹되고 자성과 유리되면, 즉 〈머뭇거리면〉 다시 생사의 윤회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4) 이 모든 소식을 노래로 요약하니 들어보라.

언어를 부정하는 것은 모든 통로를 차단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혜개는 모든 통로를 차단한 자리에 온갖 통로를 다시금 열어놓고 있다. 이 불가해한 설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체로금풍(體露金風)! 해당(晦堂)은 황산곡에게 "나는 정말 숨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호소했다. 일체중생 모두가 불성을 갖고 있고, 삼라만상, 두두물물(森羅萬象 頭頭物物)이 불국토의 현현이라면 당연히 '문은 없다'. 그런데 지금 인간은 본래의 몫인 법계 해탈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생멸윤회의 소외와 고통 속에 있다. 분열된 세계, 이원화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이 있어야 한다'. 겨울 눈 쌓인 뜨락에 선 젊은이에게 달마가 물었다. "왜 왔는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리 갖고 오게." "찾아보면 없습니다." 이곳이 문 아닌 문이다. 무명의 바람과 그 흔적으로서의 망념은 나에게 언제나 남김없이 알려져 있다. 하여 길은 어디에나 통하고 문은 늘 열려 있다. 그럼 그 빗장(關)은 어디 있는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삼보

法數로 배우는 불교

〈12〉

"한생각 깨달아 바르고 청정한 경지"

'佛·法·僧' 삼보 불자의 절대 귀의처



◇박명순 作「佛心」

모든 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한다. 그 믿음은 세속적인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목숨조차도 돌보지 않아야 할 절대적 믿음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귀명(歸命·목숨바쳐 돌아가고자 합니다) 혹은 귀의(歸依·의지해 돌아갑니다)라는 말로 표시하고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보를 꼽는다. 삼보는 불보(佛寶) 법보(法寶) 승보(僧寶)인데 '보'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존귀하며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다. 먼저 불보란 맨처음 불교를 일으키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여러 부처님을 가리킨다. 불은 인도어 붇다(Buddha)의 음역으로 '깨달음을 성취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불'은 이세상 어디에도 비길바 없고 견줄바 없는 최상의 존재이다.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을 가리켜 세존·여래·응공 등의 옆가지 명호를 붙여 부르기도 했고 후대에는 보왕·법왕·각왕·대웅·천중천 등의 여러가지 명호를 붙여 부르기도 했다.

다음의 법보란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 즉 진리를 가리킨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법을 깨치시고 법을 중생들에게 열어 보이셨다. 법은 인도어 다르마(Dharma)의 음역으로 '이법·교법·진실·본질·질서' 등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의 승보란 부처님과 부처님이 깨치신 진리에 귀의한 무리들을 가리킨다. 승은 인도어 상가(Sanga)의 음역으로 '화합단체' '수행하는 단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통 말할때 '승'하면, 세속을 떠나 머리를 깎고 수행에만 전념하는 비구(Bikkhu)와 비구니(Bikkhuni) 같은 스님만 지칭하는 것 같지만 본래는 불문에 귀의한 스님과 우바새(upasakha), 우바이(upa)와 같은 재가신도도 포함된 말이다. 이러한 삼보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세가지로 다시 해설하는 방법이 있다. 별상삼보(別相三寶), 동체삼보(同體三寶), 주지삼보(住持三寶)가 그것이다. 별상삼보는 불과 법과 승은 서로서로가 다른 존재이어서 별개의 것이라는 해석이다. 부처님 당시와 남방불교권에서는 이와같은 시각으로 삼보를 믿고 보아왔다고 할 수 있다. 동체삼보는 불법승이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의 존재라는 해석이다. 〈화엄경〉을 비롯한 많은 대승경전에서는 삼보는 마음 밖의 존재가 아닌 마음안의 존귀한 존재이므로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떨어져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주지삼보란 진리는 후대에까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어야 하므로 불상과 불경과 스님을 보배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중생들이 의지해야 될 형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도 절에 가면 실질적으로 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 가운데 동체삼보는 매우 특이한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체삼보는 중국선종(中國禪宗)의 해석법과도 일치되어 삼보를 외향적 귀의 예배대상으로서가 아닌 수행자 자신이 체득해야 될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선종의 세번째 조사인 승찬선사가 자신의 불치병인 문둥병 때문에 이조 혜가선사를 찾아 갔을 때다. 이때 혜가선사는 "그대는 그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라"라고 한다.

승찬선사는 "지금 큰스님을 뵈옵고 승보는 알겠으나 불보와 법보는 모르겠습니다. 어느것이 불보와 법보입니까"고 묻는다. 그러자 혜가선사는 "마음이 부처며 마음이 법이니라.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요. 승보 또한 그러하니라"하고 대답한다.

이 견해는 육조 혜능스님의 법문에서도 나타난다. 혜능선사는 불법승 삼보를 해석함에 있어 "한생각 깨달아 있음이 불, 한생각 올바름이 법, 한생각 청정함이 승"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이와같은 삼보해석 방법은 실제적으로 대상으로 향해 있던 부처님과 진리와 수행자들을 자신의 일심내에 귀결시켜 일체화시키고 평등화시켜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⑪

불교와 수학

⑤

數와 철학

김 용 운

空사상 선입견 배제 대상접근 가능

수체계 '0' 개념 도입 획기적 발전



불교의 '모든 것은 공(空)'-일체법(一切法)은 무자성공(無自性空)이라는 사상은 그릇된 교육 또는 사회적 통념등에서 오는 모든 선입견을 배제하고 대상의 본질에 똑바로 접근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처음에 공(空)이 있었다'이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이 유태·기독교의 사상이다. 이들 생각이 시간관에 투영되면 불교의 '무시무종(無始無終)'과 유태·기독교의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으로 대조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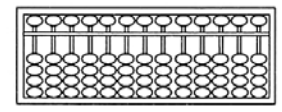
인간이 수를 집합의 개수와 대응시킴으로써 1, 2, 3, …과 같은 수를 매우 자연스러운 발생 과정으로 형성했으므로 '자연수'라 한다. 그러나 '처음 공이 있었다'의 불교적 사유를 따른다면 자연수란 0, 1, 2, 3, … 으로 해야 옳다.

실제로 수학의 기초를 닦았던 수학자들중 페아노는 그것에 따르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가 훨씬 철학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우리는 이미 처음 수학을 대할 때부터 '0'을 배웠으나 상당한 수학 수준을 가졌던 고대 문명사회에서도 0의 기호가 없었다. 수(數)는 하나, 둘, 셋, …이라고 셈하는 것이라고 믿어 온 선입견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대상을 현실적으로 취급하여 기호화할 때에는 철학적인 성찰이 앞서야 했다. 가령 중국의 경우를 본다면 '0'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一, 十, 百, 千, 萬, 億, 兆, 京, …이라는 식으로 단위가 하나씩 올라갈 때 언제나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야 했다.

一이 10개이면 十,
十이 10개이면 百,
百이 10개이면 千,
千이 10개이면 萬……

이런 식으로 단위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단위와 글자를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일단 0을 도입하면 수 체계에서는 0, 1, 2, …, 9가지 10개의 수만으로 어떠한 수라도 표시할 수 있다. 주판이 그 원리를 따르고 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 즉 0의 상태이다. 0이기에 어떤 수도 넣을 수 있다. 한글로 506을 나타낼 때는 '오백육'이므로 5006으로 잘못 쓰는 사람도 있다. 506을 백의 자리가 5개, 십의자리가 0개, 일의 자리가 6개 있다는 뜻이다. 공(空)은 곧 0으로 표시되어 506이 인도식(이 수체계는 인도에서도 발명되고 아라비안인도 발명했으므로 정확하게는 인도·아라비아식이다)숫자로 불린다.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천문학적인 수를 어떻게 일일이 문자로써 표시해야 하며 또 실제로 계산에는 엄청난 불편이 따른다 가령 '3352×2072'의 계산은 초등학생이라도 할 수 있지만 '삼천삼백오십이' 곱하기 '이천칠십이'로는 좀처럼 셈할 수가 없다. 이 수체계는 기록용이지 계산용은 아니다. 요컨대 0의 발견 없이는 수학의 발전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0의 개념은 무명의 인도인에 의해서 발견되었으나 그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특히 불교의 공(空)의 사상이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즘은 정보시대라는데 그것은 전자계산기가 주역이다. 전자계산기의 수학은 0과 1 두 개의 수만을 이용하는 2진법의 수체계이다.

10진법	2진법
1	1
2	10=2×1+0
3	11=2×1+1
4	100=2^2×1+2×0+0
⋮	⋮

이것은 f1, 0↔유, 무↔on, off로 대응한다.

E·토리첼리가 진공의 존재를 물리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기 전까지는 '진공(眞空)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유럽에 있어서는 형이상학상의 전통적인 명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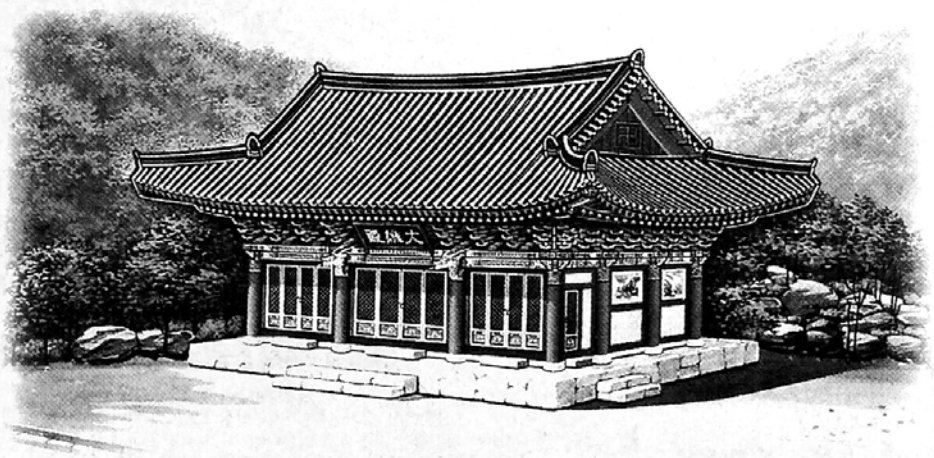
'말씀이 계셨다'에서 시작되는 세계관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상풍토에서는 공을 수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공이 모든 만물의 실상'이라는 철학을 갖는 정신풍토에서는 자연스럽게 0을 수로 취급할 수 있는 일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장엄불사 조감도

스님의 생각을 현실로 표현해 드립니다.

(주)두풍산업에서는 확실한 조감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장엄불사안내 : ●목조 사찰건축, 콘크리트법당 및 요사채 ●대불, 목불,조각, 단집, 탁자, 문짝

책임운 확실히 지고 약속은 꼭 지키는 기업입니다.

株式會社 斗豊産業 대표 02) 432-7777 전화 02) 439-3900

doo poong 서울 중랑구 망우동 486-8 (두풍 B/D)

사주학 핵심비결

송월스님 著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화/제/의/신/간/

운명의 카운트 - 다운 시대가 왔다



신국판/값2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이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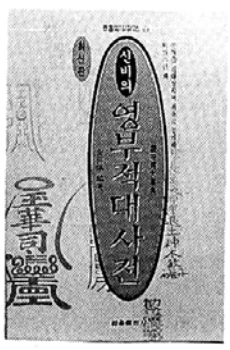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이책을 펼쳐 보십시오.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선현들의 예지를 본받아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치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A5신/양장본
/35,000원

관음출판사 전화 : 921-8434 팩스 : 929-3470

해외여행. 항공권. 여권비자 수속
불교 성지 순례 전문
(주) 예초 여행사
안국동 로타리(조계사 옆) 종로구 수송동현지 동일빌딩3층
전화 : 02)733-3900

사방세계

"線을 禪으로 여기며 살았지"

米壽展 연 **단청장 만봉스님**

불화 외길 81년… 인물묘사 뛰어나

"선(線) 하나하나를 선(禪)으로 여기고 살아왔어. 붓 쥐고 보니 80도 잠깐이야."

신촌 봉원사앞 화실. 3백호 이상 커다란 그림에 얼드려 섬세한 붓놀림을 하고 있는 만봉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이 특유의 함박웃음으로 맞으며 한마디 툭 던진다. 유난히 길고 새까만 눈썹이 인상적이다. 노령에도 여전히 안경없이 작업한다. 눈동자의 정기가 노안(老眼)탐지 않게 투렷하다.

'단청' 하면 '만봉(萬奉)'을 떠올릴 정도로 단청과 평생을 함께 해 온 만봉스님이 미수(米壽·88세)를 맞았다. 지난 1916년 7살의 어린 나이로 불화에 입문한지 81년. 이를 기념해 대구 시민회관 상설전시관에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만봉불화전이 열리고 있다. 지방에서는 처음 열리는 노 대가의 전시회여선지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몰려든다. 스님은 특히 인물묘사가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부드럽고 원만한 표정이 생생하게 살아나 미처 따스한 손결을 금방이라도 느낄 것만 같다. 풍부한 표정과 화려한 채색의 조화는 일반 회화와는 또다른 감동의 삼매를 준다. 전시회는 끝나가는데 부처님 모시는 불사가 또 있는가.

"강원도 거진 약수암에 모시는 괘불 부처님이야. 그저 밥먹고 나면 그리고 밥먹고 나면 색칠하고 하지. 부처님그리는 일은 몇시간을 꼬박 해도 힘든 줄을 모르겠어. 그저 환희심만 나니 참 묘하지. 부처님 재자된 복(福)도 큰 데 광룡 팩팔 보살님들의 상호그리는 일과 부처님 집을 장엄해 왔으니 복중에서도 그런 복이 없지."

중요무형문화재 단청장(丹靑匠)이 생긴 것이 지난 72년. 만봉스님은 김일삼, 원덕문스님(두분 다 입적)과 함께 기능보유자로 첫 지정받았다.

만봉스님의 화업은 7살때 동진출가하면서 시작됐다. 서울 종로에서 이은식씨의 5대독자로 태어났으나 명이 짧아 절로 가야만 장수할 것이라는 점쟁이의 말에 부처님품에 보내진 것. 전생의 인연탓일까. 당시 유명한 금어 김예문스님의 눈에 들어 그 문하에서 단청과 불화를 익혔다.

"불화를 보니 그저 좋았어. 그래서 스승이 시키는대로 꾸준히 했지. 무슨 일이나 무심(無心)으로 해야 돼.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새 이력이 붙는 거지. 요새 배우는 사람들은 근기도 없지만 너무 쉽게 이룰려고 해. 하나를 하더라도 진득하니 해야하는데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가 좀 익혔다 싶으면 간판부터 걸지."

10년동안의 힘든 수련을 이겨내고 18살의 나이로 금어가 됐지만 스승 예운선사는 그에게 금어로서의 일을 허락치 않았다. 20세가 넘은 후에야 일이 맡겨졌다. 창찬이라곤 해본적이 없을만큼 엄격한 스승은 제자가 교만에 빠질까 장래를 생각한 배려였다.

만봉스님은 단청과 불화 다 능하지만 사실 단청이 더 고난도의 기능을 요한다. 불화를 배워 숙달이 되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단청 기술이 나온다. 처음 입문하면 제1단계인 시왕초(十王草), 제2단계인 천왕초(天王草) 제3단계인 여래초(如來草)라는 세 단계의 고된 수련기를 거쳐야 된다. 시왕초는 다시 3단계로 나뉜다. 첫째 등급기라 하여 불화원본위에 한지를 놓고 그대로 선을 따라 그리는 과정이다. 이것은 필력을 기르기 위한 것. 더도 말고 1000장을 그려야 한다. 둘째는 모사(模寫)로써 그림을 보며 원본 그대로 그리는 과정. 셋째는 자초(自草)로써 자신의 그림규격을 맞추고 마음대로 그리는 과정이다. 1단계에서 3천장 이상을 그려야 한다. 2단계 천왕초는 사천왕상을 3000장 그리는 것이고 3단계 여래초는 부처님상을 3000장 그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끈질기고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유려하면서도 자기 나름의 독특한 필력이 생기는 것이다. 9천장을 그리고나면 금어의 자격이 주어진다. 만봉스님은 20년 과정을 10년만에 마쳤다. 그만큼 그림에 재질도 있었지만 이것저것 생각안하고 열심히 했던 탓이다.



수만봉스님이 그린 상단탱화(부분도).

"옛 불화·단청 색 바랬어도 엊그제 그린듯 살아있어요 요즘은 기술만 중요시하지 혼 깃든 작품 드물어요"



수단청문양 중 금문(錦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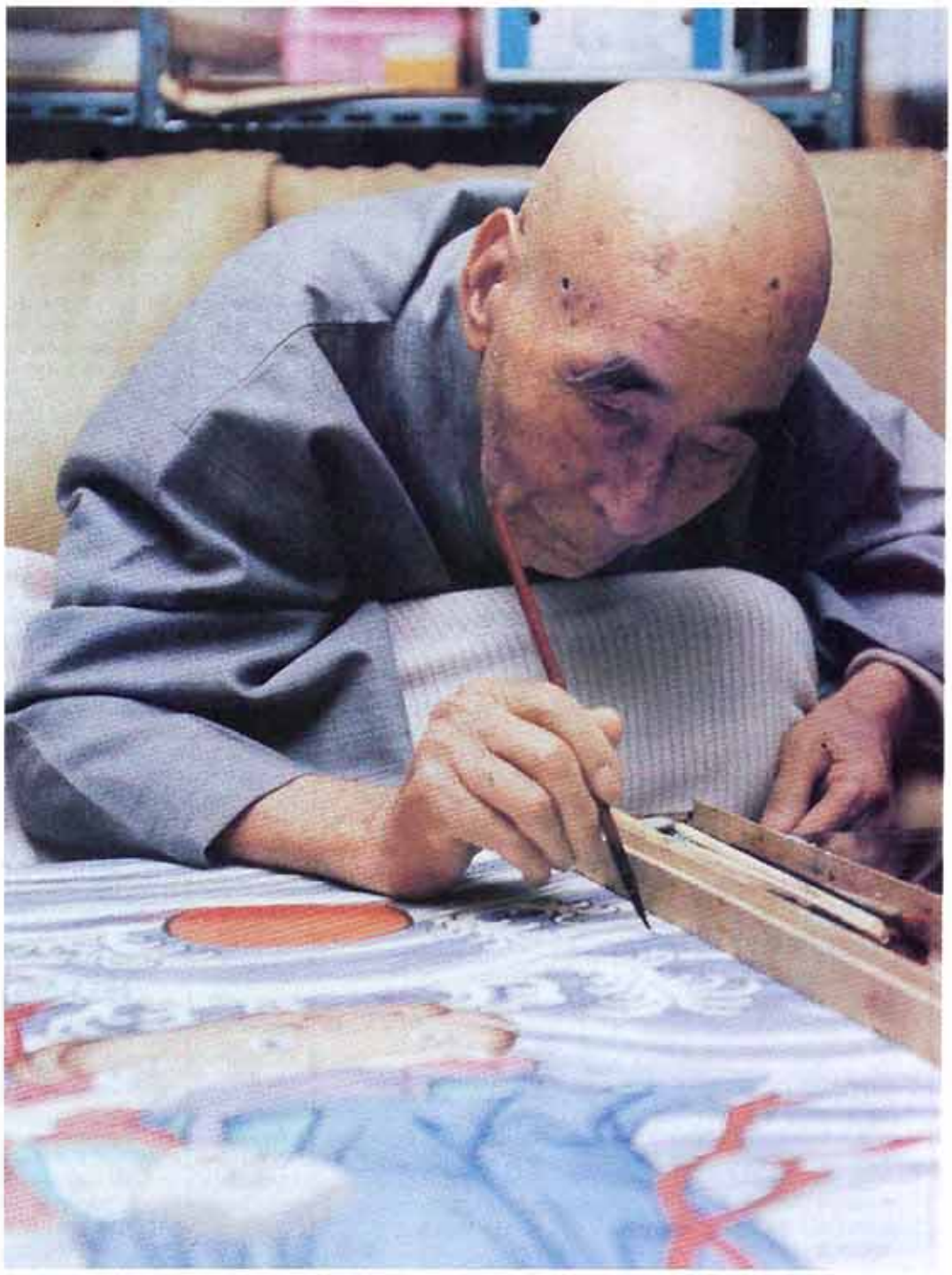
스님은 조계사 단청부터 시작해 표훈사 유점사 마곡사 도선사 봉은사 백련사 천축사 등 수많은 절과 남한산성 경복궁 경회루 남대문 종로 보신각 등 고건축의 단청과 불화를 봉안했다. 스님이 평생을 산 봉원사 단청은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인 역작.

무슨 일이나 마찬가지지만 단청과 불화는 정성이 제일이다. 수십, 수백년동안 사찰을 장엄하는 단청과 불화는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늘 우러러 경배하는 성스러운 대상이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된다.

"옛 불화나 단청을 보면 세월때문에 색은 바래졌어도 엊그제 그린듯 기(氣)가 살아있어. 그게 곧 기술탓만은 아니지. 예전 사람들은 지극한 신심으로 그렸거든. 그러니 살아있을수밖에. 요즘은 기술만 중요시하지. 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림은 아무리 잘 그렸어도 헛거야. 그렇기 때문에 불화를 그리기 전에는 목욕재계와 좌선으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일심(一心)이 되야 하는거지."

정성보다는 삐까번쩍하고 요란한 단청불사가 빈번한 요즘 세태에 주는 경책이 매섭다.

글: 이경숙 사진: 고영배 기자



丹靑이란 **고구려벽화서 시작 … 72년 무형문화재로**

만약 사찰이나 고궁에 화려한 단청이나 그림이 없다면 얼마나 밋밋할까. 사찰은 제불 보살들이 주석해 있는 화장세계다. 화장세계인 사찰을 화려하고 위엄있게 하는 여러가지 채색과 아름다운 문양을 넣어 장엄하는 양식이 단청과 불화다. 또 우리나라처럼 건습의 차가 심한 곳에서는 단청은 목조로된 건물의 부식을 방지하고 충해로부터 막아 오랫동안 보존하는 목적도 지닌다.

고구려 고분벽화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단청은 고유의 독자성과 민족의 미적 감각을 보여주는 독특한 문화적 특색을 띠며 정신적 감정표현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고려때 채색과 문양은 주로 녹색과 청색 그리고 묵선으로 구륵체 기법을 사용해 아라베스크계 당초문을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격조로 나타내고 있다. 조선시대 사찰 단청은 문양의 구성과 장식이 극도로 화려하고 색채의 사용이 매우 다채롭고 원색적인 시대별 특징을 지닌다.

한국건축의 한 분야를 이룬 단청 기능은 그 중요성이 인정돼 지난 197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됐다.

단청이나 불화를 그리는 스님을 금어(金魚) 또는 화승(畵僧)이라 부른다. 금어란 시왕초부터 보살초 여래초 등 9천장을 그리는 과정을 수료한 화사(畵師)에게 주어지는 호칭으로 10여단계에 이르는 단청작업의 채공들을 총 지휘하는 일을 하게 된다.

현재 단청장은 만봉스님을 비롯 혜각스님(93·통도사 사명암), 석정스님(72·부산 선주산방)등 스님 세분과 최근 지정된 홍정석씨(58·92년 입적한 원덕문스님 후계자) 등 4인이다. 혜각스님과 석정스님은 지난 92년 지정받았다.

만봉스님의 후계자로는 준보유자 박정자씨와 이인섭 홍창원 원미희 김정순 최문정 씨 등이 이수자로 그 맥을 잇고 있다.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 신선한 자연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 하지만 생활은 또 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 · 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 면역 피부 미용 비누**를 사용하세요.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 · 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한방재료추출물 (오이지,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때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 · 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첨단의 생명공학 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발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주)씨 · 티 · 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內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2-1522(直) 02)737-8881(代)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다문품(多聞品) ③

是能散憂에 시능산우에
亦除不祥衰 역제부상쇠
欲得安穩吉 욕득안온길
當事多聞者 당사다문자

들음은 근심과 성냄을 흩날려버리고
상서롭지 못한 것을 없앤다
안온하고 길하기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많이들은 이를 섬겨야 한다

斫創無過憂 작창무과우
射箭無過愚 사전무과우
是壯莫能拔 시장막능발
唯從多聞除 유종다문제

도끼에 찍힌 것이 근심만 못하고
활로 쏘는것이 어리석음만 못하다
그렇듯 굳세어 빼기 어렵다해도
오직 많이 들음으로써 없앨 수 있다

盲從是得眼 맹종시득안
闇者從得燭 암자종득촉
亦導世間人 역도세간인
如目將無目 여목장무목

從是到彼安 종시도피안

어리석은이 천지행을 닦지 않고
또한 베풂도 기리지 않는다
믿고 베풀어 선을 돕는 이
이를 좇아 피안에 다다르네

信者眞人長 신자진인장
念法所住安 염법소주안
近者意得上 근자의득상
智壽壽中賢 지수수중현

믿는이는 참으로 사람의 어른
법을 생각하니 머무는 곳이 편하고
그를 가까이 하는 이 뜻이 높아지니
지혜의 수명이 수명중에 으뜸이다

信能得道 신능득도
法致滅度 법치멸도
從聞得智 종문득지
所到有明 소도유명

믿음은 능히 도를 얻게하고
법은 능히 적멸에 이르게하며
들음으로써 지혜를 얻나니
다다르는 곳엔 밝음이 있다

"힘써 배우고 많이 들은이 섬기면
저 언덕에 이르는 지혜 얻게된다"

장님도 들음을 좇아 눈을 뜨고
어둠속의 사람도 이를 좇아 불을 얻으면
모든 세상사람도 인도받나니
눈뜬 이가 소경을 이끄는 것과 같다

是故可捨寢 시고가사치
離慢憍富樂 이만호부락
務學事聞者 무학사문자
是名積聚德 시명적취덕

이런 까닭에 어리석음 버려야하고
교만한 권세 부귀쾌락을 여의며
힘써 배우고 들은 이를 섬기면
이를 일러 덕을 모아 쌓는다고 한다

信能度淵 신능도연
攝爲船師 섭위선사
精進除苦 정진제고
慧到彼岸 혜도피안

믿음은 능히 생사의 못을 건너게하고
마음 다잡음은 선장이 되며
쉼없는 노력은 괴로움을 없애고
지혜는 저 언덕에 이르게 한다

士有信行 사유신행
爲聖所譽 위성소예
樂無爲者 낙무위자
一切縛解 일체박해

믿음과 행이 있는 이는
성인의 기림을 받고
함이 없음을 즐기는 이는
일체의 속박에서 풀려난다

독신품(篤信品) ①

信慙戒意財신참계의재
是法雅士譽시법아사예
斯道明智說사도명지설
如是昇天世여시승천세

믿음·참회·계율·뜻의 재물
이는 법을 닦는 선비의 명예
이 도를 지혜로운 이가 밝혔나니
이같이 하면 하늘 세상에 오르도다

信之與戒 신지여계
慧意能行 혜의능행
健夫度恚 건부도에
從是脫淵 종시탈연

믿음이 계율과 더불어 짝하고
지혜로운 뜻으로 능히 행하니
굳센 이 성냄을 이겨내어서
마침내 생사연못 벗어난다

愚不修天行 우불수천행
亦不譽布施 역불예보시
信施助善者 신시조선자

믿음은 능히 도를 얻게하고
법은 능히 적멸에 이르게하며
들음으로써 지혜를 얻나니
다다르는 곳엔 밝음이 있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부귀영화 지나고 나면

고송스님 〈파계사 조실〉



"옛날에는 벌금내며 주지 안하려 했어요
명리 집착하니까 승가 위계 무너져요"

해가 바뀌니까 귀도 잘 안들리고 몸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90여년 몸뚱아리 끌고 다녔으니 어지간히도 끌고 다녔지. 곧 몸벗을 때가 다가온것 같아요. 공부해 놓은 것은 없고…. 한살이라도 젊을 때 공부 열심히 해서 후회없도록 하세요.

나는 이렇게 나이 들어도 시봉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빨래나 요리도 직접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시봉이 있으면 게을러져서 스스로 하고자 하는 생명력이 점점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가능한한 자영독립적 생활을 하려고 하지요.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누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삼아 뜰안을 거닐기도 하고 가끔 여행도 다닙니다. 마음은 늙는 법이 없어요.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계를 만들뿐이지요.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일상의 사소한 일거리가 다 공부자료입니다. 공양주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것 같지만 공양주일도 현명해야 해요. 내가 공양간소임을 맡았을 때는 밥과 국을 더도 덜도 없이 꼭 맞게 했습니다. 김나는 것만 봐도 밥이 된지 진지 알았어요.

지극한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면 요리가 저절로 잘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요리는 맛과 빛깔도 좋을 뿐더러 생명력이 담겨져 먹는 사람에게 원기를 줍니다.

먹는 얘기가 나왔으니 좀더 하겠습니다. 사람들간에 화합을 도모하려면 먹는 일이 원만해야 됩니다. 화합할 화(和)자를 풀이하면 벼 화(禾)에 입 구(口)를 합친 것입니다. 배고플 때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원망을 내다가도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마음에 맺힌 것들이 웬간히 풀어집니다. 참 묘한 법입니다. 이래서 대중공양의 공덕이 헤아릴수 없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16세되던 해 머리를 길게 땋아 늘어뜨렸던 저는 파계사로 입산했습니다. 당시엔 쉽게 머리를 깎아 주지 않았습니다. 행자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발심해서 절에 오면 한달이나 두달 정도 그 사람의 행동거지를 살펴보고 쓸만하다 싶으면 큰방에서 삭발시켜 사미계를 주었지요. 당시 사미계는 출가사찰에서, 비구계는 본사에서 받았어요. 행자라는 말은 해방후에 많이 쓰였지요. 요새는 행자를 집단으로 훈련시킨다고 야단들인데 그렇게 해서 행자들 교육이 제대로 될지 걱정입니다. 뒷날 수행의 모든것이 이 행자 시절에 이뤄지는 것인데 말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인간을 교육시킬 때는 마음과 마음으로 정성드려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스승을 3년이상 시봉해야 강원에도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때는 스승이 상좌의 옷도 해 입히고 양식도 대주었지요. 돈없으면 상좌도 못 들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들인 상좌는 탁발하더라도 잘 공부시켰습니다.

공양주를 하거나 품팔이를 해서 양식과 학비를 마련해 주었지요. 그러니 스승과 제자사이의 정이 남달랐지요. 당시는 상좌 떼어버린다는 은사의 말이 제일 겁이 났습니다. 상좌 떼이면 죽는줄 알았어요. 그러니 은사 말이면 무슨 말이든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중노릇 제대로 익혀 스승을 따라가려고 무진 애를 썼지요.

악력
- 1906년 10월 生
- 1922년 상운스님 은사로 득도
- 용성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지
- 한암스님 법사로 법맥전수
- 금강산 오대산 망월사 등서 수행
- 現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생활을 떠나 道를 구하는 것은
마치 얼굴에 쓴 안경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는 스님들간에 단결이 잘되고 인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가 되니까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의 정신 도량인 절을 통제하려고 30본산을 만들고 주지를 임명하고부터 패가 나눠지고 분열이 시작됐어요.

옛날에는 공부에 방해된다고 주지자리도 서로 안하려고 해서 벌금을 매겼습니다. 주지를 안 맡는대신 쌀 서말을 내놓아야 했지요. 생사일대사를 통달하려온 사람이 주지니 뭐니 그런게 뭐 필요가 있습니까?

주지자리를 중요시 하고 명리에 집착하니까 승가의 위계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명리(名利)라는 것이 달팽이 뿔위에 잡지는 것과 같이 허망한 것입니다. 달팽이가 목을 안으로 밀어넣으면 집이 일시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지식을 찾아 참구하거나 탁마하는 가풍이 퇴색되고 다 자기가 도인인양 손끝하나 까닥하지 않고 인사받기 바쁘지요. 어떤 젊은 스님들은 나이든 노보살들에게 뻣뻣하게 앉아 삼배를 받아요. 그거 안되는 말이지요.

내게 법을 전해주신 한암선사와는 봉은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한암스님은 1926년 오대산에 들어갔는데 만공스님회상에 있던 나도 공부하러 오대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오대산에는 석호스님 탄허스님 탄옹스님 등이 계셨지요.

한암스님은 내 법명인 '종협(宗協)'을 빗대어 전법게를 내리면서 고송(古松)이라는 법호를 지어 주셨습니다.

不讀金文不坐禪(부독금문부좌선)
無言相對是何宗(무언상대시하종)
非風流處風流足(비풍류처풍류족)
碧峰千年秀古松(벽봉천년수고송)

경전도 보지 않고 좌선도 않으면서
묵묵히 마주 하는 이것이 어떤 종(宗協)인고?
바람도 없는곳에 풍류가 넘쳐나니
천년 푸른봉우리 고송이 빼어나도다

생활속의 불교 ⑪⑦

'나'라는 액자속의 소중한 그림들

"누구나 다 본래는 그대로 놓고간다. 그래서 사실은 들고 있는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다. 그러나 무엇이 있는 양, 실재하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그만 그 생각에 걸려서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하고 마음 고생을 하기 때문에 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짊어지고 다니지만 않는다면 놓으라는 말도 실은 군더더기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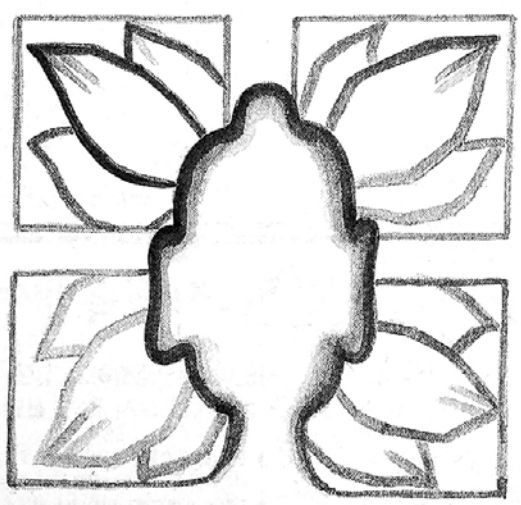
가령 돈이라는 것도 그렇다. 내게 거금이 있다해도 그 돈은 언제고 나갈 것이지 영원히 내 것일 수 없는 줄을 안다면 돈을 쓰는 사람이 되지 돈에 쓰이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돈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다시 착을 두지 말라, 놓아라 할 것도 없다. 가는 것 붙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는데 새삼 놓으라고 하겠는가. 그냥 지혜롭게 살 뿐이다.

가령 행복이라는 것도 그렇다. 그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정해진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으면 행복하고 안맞으면 불행한 게 아니라 스스로 정해 놓은 잣대를 가지고 나는 행복하다, 혹은 불행하다고 판단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잘났느니 못났느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애초부터 잘나고 못나고의 구별이 있는 게 아니라 잘났다는 생각, 못났다는 생각을 낳는 분별의 잣대에 따라 행과 불행이 교차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별의 잣대가 바뀌면, 행, 불행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런 잣대마저 놓아버리면 행이니 불행이니 하는 말조차도 붙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더구나 그런 분별의 잣대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나'라는 존재를 떠받드는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던가. 생명·건강·권속·재화·명예·일터와 같은 것들 말이다. 그것은 '나'라는 액자에 들어 있는 소중한 그림과 같아서 우리는 늘 그것의 보존에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그중 어느 하나라도 잃게되면 곧 충격과 비탄에 젖게 마련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것들을 놓고 갈 수 있단 말인가.



놓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요 잃는다는 것은 곧 두려움이 아니던가.

놓으라는 것은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건강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도 아니다.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명예나 일터를 우습게 여겨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나'라는 틀을 깨라는 의미이다.

본래 내 것으로 고정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바람개비처럼 돌아간다. 그것이 불법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가는 바람개비에 '나'라는 못질을 해서 그것을 내 액자에 가둬 놓으려고 한다. 그 성패에 따라 행이니 불행이니를 말한다. 놓으라는 것은 그 '나'라는 상을 버리라는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이 그동안 무엇에 의존하며 살아 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들의 대부분은 그런 순간에도 오직 잃어버릴 대상에만 집착할 뿐 자신을 돌아볼 기회로 삼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기는 커녕 오히려 대상에 더 다가가고 대상에 더욱 집착한다. 놓는게 아니라 붙잡고 매달리고 애걸하게 된다. 따라서 갈수록 발목이 잡히고 자신의 삶은 더욱더 진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놓으라는 것은 집착하는 마음의 짐을 벗어 놓으라는 것이다. 본래 내 것으로 고정된 것은 없으니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의 집합(集合)처럼 '나'라는 틀에 갇힌 대상들을 풀어 놓으라는 것이다.

내가 무엇에 의존하면서 나로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 보고 거기에 묶여 살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풀려나서 해방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누구나 다 본래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협찬 : 김 옥 례

큰스님 수행한담

한줌 재보다 더 허망”

“사랑속에 있더라도 사랑을 놓고 미움속에 있더라도 미움을 놓아 절대고독속에서 초월지 얻으십시오”



◇금강산 4寺중의 하나인 표훈사에서 도반들과 함께한 고송스님(맨 왼쪽 긴 나무지팡이 든 스님).

당시 오대산에는 방마다 운수납자가 넘쳐났습니다. 양식이 부족해서 늘 배가 고팠는데도 수좌들은 마음에 불을 켜고 화두참구에 몰두했지요. 감자캐고 도토리 줍고 해서 큰 가마솥에 찌고 울궈서 감자밥, 도토리밥 많이 해먹었습니다. 당시는 굶지만 않으면 복이다 생각하고 방마다 화두 참구에 정진하던 수자들 모습이 오대산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그야말로 기한발도심(飢寒發道心 배고프고 추울 때 구도심을 일으킨다는 뜻)의 치열한 구도정신이 번쩍번쩍하던 시절입니다. 사실 공부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如頭救燃) 급한 줄을 알고 열심히 정진해야 합니다. 자신의 머리가 불에 타고 있는데 불끄는 것 말고 딴 일에 정신을 팔 겨를이 있겠습니까. 한 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구도정신의 자세입니다.

또 수행자는 모름지기 ‘눈먼 거북이와 다리를 저는 자라와 친할 뿐이다(盲龜跛鼈親)’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연속에 살면서도 모든 인연을 쉬고 내면참구에 전념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해야지요. 사랑속에 있더라도 사랑을 놓고 미움속에 있더라도 미움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자식까지도 별개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죽을 때는 돈 명예 자식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혼자라는 절대고독속에서 초월지를 얻는 자만이 법신을 얻어 불생불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 마하연에서는 오래 있었습니다. 그때 화응스님이 화엄경 입법계품의 53선지식을 비유해서 53칸의 절을 지었지요. 그때 마하연은 표훈사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만 대처승들이 선방을 만든다는 약속을 어기고 염불당으로 용도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당시 한용운선사 등이 ‘천승만일회’를 조직해서 결국 재판도 하고 해서 대처승들을 축출했습니다. 만공스님이 첫 주지를 했습니다.

만공스님과 만해스님은 서로 호형호제하며 굉장히 친했습니다. 만해스님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열하게 정진한 과짜였던 것이 유난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편 망월사에서는 70여명의 기라성같은 수좌들이 모여서 30년 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중단되어 버려 아쉬움이 남았지요. 당시 설석우스님이 수좌로 있었고 운봉스님이 입승이었으며 동산스님은 지객 소임을 보았어요. 용성스님 성철스님도 계셨습니다.

선(禪)은 아는데서 모르는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아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참성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유상(有相)은 개공(皆空)이라 했습니다. 자기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어찌 안다고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찾는 공부를 해야 해요.

사람들은 흔히 미래를 꿈꾸거나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현재를 100% 살지 못하니까 그 아쉬움으로 미래·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이순간 여러분은 성성하게 깨어 있습니까?

웬 꿈들이 그리 많은지요? 부귀나 영화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말이지… 지나고 나면 한줌 재보다 더 허망한 것을 갖고 말입니다. 잠들게 되면 화두가 끊어진다고 해서 잠을 안자고 수행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데서 깨어 있기보다 현실에서 깨어있는 공부부터 하세요. 현실속에서는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잠속에서 깨어 있으려니 악몽만 꾸게됩니다. 현실에서는 백일몽을, 꿈속에서는 악몽을 꾸는게 우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현실속에서도 꿈꾸고 잠속에서도 꿈꾸고 있으니 꿈속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백년을 사나 1초를 사나 똑같은 한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간 순간 깨어있으면 영원불멸하게 사는 겁니다.

본성은 하나인데 생각은 팔만사천 가지로 갈라집니다. 일체의 업을 쉬고 일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망념에 얼이 빠지니 본성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지요. 안이비설신의 여섯손님이 곧 도적입니다. 도적놈 심부름하다 평생 허송세월하고 맙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어요. 몸에 대한 애착이 지독합니다. 이것 때문에 불구덩이 속에서 서로 싸우고 야단입니다.

마음이 무한하듯 욕심도 무한합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心如水) 만나는 대상에 스며들어 융화되고 맙니다. 어느 한곳에 머물러 고이는 바 없도록 마음을 내십시오.

옛날에 수행이 깊은 것으로 소문난 노장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가 제자를 시켜 옷 한벌을 해 올렸지요. 그런데 노장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 입고나온 옷만으로도 남는다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다시 제자를 보내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에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노장이 이 질문에는 대답을 못했지요. 부모에게서 몸받기 이전의 나의 참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눈없이 보고 입없이 말하며 귀없이 듣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길다고 누가 말했던가?
가이 슬프도다
물 안넘어가면 끝인 것을……

사람이 죽으면 입에 물을 떠 넣습니다. 물이 넘어가면 살거든요. 죽는 사람을 보면 숨을 헐떡헐떡거리다 끝이 납니다. 돈오무생(頓悟無生)이라, 무생을 증득하라고 했어요. 생이 있으니 죽음이 있는 것이지요.

파계사로 출가한후 지금까지의 수행을 돌이켜보건대 불교는 결국 생활선(生活禪)으로 귀착되는 것 같아요. 생활을 떠나 도를 구하는 것은 마치 얼굴에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찾고자 헤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백세든 90세든 똑같습니다. 먼저 난 것도 나중 난 것도 없고 다 한시간입니다. 내가 난것도 요시간이요, 내가 버린 시간도 요시간입니다. 가든 오든 죽든 살든 항상 요시간이라 1분도 틀림이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것이 무상한 줄 깨달아야 급한 줄을 알게 됩니다. 도를 구하는 자는 무상한 마음을 내고 급한 줄을 알아서 철저하게 정진해야 하는 겁니다.

대홍염리방한풍(大紅焰裡放寒風)이라. 참으로 불생불멸의 도리를 확철하게 깨우치면 불구덩이속에서도 서늘한 바람이 부는 큰 뜻을 알게 됩니다.

내방에 ‘일광동조(日光東照)’란 편액이 걸려있어요. 추사 선생 친필이지요. 〈법화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해가 비추면 온 세상이 환해지듯 부처님의 가피가 인연있는 모든 것에 차별없이 골고루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거울은 친소(親疏)가 없이 평등하다는 말입니다.

수행자들은 이렇게 일광동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야 합니다.

정리=이윤호 기자

“지금 제대로 못사니 과거·미래 돌아보죠 정성들인 음식 더 맛있는 이치 아십니까”

‘맡긴다’는게 무엇입니까

문 ‘길을 묻는 이에게’를 읽고 또 읽어도 놓고 맡긴다는 말씀이 아리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맡겼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칠주·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답 처사님은 살면서 누굴 믿습니까? 허공을 믿습니까? 형상을 믿습니까? 아니면 이름을 믿습니까? 처사님이 그중 무엇을 믿는다해도 진짜로 믿을 수는 없지요, 믿는다는 그 대상이 처사님 대신에 죽어 줄 수가 있습니까, 대신 먹고 배불러 줄 수가 있습니까, 대신 똥을 누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누굴 믿어야 합니까? 자기의 주처(主處)를 믿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자기로부터 나온 것을 다시금 자기에다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사님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넘어진 자리를 딛고 제 힘으로 일어나시지요? 그와같이하라 이 말입니다. 네가 엎어졌으니 네가 일어나라 이것이죠. 그렇게 다시금 맡겨 놓으면 점차로 그릇이 비워지면서 내가 밝게 보인다 이겁니다. 그걸 부자(父子)상봉이라고 하지요.

부속에 자가 들어있고 자 속에 부가 들어있는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 부자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맷돌이 아래짝 윗짝이 딱 맞아야 잘 돌아가고 무엇을 집어넣던 갈려서 나올텐데 아래 위가 맞질 않으니 맷돌질을 해도 그게 헛맷돌이라 바르게 생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밖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처님이시여, 보살님이시여 하면서 뭘 해달라고만 합니다. 헛 맷돌질 빈 맷돌질인 셈이지요.

맡겨 놓는 것은 내 마음의 맷돌에다가 집어 넣는 것이나 같지요. 물건을 넣어야 갈려 나오듯이 다가오는대로 다시금 놓아라. 믿음을 갖고 그렇게 놓으면 밝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영험있는 도량이 있다는데…

문 절엘 다니다보면 가끔은 기도를 해서 아기를 낳았다느니, 대학에 합격했다느니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 어느 도량은 영험있는 도량이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그럴때면 자신도 한번 기도를 해볼까, 영험도량을 찾아가볼까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허일영·전북 군산시 소룡동〉

답 그렇게 작은 위안은 받을 수 있다해도 불법공부는 그게 아닙니다.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 바른 공부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실 때 자기 부처를 믿으라고 하셨지 바깥 부처를 믿으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내 집에 전화를 가설해 놓고 소식 오기를 기다려야지 남의 집 전화에다 빌고 기도하면서 전화 오길 기다리실 겁니까? 내 부처를 믿고 내 부처에 기도하면 이게 삼라만상 우주 전체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요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주인이 무엇에다 빌어야 합니까?

이 불법공부는 말하자면 엄청난 공부입니다. 그러기에 오신통도 도가 아니라고 하질 않았습니까?

어느 종교에서는 가르치기를 ‘태초에 무엇이 어쨌다, 그러니 주여, 주님의 뜻으로!’하고 말한다는데 태초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태어난게 태초이지요.

그러니 태초에 어쨌노라 할 게 아니라 나부터 알아라, 내가 태어난 소식부터 알아라 이겁니다.

내가 태어났으니까 세상도 있는 것이고 우주도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스님! 내가 죽더라도 지구는 돌아가지 않습니까?’하는데 이 몸뚱이 떨어졌다고 죽는게 아닙니다. 가을에 나뭇잎이 지더라도 나무를 보고 죽었다고 하질 않듯이 육신 떨어져도 죽은게 아닙니다.

내 부처는 영원한 부처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부처입니다. 그러니 바깥부처 믿지 말고 내 부처 믿어라, 바깥부처가 영험있다면 내 부처는 광대무량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한대로 쓸 수 있고 무한대로 나툴수 있는 부처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그건 도가 높은 스님들이나 해당되는 얘기이고 중생들이야 그렇지 않은게 아니냐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이 공부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하다고 하셨던가요?

누구라도, 그 사람이 학력이 높건 낮건간에, 잘나고 못나고 간에 그런 것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자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 부처는 우주 삼라만상과 그대로 직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김가든 박가든 남자든 여자든 잘났든 못났든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걸 믿는게 진짜 불교지 밥해놓고 떡해놓고 ‘아이고 부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나를 낫게 해주시오!’하는게 불교가 아닙니다. 밖으로 빌면 정작 내 부처는 어떻게 합니까?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사찰, 법당의 음향시설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 뛰어난 소리가 보장되는 ……
- 가장 경제적인 법당 음향시설 .

『음향연구가 김문화』가 직접 설계 제작한 DX-707 마이크는 현재 법당앰프의 소리를 완전히 바꾸어 드립니다.

취급품목
- 법당전용 시스템 앰프
- 행사용 高出力 스피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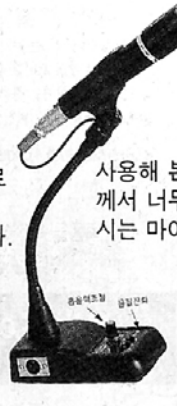
용도 : 각종행사, 대법당 웅장한 음질을 자랑

법당의 필수품

특허품



법당 큰스님 전용으로 특별제작한 세계최고 성능의 마이크 입니다.



사용해 본 모든 스님들께서 너무나 만족해 하시는 마이크 입니다.





- 방생법회, 휴대앰프 전기/밧데리 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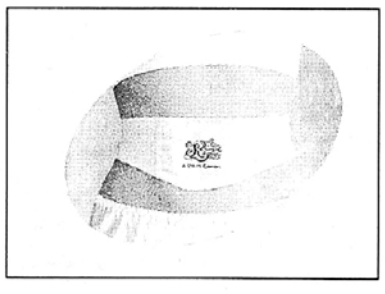
- DX - 707 스페셜 마이크 ●공급가 : 200,000원
- DX - 707 분리형 스텐드 마이크 ●공급가 : 200,000원
- TM -108 염불전용 목걸이 마이크 ●공급가 : 85,000원
- 고성능 무선 핀-마이크

유코전자

본사 : 158-09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6-7
전화 : (02)697-9976,605-3235
FAX : 695-9676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 · 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고은 불교대하소설



미 진

이미 바다밑의 지층에는 변위(變位)가 생겼다. 바다 위의 파도가 한 줄기로 솟아올라 마치 길고 긴 짐승이 내달리는 것 같은 파도의 행렬을 보였을 때 바다밑 지층의 지진파(地震波)는 그것이 지나가는 양쪽을 현저히 어긋나게 한 것이다.

무욕도 일대의 연안이 사나운 물살 때문에 그 섬과 해안지역을 두절시킨 것이나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씩 지나가는 미진(微震)이나 상당한 지변 진동으로 확대되는 것 때문에 그동안 아주 노련한 어부들조차 이 일대의 연안을 피하는 처지였다.

그런 무욕도에 아무것도 모르고 건너온 인담이 그 뒤로 들려오는 이런 일 자체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이제까지 잘 지내은 것이었다.

하지만 몇해 전 지진이 한 차례 이 섬 전체를 요동친 적이 있었다. 그 뒤로 심심풀이처럼 한 두번 미진이 일었다.

어찌 사바세계가 온전할 것인가.

어찌 사바세계와 온 우주 3천대천세계가 생겨서 무너지고 없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런 사바세계에서 사는 목숨인들 그것이 지극히 존귀한 한편으로 얼마나 하찮나위 없는 검불이거나 티끌이 아닐 것인가.

겁(劫)의 끄트머리에 이르러 그 무엇인들 그 귀신까지도 남아있을 까닭이 없으리.

굳이 이 도량을 에그머니나 하고 질겁을 해서 떠나는 그 방정이 어찌 도인의 일일 것인가.

그저 살 때까지 살되, 그저 닦을 때까지 닦다 죽게되면 죽으리.

이 집안의 도리가 무엇이던고. 태어나는 일, 사는 일에 곰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집착을 헌 미투리 한짝으로 내버릴 노릇 아니던가.

그러나 죽음이란 어디로 가는 것이지 아주 이 세상에서 없어짐도 아니다.

멸겁(滅劫)이란 또 다른 겁의 세상을 위한 한바탕의 노래잔치 아닌가.

그런즐 알았으면 되지… 그럭저럭 이 도량을 도솔천으로 삼건 서방정토로 삼건 제 할 노릇으로 한번 살아보리.

이왕이면 깔깔 웃어도 좋아.

징징 짜거나 발발 떨거나 하는 것보다는 식은 죽처럼 히죽이 웃어도 좋아.

이런 생각이 인담이나 그밖의 수행자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젖어든 평상심의 무심(無心) 그것으로 되어 있었다.

어찌 누룩이 가만히 있겠는가. 장차 술이 되어 그것을 입에 대는 동안 알발딸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술에 취하는 대신 도에 실컷 취해서 그 취함과 깨어남이 둘이 아닌 경지 그것이 오죽이나 좋은 일이겠는가.

취함이 곧 미혹(迷惑)의 세계라면 그 취함에서 깨어남이 각성(覺醒)이 아니겠는가.

자아 잔소리 따위 접어두고 마치 이 세상생생 이전 처음으로 출현한 부처(威音已前 威音王佛)라도 되어보리. 그리하여 일체의 사량(思量)과 분별따위 칼로 잘라내어 온전히 무(無)가 되어버리는 일, 부모가 아직 태어나기 전(父母未生前)의 그 도리, 공겁이 있기 전(空劫以前)의 그 새하얀 공(空)에 너울너울 춤추어 놀아보리.

아마도 이런 눈부신 그림이라도 마음속에 그리면서 살아왔다면 그야말로 큰 도인들의 경지에 틀림없으리라. 그런 경지에 다가가려는 정성만이라도 도인의 경지가 아닐 수 없으리라. 인담과 우녀는 그런 경지였는지 모른다.

어찌 사바세계가 온전할 것인가

다시 지진의 미동이 시작됐다

이 세상의 무상을 가르치는 것처럼…

물방울 하나도 남기지 말라(不存一滴)

언젠가 우녀가 바위 벼랑을 때리고 부서지는 파도의 힘찬 포말들을 보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니와 지금의 우녀는 지진이 한 차례 지나간 뒤 남아있는 미진도 감추지 못한 백치가 되어버린 것인가.

아직 무욕도 일대의 바다나 해안은 그다지 큰 규모의 지진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

이런 국지적인 지진이 무리를 이루어 일어나는 진원(震源)은 매우 얕아서 도리어 그 때문에 그 부근 일대에서는 적지않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되기도 한다.

그런 군발지진(群發地震)은 예측하기도 어렵고 규칙적이지 않으므로 처음에는 지진의 강도를 높였다가 차츰 약화되기도 한다.

다만 이런 국지적인 작은 규모의 지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말 그대로 군발지진인지 앞으로 있을 커다란 지진의 전조(前兆)인지 가려낼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제이다.

우녀는 바람의 시퍼런 파도의 소용돌이와 그 폭발음에 가까운 파도 부딪치는 파열음 속에 한동안 잠겨 있었다.

거센 파도 한 줄기가 다른 파도들을 따돌린 나머지 이 바람 밑의 협곡으로 혼자 들어와 바람의 압박을 온몸으로 부딪쳐서 산산히 부서지고 마는 그 철저한 패배가 만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와 파도 부서지는 소리에는 눈 멀고 귀 멀어도 될 정도의 함이었다.

아마도 우녀는 그런 바람에서의 체험으로 그의 영식(靈識)이 어느 만큼 회복되어 그의 백치 수준의 머리속을 약간 바꿔주었는지 모른다.

"다 미났구나!"라는 그의 한숨섞인 말 한 마디가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는 섬에 혼자 남은 우녀 자신을 뜻하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당장 바닷바람을 피해서 쉴 곳도 없는 이 집 없는 섬에서 현실보다는 관념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뜻밖의 일이기도 하였다.

그가 중얼거린 것 "도대체 부처란 것이 뭐란 말인고"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도 아니고 그것에 의존한 그동안의 삶이 회한에 젖어서도 아니었다. 입에서 흘러나온 무의식적인 콧노래와 다를 바 없는 의식의 한 조각이었던 것이다.

"… 뭐란 말인고."

이 투정이 습관 내보인 중얼거림에 대해 공중에서 어떤 대꾸가 있었다. 우녀는 공중을 올려다 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는 갈매기들도 지진을 피해 간 뒤 아직 이 섬 일대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 소리는 지극히 서당 훈장 앞에서 공부한 것을 그대로 외우는 모범적인 학동(學童)의 그것과도 흡사했다. 그렇다면 누구의 대꾸일까.

이런 대꾸였다.

그대가 이런 것이나 묻는 아이로 돌아갔단 말이더냐. 가련하다. … 부처는 지나간 과거생을 보고 그처럼 미래생도 보며 또한 현재세에서 사라지는 모든 것을 다 보며… 밝은 지혜로 모든 것을 환히 알아 닦아야 할 것을 빠짐없이 닦고 끊어야 할 것을 남김없이 끊었기 때문에 부처라고 부르나니… 억겁의 세월동안 살펴보아도 즐거움은 잠시요 괴로움만 남으니 한번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번뇌망상을 멸리 벗어나 뿌리채 뽑아버려 세상을 바르게 깨달은 이를 부처라 말하느니…

굳이 이 말을 따져보자면 잡아함경 제4 1백경 가운데 끼어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

옛날 천축나라 기원정사의 우계(雨季)에 석가모니불이 그의 제자들과 머물러 있을 때 말 돌아하는 한 바라문이 찾아와 물었을 때의 대답이기도 하였다.

"고타마시여, 어떤 이를 부처라고 합니까? 부모가 불여준 이름입니까? 아니면 옛날 바라문이 지어준 이름입니까?"

말하자면 이렇듯이 부처를 이름의 모양(名相)에 집착해서 묻는 상대방에게 한 권의 시로 읊어서 아주 아름다운 노래의 대답으로 해준 것이었다.

우녀는 더이상 공중을 올려다 보지 않았다. 그 공중이란 것도 우녀 자신의 마음이 이룬 공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다시 공중의 소리를 들어야 했다. 묻지 않았는데 절로 대꾸가 있었다.

"번뇌망상을 뿌리째 뽑아버려

세상을 바르게 깨달은 이를 부처라 하느니…"

우녀는 공중의 소리를 들었다

공작새를 아는가? 그 새가 비록 그 모습은 화려하지만 기러기나 고니처럼 하늘을 높이 날지 못하느니라. 겉모습은 비록 잘났다 하더라도 번뇌를 끊고 공덕을 이루느니만 못하니 지금 그 수행자는 잘 길들여진 말과 같아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모든 번뇌의 결박을 벗어나 다시는 윤회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우녀는 중얼거렸다.

"나더러 들으라는 소리인데… 어찌 내가 공작새를 모르고 기러기나 고니만 알겠는가… 어찌 겉모습만 알고 본마음은 모르겠는가. 기러기도 고니도 쏘아 떨어뜨리면 죽은 짐승이요, 날지 못하는 공작새도 그 화려한 터럭을 다 뽑으니 기이한 짐승이로구나."

다시 지진의 미동이 시작되었다. 그 미진은 한 두 차례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 지속되는 미동이 차라리 이 세상의 무상(無常)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 같았다.

우녀는 배가 고프다는 생각도 없이 배가 비어 있었으므로 무어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조차 내지 않은 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무너지기 전의 아랫채 요사 후원 자리에는 물에 휩쓸려 가다가 남겨진 쌀이 몇 군데 쌓여 있었다. 그것은 우녀의 약해진 시력으로 보아 소금인줄 알았다.

하지만 무욕도에서는 거무튀튀한 막소금을 썼지 그런 표백된 가는 소금을 쓴 적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 쌀을 한줌 쥐어서 무심코 입안에 털어넣었다. 입안에서 위 아래의 이빨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쌀들이 씹혀서 음식이 되어갔다.

"맛이 있다!"라고 그녀는 쌀을 씹다가 중얼거렸다. 오래동안 그렇게 생식으로 살아온 습관이었으므로 우녀의 입은 아주 익숙하게 입놀림을 해냈다.

우녀는 문득 그의 발등을 내려다 보았다.

"내 발이 왜 노새 발인가(我脚何以騾脚)."

그림·조향숙

삼중스님이 그려보는 이 시대의 자화상!

배고프면 먹고 졸리우면 자고

최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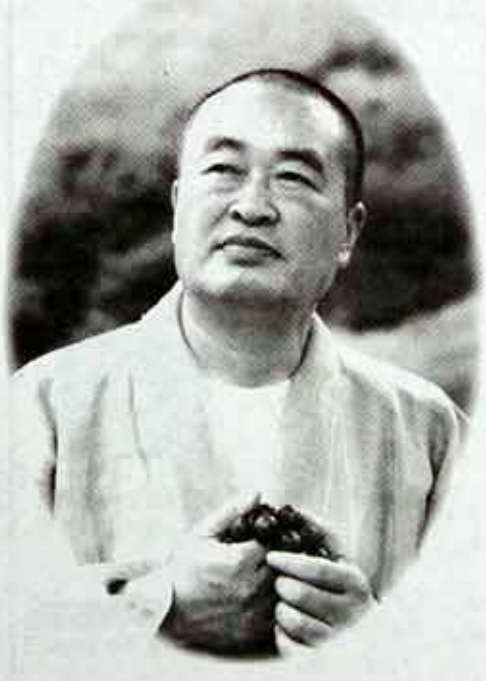
바르게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비뚤어진 세상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삼중스님의 살아서 펄펄뛰는 선어(禪語)와 풍자!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고, 차라리 옛날이 그립다고,
살아지는 힘급봉투, 가벼워지는 호주머니,
명예퇴직이니 권고사직이니,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밥줄,
사람만 있고 사람은 없는 이 시대를 한탄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인간 군상들에게
행동하는 부처 박삼중 스님이 전하는
맑고 시원한 샘물 같은 메시지!

• 신국판/296면/값 6,500원

가끔 사람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욕심에 욕심을 부려 욕심으로죽는가 하면 지식에 지식을 하다가 지식에 문하기도 한다.
하늘을 보면 하늘이 다인 줄 알고 땅을 보면 땅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
그러면서 일상에 매몰되어 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잠시 자신과 주변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작은 상식에
얽매였던 틀을 깨도록 문자와 언어와 형상조차 바람일 뿐인 세계로 안내하고 싶다.

- 작가의 말 -



철학과 은유, 웃음과 풍자가 가득한 스님의 글 속에서
우리는 달궈진 눈과 귀, 가슴과 머리를 흔들어 깨우는
인자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삼중스님 에세이

15쇄

걸망에서 배운 인생

속세의 어리석음도 미처 다 허물지 않았거늘……
걸망 하나 짊어진 채 집 떠난 지 40년 세월!

목탁 하나, 금강경, 그림 몇 점 담긴
남루한 걸망이 때로는 부끄럽고 번거로웠다.
그러나 숨찬 삶의 고비길에서 버릴 수 없는 보살들을 만나며,
쉬어는 마음의 합장을 곧추세웠다.
살아 생불하기보다 자비한 미소 한줌 잃지 않으려고.

• 신국판/320면/값 6,000원

죽음을 목전에 둔 사형수들이 철창 밖으로
띄우는 참회의 편지 최초 공개!

24쇄

사형수들이 보내온 편지 1.2

제1부 참회의 눈물로 보낸 나날들
제2부 어머님 전상서

사회가 극도로 어지러우니 사형수인 저로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이승에서의 마지막 편지를 적어봅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정해져 있는 죽음 앞에서 그들은 모두 성자였습니다.

• 신국판/전2권/각권 값 5,500원

출판원고를 보내주시면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태일출판사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불교소설 줄이어 봄나들이

- 카르마 — 인연 고리 얽매인 수행자 묘사
- 그럼, 자네가 — 보조국사 생애와 사상 소설화
- 연꽃바다 — 자연의 눈으로 본 인간 이기심
- 천상의 약속 — 전생·윤회 등 불가사의한 세계
- 성자의 시대 — 인간존재 근원 찾는 과정 그려

그동안 부진하던 불교문학계에 〈카르마〉 〈그럼, 자네가 부처하게〉 〈연꽃바다〉 등 5종의 불교소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고뇌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그린 소설 〈카르마〉(큰산刊), 인간의 이기심을 자연의 눈을 빌어 서술한 〈연꽃바다〉(세계사刊), 보조국사 지눌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그럼, 자네가 부처하게〉(전3권 참샘刊), 남녀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이야기를 통해 전생과 윤회를 묘사한 〈천상의 약속〉(전2권 창해刊), 인간존재근원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구도소설 〈성자들의 시대〉(전3권 자유문학사刊) 등.

〈아제아제바라아제〉 〈시인의 잠〉 등의 소설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한승원씨의 〈연꽃바다〉는 맑고 푸른 하늘, 쪽빛바다, 전망 좋은 매실농장을 배경으로 의인화된 박새부부와 백양나무의 시각을 통해 인간의 이기적인 면을 예리하게 관찰한 작품이다. 시인이자 정치가이며 사업가인 박주철이 세 여자를 통해 낳은 네 자녀가 매실농장에 모여 죽음이 임박한 아버지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재산싸움을 한다. 반면 박새부부와 백양나무로 대표되는 자연은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들만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믿는다'며 비관하고 있다.

입산과 환속을 반복하는 지상스님을 통해 풀기 힘든 인연의 고리에 얽매여 고뇌하는 인간의 갈등을 그린 〈카르마〉는 김상렬씨의 작품. 지상스님이 출가해 스님이 되었다가 환속해 처자식을 두지만, 부질없는 속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시 입산하는 과정을 사실적인 필체로 그리고 있다. 작가는 지상스님이 인연고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치열한 구도행으로 책을 마무리한다.

고려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킨 보조국사 지눌의 일생을 그린 신원규씨의 〈그럼, 자네가 부처하게〉는 전기를 쓰듯 주인공의 구도행각을 써내려가고 있다. 이 소설은 지눌스님의 출가와 도반과의 수행상, 강론을 마치고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열반에 든 모습 등을 무신정권으로 대변되는 당대 역사를 배경으로 유려하게 그리고 있다.

지상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고 천상의 저편에서만 존재했던 두 남녀의 가슴 아픈 사랑을 그린 작가 백금남씨의 〈천상의 약속〉은 전생 윤회 영혼이라는 불가사의한 세계에 접근하고 있다. 감기자의 실종으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그가 체험한 환생이야기와 영천사의 업경대와 관련된 경대스님 선등스님 무설스님 순분이 그리고 '청녀이혼(倩女離魂)'이라는 화두와 관련된 전생이야기로 가득차 있다. 시대와 공간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전생의 흔적과 그 속에 얽힌 한 남녀의 애절한 사랑이 소설적 재미를 더해 준다.

〈성자들의 예언〉 〈우리 멍산 답사기〉 등의 저자 류인학씨의 소설 〈성자들의 시대〉(전3권 자유문학사)는 운학산 백학봉 정상근처 초막에 사는 꼽추 이석주의 수행상을 그리고 있다. 그의 스승 박운선생, 조사 운허도인과 개심사의 지현스님 등 욕망과 번뇌를 남김없이 떨치고 대자유를 얻은 이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수행자의 길을 제시한다.

강지연 기자

불심시심 〈83〉

푸른 산이 나의 집

靑山碧水是吾居 푸른 산 푸른 물 이것이 나의 집
(청산벽수시오거)
樓閣玲瓏入紫虛 누각은 영롱하여 하늘 선궁에 들다
(누각영롱입자허)
靜裏容姿遼海鶴 정적 속에 여윈 모습은 먼 바다의 학이고
(정리구용요해학)
閒中眞味越江魚 한가한 중 참 멋은 강을 건너온 물고기지
(한중진미월강어)
山當小榻色常滿 산 마주한 작은 집 항상 산빛 가득하고
(산당소축색상만)
水到石溪響更餘 돌 시내 내리는 물 여운이 남는 울림
(수도석계향갱여)
外客不來花鳥語 외지 손님 없기에 새와 꽃만의 대화
(외객불래화조어)
移床松榻臥看書 솔 밑으로 자리 옮겨 누워서 읽는 책
(이상송탑와간서)

화산의 모임에 차운한다(次花山會韻) 한 시로 송계대사의 시이다. 화산지방에서 모인 시회의 운에 차운한 것이다. 직접 그 모임에 참가한 것이 아니고 그 시회에서 있었던 시운에 따라 지은 시이다. 속가의 선비와 시를 짓기는 하지만, 자신은 어디까지나 산사에 있는 스님이다. 외지에서 보면 산사에 갇혀 있는 외로운 몸이지만 오히려 자유로운 몸이다. 이 시도 이러한 자유로움을 마음껏 읊은 것이다. 고요함에 묻혀 여위어 보이는 몸이지만, 그것은 자유를 찾아 저 바다를 건너 날아온 학이기에 그러하다. 한가로움의 참 멋도 아는 이나 알 일이지만, 그 멋을 강을 넘어 온 물고기로 비유하였으니 이 또한 얼마나 자유로움인가. 작자 자신의 자유로움이 자연 사물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임을 여실하게 비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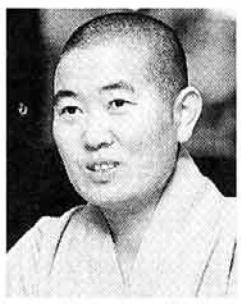
거처는 어떠한가. 집은 작지만 산빛으로 항시 가득하다. 이 가득함의 표현 넉넉함의 극치이다. 이것이 바로 남보기에는 없음이로되, 나로서는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여유인 것이다. 그러기에 다음 구의 여유있는 시내의 울림이라 한 표현이 더욱 자연스럽다. 산문 밖의 손님은 없지만 꽃이나 새와의 대화가 있기에 외롭지가 않다. 그도 싫증이 나면 소나무 아래로 책상을 옮긴다. 시의 표현에야 책상을 옮긴다 하였지만 솔 밑이 그저 자리요 책상이다. 여기에서 책을 읽는다. 어쩌면 이때 읽는 책은 인간문자의 책이 아니라 천연문자의 대자연 그대로일 수도 있다. 사실이 그렇다. 책 속의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이 자연의 진실 아닌가. 소나무 아래로 옮긴 책상 위의 책은 바로 이 자연이라야 논리로도 맞다. 스님은 지금 이 자연의 진실을 음미하고 있는 것이다.

스님은 이렇듯 자연을 나에게 끌어들이기도 하고 자신을 자연 속으로 투영시키기도 하여 그야말로 너 나가 없는 몰아일치의 경지를 시화하고 있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불교 꽃꽂이 시대별 재현"

만등만화 육법공양 여는 정명스님



"요즘 사찰행사에서 전통 육법공양의식이 많이 보편화된 것 같아 기쁩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고증 재현해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등만화 육법공양법회'를 시작했고 이번에도 그런 취지로 재정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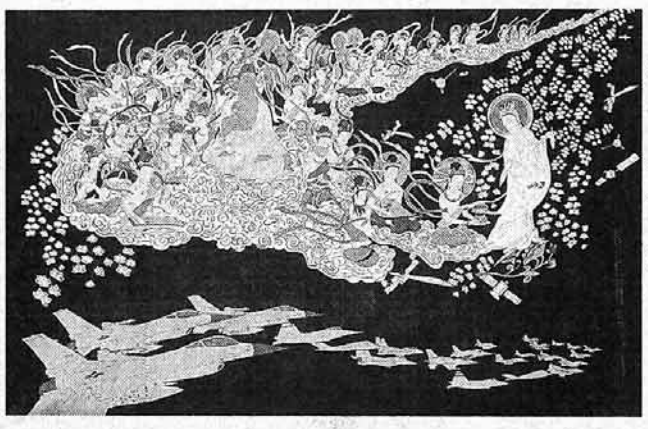
오는 1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제2회 만등만화 육법공양법회'를 주관하는 정명스님(연화정사 주지)은 이 행사에 동참하는 5천여 대중이 차례로 꽃과 연등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시간이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법공양이란 우리나라에서 옛부터 행해지던 불교전통의식으로 향 등 차 꽃 과일 쌀 등 6가지를 부처님께 올리는 의식이다.

오후 3시부터 3시간동안 거행될 이번 행사는 전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스님들에 의해 올려지는 예불·신중작법. 2부는 육법공양법회 및 만등만화 공양이다.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시대별 전통 불교꽃꽂이가 차례로 불전에 올려진다. 고대 꽃꽂이의 재현은 고구려 벽화나 탱화, 변상도, 민화 등을 통해 고증했다. 시연에는 연화꽃꽂이회 회원들과 불자 등 1백여명이 무대에 선다. 3부에는 가정형편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60여쌍의 무료결혼식이 전통불교혼례의식으로 거행된다.

"육법공양때 부르는 범패게송을 한글화했습니다. 반영규 작시, 김희경 작곡으로 김성녀씨 등 국악인에 의해 연주될 예정"이라 밝힌 정명스님은 "공양의 의미가 확연히 전해짐으로써 더욱 가슴에 와 닿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에 많이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경숙 기자

12일 장충體…범패게송 한글화
60여쌍 무료로 전통 불교혼례



오늘의 후불탱화 「주악천녀도」

현대적인 기법으로 그려진 탱화 '주악천녀도'. 3월30일 충주 군법당 황룡사에 봉안된 3점의 후불탱화중 하나이다. '현대불교' 연재소설 수미산 삽화를 그리고 있는 한국화가 조환숙씨 작품(370㎝×260㎝).

향가서 구운몽까지 재조명

고전문학회 '국문학과 불교'



〈삼국유사〉의 향가에서부터 조선조의 〈구운몽〉에 이르기까지 고전문학과 결부된 불교를 재조명한 논문집 〈국문학과 불교〉(장경각刊)가 발간됐다.

한국고전문학회(회장 서대석)가 펴 낸 이 책은 설화, 소설, 선시, 한문학 등의 고전문학에 투영된 불교적 세계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소개했다.

서대석 교수(서울대)는 〈한국 설화문학의 불교적 이해〉에서 그동안 학계에서 〈삼국유사〉의 설화로만 한정됐던 불교사상관련 해석을 〈장자못 설화〉 〈호랑이 눈썹〉 〈상원사 유래〉 등 구비설화에까지 넓혔다. 설화의 유형을 보배설화, 윤회전생설화, 구원설화 등으로 나눠 수행을 돕는 부처와 파계자의 징벌구도, 본능의 세계를 극복하고 보살행의 구도세계를 지향하는 형식 등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구운몽의 불교사상과 소설미학〉에서 유병환 교수(공주대)는 〈구운몽〉 연구방향을 불교사상추출에 근거했던 기존의 시각과 달리 불교사상이라는 심오한 주제를 어떻게 구상화해 소설로 성공시켰는가로 잡았다. 또 〈구운몽〉에 내재된 구조적인 요소를 분석해 복선과 대응, 상징의 기법이 연기와 공을 심화시켜 소설로 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희철 교수(청주대)의 〈향가의 불교적 언어문화〉는 불교가 향찰의 문자와 운용법을 발달시켰다고 주장한다. 양교수는 불경의 장엄화와 구상화의 일부 표현법은 향가표현에 그대로 쓰이거나 같은 유형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적인 경전 게송의 형식을 이루고 있는 4구 1게는 균여향가에서 4-4-2체의 형식으로 정리돼 내용뿐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불교는 향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국문학과 불교〉에는 이외에도 △사찰전설로 본 백제불교사의 전개-황인덕(충남대 교수) △한국시가와 불교-성호경(영남대 교수) △ 한국불가한시의 제재와 그 성격-이진오(부산대 교수) 등 총 12편이 실려 있다. 〈연〉

문화 소식

월정·용주사 박물관 착공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주지 현해)는 11일 오전 11시 경내에서 박물관 착공식을 갖는다. 오는 12월 완공예정인 월정사성보박물관에는 육수관음상 등 2백여 성보가 전시될 예정.

한편 수원 용주사(주지 정락)도 오는 20일 성보박물관 착공식을 거행한다.

진주서 원성스님 동승전

동승의 다양한 모습을 통한 천진불심을 표현해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원성스님이 11일부터 17일까지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경남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작품전을 갖는다. 이번 작품전에는 다양한 모습의 동승 40여점이 전시될 예정.

한편 원성스님의 동승작품 25점이 인사동 풍경갤러리에서 상설전시되고 있다. 동승그림 엽서와 카드, 달력도 판매한다.
(02)723-3375

박서보·김기린 모노크롬展

70년대 한국화단의 모노크롬(단색조의 그림을 의미)전을 이끌었던 중견화가 박서보, 김기린 두 작가의 모노크롬 작품전이 열리고 있다.

박서보씨는 15일까지 갤러리 현대에서, 김기린씨는 오는 26일까지 가인화랑에서 각각 작품전을 가지며 모노크롬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준다.

격조높은 작품 · 감동적인 영상 — 불교TV 영상물

불교TV 영상물은 한 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불교TV 영상물에는
역사의 깊이가 녹아 있습니다.
고승대덕의 법문이 살아 숨쉽니다.
부처님의 숨결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불교TV 영상물에는 한국문화의 정수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수행정진의 바른 길잡이 역할을 다하도록 기획·제작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어느 순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획영상물, 불교TV 특집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에서 큰스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 보십시오.



지혜의 빛 · 자비의 샘
btn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706-3502~5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① 서옹 큰스님 (고불총림 방장)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이 은사스님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가르침 받는 성찰의 소리

② 서암 큰스님 (전 조계종 종정)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불자가 큰스님의 고고한 자태와 함께 청량한 삶을 조명

③ 월하 큰스님 (조계종 종정)
탤런트 고두심 불자가 통도사를 배경으로 큰스님께 정해 듣는 이시대 깨침의 말씀

④ 석주 큰스님 (칠보사 조실)
동화작가 정채봉 불자가 큰스님의 구도정신을 탐색하는 감동의 영상

⑤ 월산 큰스님 (불국선원 조실)
영남대 김성규교수가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활이 곧 선이 되어 버린 큰스님의 삶을 취재

⑥ 성수 큰스님 (법수선원 조실)
승가대 송찬우교수와의 대담으로 큰스님의 독특한 수행과정이 전개되는 감동적 영상

⑦ 고송 큰스님 (피계사 조실)
수행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탤런트 엄앵란 불자에게 설파

⑧ 비룡 큰스님 (월정사 조실)
관음보살같은 자비스런 깨달음의 말씀을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과 대담

⑨ 원담 큰스님 (덕숭총림 방장)
관화가 황남채 불자가 속세의 발길이 닿지 않는 큰스님의 산중관지를 진합

⑩ 월타 큰스님 (전 조계종 전계대화상)
현대인의 가슴에 속속한 봄비같은 청량감을 주는 말씀을 연화장세계 임기준 대표가 진행

※ 위 차례는 방송된 순서임

비디오 테잎 · 10개 1세트 / 구매가 : 170,000원

구입문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02)706-3502~5



"승가 계율불감증 벗자"

'사분율' '한국불교계율사상연구' 동시 출간



사분율 철우스님 16권으로 완역

2천5백여년전에 만들어졌던 승가의 계율이 오늘의 현실속에서도 과연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계율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계율과 관련된 책들이 주목을 끈다.

파계사 영산율원 원장 철우스님이 고려대장경의 〈사분율〉 전60권을 한글로 번역 발간한 〈사분율〉 16권과 인환스님(동국대명예교수)의 〈한국불교계율사상연구(Ⅰ)〉가 그것(토방刊).

철우스님이 번역한 〈사분율〉은 한글세대 스님들을 위해 쉽게 풀이했으며 뒷부분에는 고려대장경 원문도 그대로 실었다. 그동안 〈사분율〉이 동국역경원 등에서 번역되기는 했었지만 고려대장경 수록 〈사분율〉이 직접 완역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사분율〉은 오는 5월 중순 파계사 '영산율원 도서관' 완공을 앞두고 발간돼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철우스님은 "부처님은 '비구는 수순하는 행을 하면서 살라'고 강조하셨으나 오늘날 계율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으로 역순하는 행이 많다"면서 "계율 불감증에 걸린 우리의 오늘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책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인환스님이 자신의 계율관련 논문 20여편을 모아 펴낸 〈한국불교계율사상연구(Ⅰ)〉은 제1장 고구려 백제의 계율사상 연구, 제2장 신라불교의 계율사상 연구, 제3장 신라 진표율사 연구, 제4장 대현법사 연구, 제5장 원효의 계율사상으로 구성됐다.

신라불교의 계율사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책은 불교실천의 기본이 되는 계율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불교실천의 중심으로써 지계(持戒)를 중시하는 한국불교 기풍의 근원이 신라불교에서 구축된 계율사상의 여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삼국시대 계율사상 종합 고찰 계율사상

특히 '계율이란 인연에 적응하여 생긴 것이기에 지켜야 할 것은 잘 지키고, 적합하지 못한 것은 가령 계를 파하였다 하더라도 계율의 본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원효의 계율에 대한 뚜렷한 견해가 후대의 대현법사와 진표율사로 이어져가는 계율사상의 중요한 흐름이라고 논파하고 있어 최근 계율논쟁에 대한 해법의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환스님은 이번 〈한국불교계율사상연구(Ⅰ)〉에 이어 조만간 〈한국불교계율사상연구(Ⅱ)〉도 간행할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출판화제

인도총서 시리즈 5월초 '햇빛'

최근 인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역사 사상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인도 총서 시리즈'가 도서출판 규장각에서 출간된다.

뭄질문명사회가 잃어버린 순수함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인도를 조명함으로써 현대인들의 적박한 마음을 적셔줄 이 시리즈는 오는 5월초 그 첫 번째로 〈고전요가의 이해와 실천(가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영국의 인도학자 어니스 이스트우드의 원작 〈요가〉를 동국대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한 임승택씨가 번역한 이 책은 요가수트라, 파탄잘리 등 고대문헌에 나타난 요가의 원리와 실천방법, 그리고 요가와 불교와의 연관성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대 류경희교수의 〈인도종교와 철학 기행문(가제)〉도 출간될 예정이다. 기존의 단순한 신변잡기식 인도여행기에서 한층 더 나아가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등 인도에 퍼져있는 종교를 통해 삶의 '실존적인 문제들을 풀어해나가는 '나를 찾는 여행기' 성격의 책이 될 것이라고.

이밖에도 규장각은 〈쉽게 읽는 인도철학 개론(가제)〉, 〈인도의 역사(가제)〉 등 인도관련서를 계속 출간할 예정이다.

출판소식

한글대장경 '광찬경 外'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이 한글대장경 〈광찬경 外〉, 〈유가대교왕경 外〉, 〈아비달마순정리론 3〉을 번역 발간했다.

〈광찬경 外〉은 〈아유월치차경(阿惟越致遮經)〉, 〈광박엄정불퇴전륜경(廣博嚴淨不退轉輪經)〉등이 함께 번역돼 있다.

〈유가대교왕경 外〉은 대변조금강여래가 정광천 대누각에 있을 때 금강수보살의 물음에 삼매만다라와 관상법 섭수제자법 등의 법을 설한것이다.

〈아비달마순정리론 3〉은 현장이 번역한 아비달마순정리론을 4권에 나눠 번역한 세번째권이다.

'불가의 상장의례' 발간

불가의 상장례 의식에 대한 이해와 장례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불가의 상장의례〉가 나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펴낸 이책은 각종 상장의례 책자를 재구성해 불교의 상장례 의식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요령을 수록하고 있다. 부록편에는 영결식 법어, 영결사, 조사, 추도사, 왕생발원문을 담아 참고가 되게 했다. 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실었다.

고려원 재기 움직임

지난달 부도를 낸 출판사 고려원이 특유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 일시 폐쇄됐던 고려원의 초대형 파주창고(보관도서 3백만권)가 도서 출고를 재개했고, 그동안 거래 관계에 있던 인쇄제지제본분야의 협력업체들이 지난주부터 잇따라 회합을 갖고 고려원 재기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것.







美 어린이 禪우화집·명상교본 발간

최근 미국의 출판사 위더힐(Weatherhill)이 어린이를 위한 선(禪) 우화집과 명상교본인 〈선(禪 Zen Inklings)〉 〈신기한 일(Magic Happens)〉 〈어린이 명상교본(Meditation for Kids)〉 등을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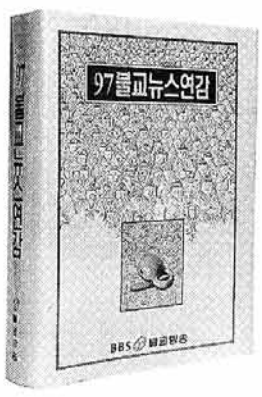
D·리치(美)의 〈선〉과 L·피숴헉(美)의 〈신기한 일〉은 인도 전래동화와 부처님 전생담을 새롭게 각색한 우화와 설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선〉은 미국에서 권위있는 〈출판저널〉지로부터 "선불교 특유의 해학과 예리함이 살아있으면서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L.피숴헉의 〈어린이 명상교본〉은 명상을 처음 시작한 어린이들에게 명상의 의미, 자세, 호흡법 등을 동화적인 삽화와 함께 쉽게 설명하고 있다. 피숴헉은 〈위대한 생각이 담긴 작은책〉 시리즈로 미국내에서 알려진 아동작가.

이 책들은 '위더힐출판사 웹사이트(http://www.weatherhill.com)'를 방문하면 구입할 수 있다. 〈욱〉

96년 불교계 화보로 되돌아 본다

'97 불교뉴스연감' 나와…'한국불교 인명록' 도



교계 최초의 불교뉴스연감이 출간됐다. 불교방송이 펴낸 〈97불교뉴스연감〉은 교계 전반의 동향과 각부문의 주요자료 통계 등을 엮어 1996년 불교계를 한눈에 되돌아 볼 수 있게 했다.

〈97불교뉴스연감〉은 △정축년 각 종단 신년법어 △96년 불교계 10대 뉴스 △되돌아본 96년 불교계 △특집-사찰환경보존운동 △월별뉴스 △기획특집 △96년 불교계 일지 등 총 708쪽으로 구성됐다. 특히 김영삼정부 종교편향정책, 사찰환경 보존운동, 불교관계법령 개정, 쌔불극성 등 96년 10대 뉴스를 관련사진과 함께 화보증심으로 편집했다.

또한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는 스님과 재가불자 2천여명의 이력을 별책부록으로 〈한국불교인명록〉에 담아 소개했다.

불교방송 연감기획팀 박재순팀장은 "이번 연감이 각 종단을 초월해 교계 전체의 활동상을 담아 종단화합의 계기를 부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로나온 책

▲법구경=불교 사상의 핵심을 시적인 직관으로 표출하여 고전의 묘미를 한 층 더 높이는 원시경전이다. 경률(經律)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금옥과 같은 명구들로 이루어진 법구경은 그대로가 부처님의 말씀이요, 견줄데 없는 큰 사상의 보고다. 동국대역경위원을 지낸 김달진씨가 지난 65년에 간행했던 〈법구경〉을 개정보완, 사륙판 양장본으로 새롭게 선보였다. 〈현암사 8천원〉

▲연극감상법(안치운 지음)=빛깔있는 책들의 공연예술시리즈 연극편. 연극을 이해하고자 하는 초보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다. 연극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연극사의 실례를 통한 사실적 설명과 함께 연극을 이루는 극장, 극단에 대한 역사적 사실도 덧붙였으며, 한국 연극계의 현 상황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하고 있다. 〈대원사 3천5백원〉





▲천부경=만물의 본체와 우주 생성의 근본원리 및 그 운용작용을 단 81자에 축약해 담고 있는 경전. 천부경은 진리의 본체와 민족의 본질인 근본사상을 바로 보이고 인류의 정도와 낙원의 첩경이 될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는 천부경과 함께 교화경(敎化經)과 치화경(治化經)도 실었다. 〈바로보인 1만5천원〉



▲부끄러운 문화답사기=외국어대 기록문학회 회원들이 우리문화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우리것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한 고찰과 기록을 담아낸 책.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부끄러운 문화답사를 통해 이 책은 자랑스런 우리문화유산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새롭게 하고 올바르게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새삼 깨우쳐준다. 〈실천문학사 7천5백원〉

▲한국巫의 세계=억압과 천대를 받으면서도 오늘날까지 꿋꿋이 이어져 내려온 한국무속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말끔하게 씻어내고자 쓰여진 연구서.

무(巫)라는 용어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물론, 무속문화의 규명과 한국무(巫)의 역사적 전개 및 한국 사회, 문화에 미친 영향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민족사 8천원〉

'선가귀감' 생활과 연관 설법하듯 풀이

개미집과 하루살이 법인 지음

화제의 책



〈개미집과 하루살이〉는 선을 수행하는 구도자가 알고 행해야 할 모든 문제를 간명하게 정리한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골라 쉽게 풀이한 각원사 주지 법인스님의 법화집이다. 일반불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학술용어와 심층적인 사상을 피하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항상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는 불자는 반드시 경율 론 삼장을 소의 경전으로 삼아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수행하고, 끊임없는 자기반조를 통해 본연의 불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책은 강조하고 있다. 또한 25년간 일본 명원사에서 재일교포불자 포교에 앞장서 온 스님의 이야기도 곳곳에 녹아 있다.

〈선가귀감〉의 한문원문을 쓰고 그 원문 밑에 주를 달았으며 설법하듯이 친절하게 일상생활과 연관시켜 해설을 덧붙였다.

〈불지사 8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불교입문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3	힘든세상 도나 닦지	효 림	가서원
4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5	실천티벳불교입문	홍 선	무량사
6	49재 공덕과 의미	편집부	이바지
7	화엄경강의	무 비	불 광
8	참선교육	수선회편집부	수선출판사
9	보현행원품 강의	무 비	민족사
10	유식입문	다카사키지키도	시공사

구입문의:(02)737-0695

"살 빼야지, 살 빼야지."

'살 빼야지.' 하는 조바심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가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500여년간 승가의 생활 속에 스며 있는 양생의 지혜. 군더더기 없는 삶, 군살 없는 몸매 유지의 비결 — 불교 다이어트.

저울의 눈금을 기준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실패. 아니면 부작용이 따르기 쉽다. 모든 것을 몸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계율을 따라 생활할 뿐, 특별한 방법으로 몸을 돌보지 않는다. 승가의 생활 그 자체가 건강의 비결인 까닭이다. 물론 대부분의 스님들은 몇십년 동안 1~2kg 정도의 차이로 몸무게를 유지하며 생활한다.
몸은 항상 변화한다. 그것이 늙음이고, 병듦이고, 죽음이다.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마음 바탕 위에서 불가의 생활을 몸소 실천해 보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다이어트될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책들 ①
불교 다이어트
그까짓 살 좀 있으면 어때



국판 224쪽/ 학림 지음
여시아문 /값 5,000원

제1장 승가의 생활
제2장 음식물로 다이어트를
제3장 쾌변으로 다이어트를
제4장 쾌면으로 다이어트를
제5장 호흡으로 다이어트를
제6장 식욕을 끊어 다이어트를
제7장 몸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제8장 요가로 다이어트를
제9장 마음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86(영업부), 737-0691(편집부),737-0697(팩스)



불교미술 기초지식 총망라

문명대교수 '불교미술의 형식' 등 2권 펴내

"절마다 석탑의 모양이 다른데 그것은 시대별로 어떻게 변모한 것인가"

전문학자가 아니더라도 사찰답사를 많이 다닌 사람들은 불교미술에 대해 좀더 알고싶은 욕구가 생긴다. 이럴때 필요한 것이 불교미술안내서다. 불교미술을 알고 싶은데 어려운 용어가 난무하는 전문서는 읽기 어렵고… 일반인들도 불교미술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쓴 불교미술 책은 없을까.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알기쉬운 불교미술책 두권이 나왔다.

문명대교수(동국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문화재위원)가 불교미술강좌 시리즈 1·2권으로 펴낸 〈한국불교미술의 형식〉과 〈한국불교미술사〉가 그것.

〈한국불교미술의 형식〉은 문명대교수가 지난 80년 펴낸 〈불교미술개론〉을 27년만에 대폭 수정 보완한 책이다. 불교미술의 개론에서 불교미술의 발생과 전개에 대해 설명하고 불사(佛寺), 불탑(佛塔), 불화(佛畵), 불구(佛具) 등으로 분류해 다시 이 네 부분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각 분야마다 상세한 설명을 해 놓았다. 한국불교미술의 분야별 형식 및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게 간결하고 쉬운 문체로 정리했으며 2백여장의 풍부한 도면과 사진을 함께 묶었다. 특히 '불상의 도상형식'에서는

분야·주제별 양식변천사 정리
국내외 주요작품 도면·사진 등 수록

32상과 80종호, 수인(手印) 계인(契印) 등 불상의 각 모습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신행에도 도움을 준다.

〈한국불교미술사〉는 불교미술의 기원에서부터 한국 불교미술의 전개와 발전까지 분야별·시대별로 살펴보는 '양식사'이다. 조각이나 회화 건축 공예별로 제각기 그 흐름을 살펴보고 그 흐름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제별로도 정리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불교미술사 가운데 중요한 걸작들은 따로 한 주제를 부각시켜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고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원류인 인도와 서역, 중국의 불교미술사도 개략적으로 서술했다. 국내외 주요작품을 총망라한 4백여컷의 사진자료가 미술사 이해에 도움을 준다.

저자 문명대교수는 "한국의 불교미술사는 한국미술사의 근간이 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없이 한국미술사를 논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펴낸 이 책이 전공자는 물론 일반인들이 한국의 불교미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이경숙 기자

나와 경전 2

묘법연화경



이 영 자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법화경〉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한것이 1957년경이니까 40여년쯤 전일이다. 그무렵 불교사상 강의를 듣기 위해 대각사의 청년단체모임인 대각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때 모임의 부회장인 황대법선 보살님께서 〈법화경〉에는 굉장한 부처님세계가 전개되고 있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 당시는 요즘처럼 경전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뿐 아니라 한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접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얼마후 안진호선생님이 〈묘법연화경〉을 출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법화경〉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줄여 부른 이름이다.

초발심의 도반들이 성북동 계곡에 있던 안선생님의 조그만 기와집을 방문했고 그때 나도 한질 구입했다.

별로 경전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귀중한 진리가 있다'라는 주변의 권유로 나도 두터운 양장본으로 된 상하 두권을 샀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오래하다가 불교에 귀의했던 황보살님은 이 경전을 읽고 법화신앙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고 했지만 당시에 나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냥 종교적 세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을 지닌 채 나의 서가 가장 끝자리에 〈법화경〉을 모셔 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내가 〈법화경〉을 가까이 하게 된 것은 천태와 법화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 근래 십여년간의 일이다.

〈법화경〉의 본 경명은 〈삿드 달마 푼다리카 수트라〉이다. 바른 법을 흰 연꽃에 비유하고 있는 경이다. 바른법을 묘법(妙法)이라고 번역했다. 흰 연꽃은 진흙탕인 연못에서 핀다. 오염된 현실에서 올바른 부처님법을 실현하는 대승불교의 실현자를 흰 연꽃으로 상징한 것이다.

〈법화경〉은 초기 대승불교경전을 대표하고 있다. 이 경을 보면 초기대승불교운동이 얼마나 격렬한 활동을 전개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초기 불탑신앙은 재가불교신자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시대를 거쳐옴에 따라 출가와 재가의 구별없이 혼연한 사부대중이 참여하게 되면서 대승불교운동이 활발해지게 되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일이다. 이 가운데서 새로운 경전의 결집을 지향하는 그룹가운데 혁신적인 신앙운동을 전개한 것이 법화신앙인들이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기존의 소승불교인이라고 하는 성문이나 연각을 얕보는 일없이 모두 대승보살로 인도하려는 의지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 말하자면 일체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념보다는 일체중생이 모두 다 성불한다 라는 초대승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말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라는 대전제를 보여 주는 것이 이 경이다.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고 수많은 보살의 명호를 〈법화경〉에서 읽을 수 있다.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 것은 중생의 수가 무수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시방세계에 충만하시다. 과거세상에도 미래세상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빛으로 충만하다. 〈법화경〉을 읽으면 실로 장대한 드라마를 연상케 된다. 부처님은 세상 안팎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의 마음속에 충만

'누구나 다 부처님' 초대승적 사상담겨
수많은 불보살 출현…장대한 드라마

이 경전을 읽고 법화신앙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고 했지만 당시에 나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냥 종교적 세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을 지닌 채 나의 서가 가장 끝자리에 〈법화경〉을 모셔 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내가 〈법화경〉을 가까이 하게 된 것은 천태와 법화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 근래 십여년간의 일이다.

〈법화경〉의 본 경명은 〈삿드 달마 푼다리카 수트라〉이다. 바른 법을 흰 연꽃에 비유하고 있는 경이다. 바른법을 묘법(妙法)이라고 번역했다. 흰 연꽃은 진흙탕인 연못에서 핀다. 오염된 현실에서 올바른 부처님법을 실현하는 대승불교의 실현자를 흰 연꽃으로 상징한 것이다.

〈법화경〉은 초기 대승불교경전을 대표하고 있다. 이 경을 보면 초기대승불교운동이 얼마나 격렬한 활동을 전개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초기 불탑신앙은 재가불교신자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시대를 거쳐옴에 따라 출가와 재가의 구별없이 혼연한 사부대중이 참여하게 되면서 대승불교운동이 활발해지게 되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일이다. 이 가운데서 새로운 경전의 결집을 지향하는 그룹가운데 혁신적인 신앙운동을 전개한 것이 법화신앙인들이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기존의 소승불교인이라고 하는 성문이나 연각을 얕보는 일없이 모두 대승보살로 인도하려는 의지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 말하자면 일체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념보다는 일체중생이 모두 다 성불한다 라는 초대승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말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라는 대전제를 보여 주는 것이 이 경이다.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고 수많은 보살의 명호를 〈법화경〉에서 읽을 수 있다.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 것은 중생의 수가 무수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시방세계에 충만하시다. 과거세상에도 미래세상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빛으로 충만하다. 〈법화경〉을 읽으면 실로 장대한 드라마를 연상케 된다. 부처님은 세상 안팎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의 마음속에 충만하신 생명이시다. 이 생명의 부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불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부터 '법화회'가 사찰에서 열렸고, 수많은 고승들이 〈법화경〉을 독송하고 연구하여 많은 영험담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이 경을 서사(書寫)하고 마음에 새겨 읽고 외우며 주변인들에게 설법해 주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이들을 '법사'라고 하고, 이 설법하는 분들을 '여래의 사도'라고 하였다.

여래의 사도는 여래의 방에 들어가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자리에 앉아서 사부대중을 위해 법을 설한다. 여래의 방은 자비심이요, 옷은 온유하게 참아내는 마음이요, 여래의 자리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비운 마음자리이다.

〈법화경〉은 중국에서는 천태종의 주요 소의경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삼론종 법상종 열반종 등 모든 조사들이 소중히 하였다. 특히 일본에서는 법화신앙이 큰 주류의 하나로서 〈법화경〉 연구가 크게 성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좀 약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불교인의 신앙관의 저변을 흐르고 있는 큰 맥은 법화신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 원효학회 창립

동국-뉴욕주립대…5월 30일 국제세미나

원효저술의 영역화, 국제세미나 개최 등 원효사상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원효학회(공동회장 송석구 동국대 총장·셸리 스트럼 케니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총장)가 3월17일 창립됐다.

종립 동국대가 미국의 뉴욕주립대와의 협약을 거쳐 창립한 국제원효학회는 △원효학 연구 방법론 제정 △원효학 입문서와 대계 발간 △원효사상의 비교사상적 연구 등을 주요 연구 주제로 채택하고 학회 첫 사업으로 원효저술 영역사업과 창립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원효저술 영역사업'은 〈한국불교전서 제1권〉(동국대 출판부 刊)을 저본으로 번역작업을 벌여 2000년까지 영역본을 출간할 계획. 국제원효학회는 이번 영역작업을 원효사상관련 출판물에까지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5월30일 '원효전서 영역상의 제문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제학술세미나 김영태교수(동국대)의 '원효사상체계'를 비롯해 박성배교수(뉴욕주립대)의 '원효사상의 논리구조' R·버스웰교수(UCLA大)의 '원효 영역상의 난점'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욱〉

"연기·중도사상 인권운동 뿌리"

연기영 교수 논문 '불교전통과 인권…'

동아시아 불교국 사회개혁운동 분석



동아시아 국가에서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신불교운동' '사회개혁운동' 등 인권운동의 사상적 뿌리는 연기(緣起)와 중도(中道)에서 찾을 수 있다는 논문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기영교수(동국대 법학)는 〈사상〉(계간지)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 '불교전통과 인권의 문제'에서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한 서양의 인권사상에 비해 동아시아의 불교국가는 연기와 중도를 통해 공동체적 인권사상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교수는 "카스트제도를 거부한 싯다르타가 깨달은 연기와 중도사상은 현대에 이르러 자비정신과 생명존중으로 발현돼 인도 스리랑카 태국 한국 등지에서 확산된 비폭력·민중·개혁 등의 원동력이 됐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그 자체가 바로 인권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연교수에 따르면 아힘사 정신에서 비롯된 간디(인도)의 불복종운동, 아웅산 수지(버마)의 비폭력운동 등은 자비사상 근간이 된 대중불교운동이며 불교에서 애국심을 찾자고 역설한 암베드카르(인도)의 신불교운동, 아리야라트네(스리랑카)의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 운동, 술락 시바락사(태국)의 사회개혁운동은 개인보다 공동체의 깨달음을 강조한 실천불교운동이라는 것. 연교수는 "70년대 한국의 불교인들이 자주화·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민중불교운동' 역시 이러한 인권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초 불교 사회변혁 수동적"

신규탁교수 '불교와 유가의 윤리충돌' 발표

함허득통 '현정론'서 불교윤리관 옹호



조선이 개국됐을 때 유교가 국가 이념으로 등장하게된 것은 불교가 새왕조건설에 부응하는 이념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신규탁교수(연세대 불교철학)가 연세대 부설 국학연구원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함허득통에 나타난 불교와 유가의 윤리충돌'에서 〈현정론〉에 나타난 불교와 유가의 논쟁을 통해 "불교는 유가의 등장에 논리적 사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초기 유가 지식인들이 불교에 대해 사상적 공세를 취했던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 함허득통은 〈현정론〉에서 유가에서 문제로 삼았던 효·충·술·재물·윤회·화장 등의 14개 항목에서 불교의 윤리관을 옹호했다. 예를 들어 "출가로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불효"라는 주장에 대해 부처님 또한 부모라고 주장하고 유가의 충 논리에 대해서는 "출가자들이 차를 달여 임금과 나라를 축원한다"며 충의 단절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같은 함허스님의 반론은 유교의 윤리체계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불교를 끼워 맞추려고 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

"한 시대를 지탱해 온 불교가 퇴장한 것은 이처럼 새시대에 맞는 이념으로 변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신교수는 "조선이 무너졌을 때 유교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역시 따르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사상사"라며 이런 한계 극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19일 백양사 참사람결사 세미나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지선)가 오는 19일 '참사람 결사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옹스님의 '참사람 서원'으로 시작될 이번 세미나에는 전재성교수(동국대)의 '경전에서 본 참사람' 성본스님(동국대 교수)의 '선에서 본 참사람' 김지견박사(前 정신문화연구원교수)의 '현대사회에서 참사람의 수행방향' 등이 발표되고 최성열교수(조선대) 일수스님(운문선원) 김용관프로듀서(KBS)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0685)92-7502

삼학원 '구사론' 등 강좌 개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 부설 원전전문학림 삼학원이 '97년도 제1기 강좌를 개설했다.

삼학원이 이번에 개설한 강좌는 〈구사론〉〈유식삼십송〉〈화쟁론〉 등이다.

매주 금요일(오후6시)에 개설되는 〈구사론〉의 강의는 이종철교수(정신문화연구원). 이지수교수(동국대)와 김성철교수(동국대)가 각각 강의하는 〈유식삼십송〉과 〈화쟁론〉은 토요일(오후4시)에 격주 개설된다. (02)765-9602

지리산 참 솔 (松葉汁)



예로부터 소나무는 千年을 산다하여 松壽千年이라 했으며 神仙食으로 스님들께서 많이 드셨던 仙食이며, 조계종 전 종정 성철스님께서도 생전에 산수가 수려한 곳의 솔잎을 드셨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근에 솔잎이 각종 순환기 계통은 물론 질병예방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솔잎즙은 송엽(70%)을 영지, 대추, 감초, 검정콩등과 배합 농축한 자연식품으로 체질에 관계없이 현대인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松葉汁은 : 각종 스트레스와 과다한 흡연, 은주로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하신 분, 손발이 저리고 뒷목이 뻣뻣한 경험을 하신 분, 천식 및 잇몸질환으로 인한 구취로 고생하시는 분,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며 고혈압, 중풍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특히 머리를 맑게하여 공부하는 학생에게 좋습니다.

지리산 영농조합법인에서 각고의 노력끝에 정직과 자존심을 걸고 지리산자락 하동군 청정지역 황토 땅에서 氣를 듬뿍 먹고 자란 참솔즙을 소개 하오니 전국 어디서나 남녀노소 누구나 1日 2-3食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판매 지리산영농조합법인 제조 코리안헬스

서울사무소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4-3 (경순BD401호)
공상경합장 (02)247-4667/8 FAX (02)213-3984
B.B. 015-456-8930

우리말 팔리어사전

감수 : 원의범
편저 : 전재성
전 1350페이지 문법집포함 완간
판매처 : 경서원, 여시아문
(기타 취급점 연락바람)

한국불교대학 출판부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484
전화 : (0434)32-0108~9 FAX(0434)534-3950

재가불자전문 수행도량

◈ 이용안내 : 각 신행단체등의 수련법회, 개인수행, 신도수련 법회 일반수행인등,
◈ 편의시설 : 도서관, 세미나실, 강의실, 명상실겸 대중숙소
◈ 특 징 : 산세수려하고 소박한 고로쇠나무의 자생지이며 최소경비의 生居鎭川의 古地

두타산 심신수련마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484
전화 : (0434)32-0108~9 FAX(0434)534-3950

부처님오신날 단청문양 현수막 보급

※ 서울·수도권지역 현수막 설치하여 드립니다. (설치비 별도)
— 초파일 15일전부터 10일전까지 설치(미리 주문하신 사찰에 한해)
■ 90cm×5m 현수막도 있습니다. (35,000원)

불기 2541년 5월 14일 (음)사월 초파일
봉 부 처 님 오 신 날 축
대한불교 조계종 ○○사
■크기/90cm×6m ■가격/40,000원

불기 2541년 5월 14일 (음)사월 초파일
봉 부 처 님 오 신 날 축
○○사
■크기/90cm×8m ■가격/50,000원

불기 2541년 5월 14일 (음)사월 초파일
봉 부 처 님 오 신 날 축
○○사
■크기/90cm×10m ■가격/60,000원

귀의 삼보하옵고 국민적 축제인 부처님오신날에 전국 각 사·암 단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본 감로기획에서는 현대감각에 맞게 제작하였습니다. 현수막은 옥외설치용 장엄물로 불자는 물론 전국민의 시야가 집중된 불교위상의 중요한 부분이라 사료되어 단청디자인으로 제작 보급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리본(수동식·기계식)
50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어깨띠
1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부처님과 함께 하는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 723-4307
FAX.(02)738-8682
■ 온라인 번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광고문의
현대불교 생활정보 광고 효과도 좋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광고주께서 기대하시는 광고효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상품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硏究所

좌골신경통·목,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주·야·七一一·四三七〇·五四三·七三〇六
전문시술원
院長 張三洙 압구정역

간경화·정신질환
神病, 病名없는 病, 완치보장
불교 0552-82-8128,8118
사찰 H.P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보은암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혼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신개발 및 집수성 훈련ISI 소그룹 지도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사찰 및 포교당 안내

사찰안내

10여년 정성으로 살아온 도량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 양도하고자 합니다.
표교와 노후를 위해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연락처 011-279-4600

위 치 : 평택 대로변
서울에서 1시간이내
시장, 터미널, 주요관공서와 10분이내
평 수 : 57평
보증금 : 5000만원
시설비 : 1000만원(최고시설)
연락처 0333)665-6686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평 수 : 30평 (법당, 방2)
■보증금 : 1,000만원(월세 45만원)
■시설비 : 1,000만원
연락처 (0346)68-6553
015-165-4488

■위 치 : 의정부 신곡1동
■평 수 : 35평 2층
■보증금 : 1000만원 월세40만원
■시설비 : 500만원(삼존불·탱화외)
연락처 0351)44-4345

위 치 : 부산 동상동 시장통 사거리
평 수 : 24평
보증금 : 1500만원 월세15만원
시설비 : 가격절충
연락처 051)531-0313
011-851-8224

■위 치 : 천안 신터미널
■평 수 : 40평
■보증금 : 3천5백
최고의 시설·가격절충
연락처 (0418)42-3232

위 치 : 부산 연산동
평 수 : 40평
보증금 : 1000만원
월60만원
가격절충가
철학관도 가능함
연락처 051)740-5070

기 타 정 보

염불 전용 녹음실
●세계 최첨단 디지탈 녹음 장비
(주지스님 염불소리, 신도님들 신심나네)
●염불전용 전통40평 법당완비
●사찰전용 앰프사용법 무료지도
●염불,법문(테이프 카세트)포교에 필요하며 사찰전용(앰프사용법)아셔야만 됩니다.
포교의선실 30년간
대법음사 노심초사 광덕 합장
타종교를 브십시오. 부끄럽습니다.
나라를 살립시다. 불교를 살립시다.
녹음실 문의처 0417)551-1562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창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용각 복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다
• 마산(진전사) 대웅전 문짝 단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단집
• 단양(신진사) 대웅전수미단단집경다경상
• 서울(회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 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檀高工 합장

귀의 삼보하옵고
하이얀 도화지처럼
맑고 깨끗한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수있도록
제작한 불교그림동화(완역) 「깨달음의 세계」 (6배라 빌)및단행본 부처님일대기」가 재판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진, 노력하겠습니다.
불교에 관한 출판 (소설, 시, 수필)및 사찰에 필요한 일반 홍보물등을 의뢰하시면 성심 성의껏 기획·제작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원 TEL.(02)932-6327, 937-5759

백자기 분수대 60% 특별할인판매

전문 도예가 작품
(발해도예, 진홍도예)
大 130,000원
中 100,000원
小 75,000원
낙관 보증서 재중
야간 조명등 부착
건조하고 탁한 공기를
신선하고 부드럽게 바뀌줍니다.
공급처 : K.C 종합상사
☎ 884-0468~9
FAX 889-6705
관악구 신림본동 11-19

천 부 경
81권의 화엄경을
81자의 천부경에
도서출판 바른믿음
☎597-2460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佛子任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선착순 한정본(품)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682-499 조정순
雲藏 法師 禪筆 硏究會
☎ (02)242-0331 · 242-0255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不老化精 안내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환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혹열제(접은해)와 감식초회에 10여종의 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장점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밥에 참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목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如來健康院 合掌
☎ 053)655-2227

보리가족
국제수준의 불교 예술품 생산
불교유통업체 **보리가족**

불교용품 판매를 통해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펼쳐 온 '연(蓮)마트가' 새 봄을 맞아 사세확장과 함께 '보리가족(菩提家族)'으로 다시 태어났다.

상품의 차별화·특성화를 통해 중간마진을 대폭 줄여 소비자에게 염가판매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아래 지난 해 8월 통신판매를 실시해왔던 '연(蓮)마트'는 3월부터 회사명칭을 '보리가족(菩提家族)'으로 변경하고 신제품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불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각종 불사·직물제품·어린이 선물용품 등 불교 제품의 현대화, 개성화, 고급화를 지향, '국제적 수준의 불교 예술품 생산'을 추구해왔던 보리가족은 이미 제품안내 목록을 제작 발송중에 있으며, 사찰 및 불교단체등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불교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보리가족은 신제품 개발을 위해 일본, 대만 등 해외사장조사를 이미 마쳤으며, 올 하반기부터 자체 기획·제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리가족은 특히 불교미술 현대화에 앞장서 온 조선대 디자인 학부 고현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기존 제품의 선별·감수는 물론 고 교수가 자체 연구 개발한 모든 디자인을 보리가족을 통해서만 직접 생산·재품화하는 등 상품의 차별화·특성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위로는 보리심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上求菩提)으로, 아래로는 불교용품을 통한 포교로 사부대중에게 마음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下化衆生)의 정신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회사명칭에 그대로 담은 보리가족은 돈독한 신심으로 향후 교계 유통문화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발원을 세워놓고 있다. (080-789-1011)

공양주 모십니다.
광불사
0415-63-0749

학 생 모 집
▶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역학지도
▶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생활미술
▶ 종무행정 : 상담실무, 상담행정, 생활상담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자격증 (포교사, 법사, 유아지도자, 상담사, 역학사) 취득가능
2. 소형버스 통학가능
3. 충북괴산에서 월 2회~4회 강의(교육청 인가 57호)
연락처 (02)931-6075~6
(0582)535-1987
만대교학대학원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책방 여시아문 특별 판매전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 드리는 마음으로 불서를 포함한 문학, 인문, 교양 서적 등 총 150여 종의 책에 대해 특별 판매를 실시합니다. 특별 판매 기간의 구매 고객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없는 양서들,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십시오.

교양(인문, 사회, 자연, 건강, 취미)

21세기 인간과 공학/김태유 외 16인/7,000원/고려원
잘못 알려진 건강 상식/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1,000원/한울
사람됨의 뜻/이규호/3,500원/제일출판사
말의 힘/이규호/4,000원/제일출판사
도대체 사람이란 무엇인가/손보기 외 17인/6,000원/뿌리깊은나무
김치 한국인의 먹거리/지영하/5,500원/공간
인간은 만물의 척도인가/루번 아벨/3,000원/고려원
세계 환경 정치/개러드 포터/9,500원/돌베개
몬드라곤에서 배우자/윌리암/6,800원/나라사랑
사후생/엘리자베스 퀴블/4,500원/대화출판사
인류의 기원/리처드 리키/6,800원/동아출판사
우주의 기원/존 배로우/6,800원/동아출판사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베르나르베르베/6,500원/열린책들
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5,500원/학민사
한자 똥침 놓기 1·2/잡정로/각5,500원/서울문화사
전파로 본 우주/모리토모 마사키/5,000원/전파과학사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유시주/6,000원/푸른나무
천연의 고독 티베트/락귀훈/6,500원/글나무
과학과 사상(계간)/각권 4,500, 5,500, 6,500원
역사비평(계간)/각권 4,000, 5,400, 6,500원
대우 학술 총서/민음사
세계 사상 시리즈/삼성출판사
인간과 철학 시리즈/예하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윌리엄 바틀사하/6,000원/문예출판사
세속적 인간과 비세속적 인간/라인홀드 니버/4,500원/문예출판사
모국어와 정신 형성/L.바이스 게르버/11,000원/문예출판사
지구는 우리의 조국/에드가 모랭/6,000원/문예출판사
우리의 학맥과 학풍/이한우/8,000원/문예출판사
탁월한 지혜/카프라/4,500원/범양사출판부
가이아/러브록/3,500원/범양사출판부
가이아의 시대/러브록/5,000원/범양사출판부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카프라/6,000원/범양사출판부
카오스에서 인공 생명으로/미셸 웰드롭/12,000원/범양사출판부
재미 세계 여행/베르트 윈도블러/18,000원/범양사출판부
사랑의 학교(상·하)/이원복/각5,000원/사랑의학교
빛깔과 향기가 있는 인간형을 찾아서/이원복/5,000원/사랑의학교
세계 문학 속의 동양사상/김현창/13,000원/서울대출판부
역사의 재조명/한림과학원/5,500원/소화
인도 독립 투쟁/나이르/3,500원/일월서각
한국인의 윤리 의식 연구/정신문화연구원/4,100원
평생 교육 체계와 사회교육/정신문화연구원/4,200원
개인과 국가/정신문화연구원/3,500원
전통적 생활 양식의 연구/정신문화연구원/3,400원

문화·종교

한국인과 일본인1~4/김용 운/각6,500원/한길사
작은 인간/김찬호/9,500원/민음사
문학과 종교의 만남/김영호 외/7,500원/동인
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 구조/김용 운/5,000원/한길사
한국인의 가정 교육/박필수/9,300원/문음사
한국인의 한/최길성/7,000원/예전사
한국인의 사상/고익진/7,000원/열음사
중국 문화의 이해/이수웅 외/10,000원/대한교과서
한국의 조상 숭배/최길성/7,000원/예전사
문화란 무엇인가/크리스 젠크스/7,500원/현대미학사
한국의 나무 문화/송홍선/10,000원/문예산책
한국의 풀 문화/송홍선/10,000원/문예산책
덩신을 도구로 써 주소서/문일석/5,500원/신라원
전세계 가정에서/요한 바오로 2세/5,500원/장락
참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김수환/5,000원/사람과사람
중국 종교와 그리스도교/줄리아칭/7,000원/분도
종교와 상징/이은봉/5,000원/세계일보
인간과 신앙/유원엽/6,000원/교육과학사
종교와 이데올로기/김성건/5,000원/민영사
열린 종교를 위한 단상/오강남/6,500원/열린책들
기적의 역사/신호범/6,500원/삶과꿈
실학과 그리스도교의 만남/김환칭/10,000원/나단
한국의 시원사상/박동숙/8,000원/문예출판사
동양의 명상과 서양의 심리학/존 웰우드/4,500/범양사출판부
주역과 한국 역학/한국주역학회/13,000원/범양사출판부
일본의 불교/김진만/4,200원/소화
일본 문화의 숨은 형/김진만/3,800원/소화
다도와 일본의 미/구마쿠라 이사오/3,800원/소화
불교와 중국 지성사/아서F. 라이트/4,200원/예문지
플라톤과 우파니샤드/바실리스/3,000원/문예출판사
과학과 불교의 실제 인식/염련 윌리스/4,000원/범양사출판부
종교 문화의 인식과 해석/정진홍/13,000원/서울대출판부
강좌 인도 철학/바이소르/4,800원/예문서원
철학적 신앙/칼 야스퍼스/3,400원/이대출판부
종교 사회학/토마스/5,000원/이대출판부
종교 철학/브루스 라이헨빅/12,000원/이대출판부
종교와 인간/서광선/6,000원/이대출판부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임마뉴엘 칸트/10,000원/이대출판부
신비주의와 종교/로버트 엘우드/8,500원/이대출판부
기독교와 마르크시즘/제임스 밴퓨리/5,000원/일월서각
사회주의적 종교 비전/김쾌상/5,000원/일월서각
영겁의 인연/이신재/3,000원/일월서각
선과 아미타경/현재훈/2,300원/일월서각
실천 불교 3, 4/윤호진 외/3,800, 4,000원/일월서각
불교에의 길/현재훈/3,000원/일월서각
유교 정치와 불교/한우근/15,000원/일조각
신라사상사 연구/이기백/12,000원/일조각
고려 후기 불교사 연구/채상식/8,000원/일조각
융 심리학과 동양 종교/융/8,000원/일조각
한국 선사상 연구/한기두/18,000원/일지사
카필라의 아침/레너넌드 헤롤드/2,000원/일지사
조선조 종교 사회사 연구/황선명/9,000원/일지사
한사상과 민족 종교/한기두 외/5,800원/일지사
한국 문화론(현대편, 상고편)/전경수/10,000원 8,000원/일지사
지눌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정신문화연구원/6,000원
율곡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정신문화연구원/9,500원
종교의 철학적 이해/김형석/5,000원/철학과현실사
새로운 불교의 해석/김진/5,000원/철학과현실사

재미있게 읽는 역사

한국사 시민 강좌/각4,000원/일조각
아, 고구려 1/조선일보출판국/6,000원/조선일보
한국사의 주체적 인물들/이이화/8,500/여강
한국사 기행/심경호/6,000원/범우사
삼국유사의 현장 기행/이하석/6,000원/문예산책
이야기 중국사/김학영/6,000원/청아
일연의 꿈, 삼국유사/조성기/5,500원/민음사
환단고기/계연수/6,000원/한뿌리
신단민사/고동영/6,000원/한뿌리
한국 상고 군사사/고동영/6,000원/한뿌리
단군을 찾아서/이형구/5,000원/살림터
단기고사/고동영/6,000원/한뿌리
단군 조선 47대사/고동영/6,000원/한뿌리
규원사화/고동영/6,000원/한뿌리
나라 역사 육천년/안호상/6,000원/한뿌리
신단실기/김교헌/6,000원/한뿌리
이야기 미국사/청솔역사교육원/6,000원/청솔
이야기 인물 한국사/이현희/7,000원/청아
이야기 세계사2/구학서/6,000원/청아
단군/윤이흠 외/15,000원/서울대출판부
한국의 신화/김남규/6,000원/일조각
삼국사기 연구/12,000원/일조각
한국 설화의 유형/조희웅/15,000원/일조각
우리 역사의 여러 모습/이기백/9,000원/일조각

문화 유산의 해 특선

한국의 암각화/한국민속역사학회/15,000원/한길사
한국의 불상/황수영/15,000원/문예출판사
한국의 도자기/정양모/25,000원/문예출판사
한국의 전통 건축/장경호/35,000원/문예출판사
한국 도자기사 연구/윤용이/25,000원/문예출판사
한국 회화의 전통/안휘준/21,000원/문예출판사
한국의 석조 미술/25,000원/문예출판사
북한 사찰 연구/한국불교종단협의회/10,000원/사찰문화연구원
한국 고미술의 이해/김원용/3,500원/서울대출판부
한국의 종/열빙하/25,000원/서울대출판부
한국 가면극/이두현/21,000원/서울대출판부
한국 미술사/김원용 외/28,000원/서울대출판부
한국 불교 음악 연구/한민영/10,000원/서울대출판부
한국의 건축/윤장섭/36,000원/서울대출판부
석불사(토함산의 중각 석굴)/남천우/6,000원/일조각
한국 고대 불교 조각사 연구/2,000원/일조각
한국 미술사 연구/김원용/2,000원/일지사
한국 미술사 자료집성 1,2,3/각 25,000원/일지사
한국 고고학 개설/김원용/7,000원/일지사
한국 미술사 연표/진홍섭/12,000원/일지사
한국 회화사/안휘준/12,000원/일지사
한국 전통 목조건축 도집/2,000원/일지사
한국의 불상/진홍섭/10,000원/일지사
서역 불교 조각사/임영애/14,000원/일지사
금강산도 연구/박은순/30,000원/일지사
한국 불탑 100선/6,300원/일지사
한국 백자 도요지/7,000원/일지사
불국사(한국의 사찰1)/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석굴암(한국의 사찰2)/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신라의 폐사 I (한국의 사찰3)/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통도사(한국의 사찰4)/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범주사(한국의 사찰5)/한국불교연구원/2,000원/일지사
송광사(한국의 사찰6)/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해인사(한국의 사찰7)/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화엄사(한국의 사찰8)/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부석사(한국의 사찰9)/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금산사(한국의 사찰11)/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신라의 폐사 II(한국의 사찰12)/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월정사(한국의 사찰13)/한국불교연구원/2,000원/일지사
낙산사(한국의 사찰14)/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전등사(한국의 사찰15)/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신륵사(한국의 사찰16)/한국불교연구원/2,000원/일지사
북한의 사찰(한국의 사찰17)/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범어사(한국의 사찰18)/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별기/은정희/12,000원/일지사
강릉 단오굿(한국의 굿9)/김선풍/4,000원/열화당
강사리 범굿(한국의 굿11)/하효길 외/3,500원/열화당
거제도 별신굿(한국의 굿16)/황루시/5,000원/열화당
경기도 도당굿(한국의 굿2)/황루시 외/4,000원/열화당
경복궁/이기웅/4,000원/열화당
경주 남산/장윤규/13,000원/열화당
경주 남산의 탑골/윤경렬/3,000원/열화당
고려 불화/문명대/3,500원/열화당
광언(회락의 연구)/김학현/5,500원/열화당
꼭두각시놀이/서연원/4,500원/열화당
덕수궁/이기웅/3,000원/열화당
동양 미술의 감상/문명대 외/5,500원/열화당
동양 미학/토머스 먼로/4,000원/열화당
동양화 일천년/허영환/5,500원/열화당
만다라/김용환/5,000원/열화당
불교 미술/디트리히제켄/8,000원/열화당
석굴암/황수영/4,500원/열화당
장승/이종철/3,000원/열화당
종묘/이기웅/3,000원/열화당
창경궁/이기웅/3,000원/열화당
창덕궁/이기웅/5,000원/열화당
탑/김희경/5,500원/열화당
한국 문양사/황호근/5,500/열화당
한국의 목공예(상)/이종석/9,000원/열화당
한국의 나무탈/심이석/7,000원/열화당
한국의 목공예(하)/이종석/9,000원/열화당
한국의 불화/문명대/5,000원/열화당
한국의 장승/이상일/1,500원/열화당
한국 조각사/문명대/9,000원/열화당

문학(시, 대하·역사 소설)

백두산/고은/3,500원/창비
풀꽃은 꺾이지 않는다/조태일/창비
바다의 눈/김명수/3,500원/창비
다시 그리움으로/박재삼/4,000원/실천문학
늙은 산/장용철/4,500원/실천문학
소설 남/김지하/각4,500원/솔
토지/박경리/각7,000원/솔
대한제국침략사/고원정/각2,500원/현암사
임꺽정/홍명희/각4,500원/사계절
우암 송시열/홍경호/각5,000원/신구미디어
한국지/김정산/각 6,000원/민예당
백두산/최병탁/각4,800원/두로
정관정요/나채훈/각5,000원/한림원
활제내경/강영수/각5,000원/명성원
혼불/최명희/각6,000원/한길사
삼국지/나관중/각 5,500원/민음사
아리랑/조정래/각6,300원/한길사
소설 천자문/박소천/각5,000원/현일사
대원군/유주현/각4,500원/신원문화사
퇴마록/이우혁/각5,000원/들넘
소설 고구려2/고향역사소설편집위/4,500원/참빛
조선왕조(상)/고향역사소설편집위/4,500원/참빛
수호지/이문열/각5,000원/민음사

어린이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 시리즈/정상구/3,800원/서광사
우리들의 환경 파수꾼/김용근/4,800원/푸른나무
푸른별의 환경 파수꾼/문명식 외/4,200원/푸른나무
명태 선생님의 환경 교실/김용근/4,200원/푸른나무

책방 여시아문의 통신 판매 서비스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통신 판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로 주문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라도 즉시 보내 드립니다.
(무송료 책방 부담)
전화 (02) 737-0695, 732-1521 팩스 (02) 737-0696
온라인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6-21-0569-439 예금주 조동규
서울은행 15504-3385504 예금주 조동규
농 협 053-01-226498 예금주 조동규

본사·종단협 소비자위 '맑고 향기롭게…' 공동

'지상알뜰시장' 연다

재활용 불교·생활용품 무상 연결
무절제 풍토 억제…소비문화 계도



카터 前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때 카터부인이 입고 나온 드레스는 6년 전 주지사 당선때 구입한 '중고품'이었다고해서 화제가 됐었다. 카터부인이 검소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서양 사람들의 중고품에 대한 의식을 알 수 있었던 일이었다. 캐딜락을 타고 망사 본닛으로 가린 상류사회의 부인이 중고품 브레지어를 들고 가슴에 맞추어 보는 광경, 서양의 벼룩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종단협 소비자보호위(위원장 효강)와 맑고향기롭게운동본부(본부장 법정) 공동으로 교계 최초의 지상 '알뜰재활용시장'을 개설한다.

알뜰재활용시장은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아나바다운동)' 과정을 통해 무절제한 소비를 지양하고 검소하며 건강한 소비문화를 창출해내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더 나아가 불자 공동체정신을 부흥하자는 운동이다.

불교계는 그동안 경불련 및 몇몇 사찰에서만이 폐유비누를 제조해 배포하거나 바자회를 여는 등 중고품 재활용에는 소극적이었다.

알뜰재활용시장에서는 사찰이나 불교단체, 가정에서 나눠 쓸 수 있는 불교용품, 생활용품 등을 무상으로 연결시켜준다.

요즘 가정에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갖다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웃돈까지 주어가며 쓸만한 중고물품을 버리는 실정이다. 그러나 불교계 곳곳에서는 어려운 여건에 쓸만한 사무용품, 학습용품 하나 구입하지 못해 애쓰는 경우도 적지않다. 알뜰재활용시장은 이같은 고민해결에 일조할 것으로 본다. 또 3개월마다 특설 알뜰재활용시장을 열어 기획물품전 등 다양한 알뜰시장의 면모를 보여줄 준비도 하고 있다.

이용방법 1. 대상물품: 재활용 가능한 불교용품 및 생활용품(헌옷, 냉장고, TV, PC, 걸상, 영어카세트테이프, 장난감 등).

2. 가격: 물건을 내놓는 측과 구입하려는 측의 조정으로 정해진다. 물물교환도 가능. 또 무상으로 기증되는 물품은 희망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3. 접수방법: 옷, PC, 냉장고 등 중고물품을 알뜰재활용시장에 내 놓고자 하는 사찰이나 단체, 가정에서는 본사나 종단협 소비자보호위, 맑고향기롭게운동본부에 물품종류, 상태, 기증시기, 연락처 등을 알려주면 된다. 구입방법 또한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종단협 소비자보호위(02)3452-7485
- 맑고향기롭게운동본부(02)741-4694

◇3단체 공동으로 여는 알뜰재활용시장은 '소비는 미덕이다'라는 구호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건전한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물품수거 및 배달: 방문기증 또는 한달에 한번 일괄수거. 단, 구입자는 직접 가져가거나 운반비를 부담할 경우 운영본부에서 택배로 우송한다.

도필선 기자

사찰·단체서도 '어린이 과외 지도'

석왕사·선재마을 등 컴퓨터 미술 인성교육
결손가정·맞벌이 자녀 포교…탈선예방 효과

복지관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After School)이 조계사 석왕사 선재마을 등 사찰과 단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방과후 아동프로그램은 결손가정 자녀나 저소득 맞벌이부부 자녀들에게 방과 후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호하고, 학습·정서지도 집단활동 등의 교육적 처치를 통해 인성교육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

이미 시범운영 중에 있는 석왕사(주지 영담)는 초등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영어 컴퓨터 구연동화 미술 서예 풍물 글쓰기 등을 가르치고 있다. 또 선재마을(지도법사 유지선)은 초등학생 5명에게 한문 미술 심성훈련 등을 지도하고 있다. 조계사는 어린이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오는 5월 중순 문을 열 계획이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아동프로그램은 새싹불자의 포교 및 탈선방지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또 보육비를 간식비 교재비 문구구입 등 실비에 한하고 있어 일반 복지관 및 단체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효율적인 아동교육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지선법사는 "아동중심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정서학습, 더 나아가 어린이 불자포교를 위해 방과후 아동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10~15명까지 모집인원을 확대,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

위생장독덮개 **특수유리 빛 분산…위생통풍로도**

새상품



신선한 장맛을 유지해주는 '위생 장독덮개'가 나와 주부들의 시선을 끈다.

이 덮개는 투명한 특수 유리에 볼록렌즈 5개를 적절한 위치에 부착하여 빛을 균형있게 분산시켜 줌으로써 장이 골고루 발효되도록 설계됐다. 또 통풍로를 설치하여 벌레나 곰팡이가 잘 나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종전의 장독덮개처럼 날씨에 따라 덮개를 여닫는 불편을 없앴으며 항시 덮어둘 수 있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일석이조의 역할도 하고 있다. 덮개는 크기에 따라 3종류가 있으며 가격은 1만원~2만원.

유창상사(02)889-3067

건강과 식품 〈2〉

조리와 영양

닭고기 생선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어류와 거기에 공존하는 기름 당류 같은 성분여하에 따라 유독성물질의 종류와 생기는 양이 달라진다. 그러나 조리온도가 독성물질 생성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대표적 우리나라 음식인 불고기와 갈비구이의 경우 필요이상의 과열로 인해 그슬리거나 탄 상태의 것을 먹어서는 안된다. 물질이 탈때 생기는 진(타르)이나 검댕이 속에 흔히 들어있는 다핵환탄화수소류(PNH)가 발암성 물질로 일찍이 주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식품조리 중 단백질에서 생기는 헤테로고리아민(HCA)류도 있다.

상거래나 사교상 갖게되는 외식 술자리에서 그슬린 불고기, 갈비구이 안주를 들게되는 기회가 많아진 청장년의 남성에 있어서 탄고기와 그 국물을 먹게 되는 일이 많다. 그때 우리는 아무런 위기의식없이 PNH, HCA말고도 고기나 기름이 과열돼 매운 연기성분을 내는 아크로레인을 섭취하게 된다. 고기색깔을 빨간 색으로 곱게하는 방부제인 아질산 나트리움을 연육제로써 첨가한



탄음식 발암물질 함유
방부제 쓴 육류
유전자 변이물질 생성

고기에서는 니트로사민 등 유전자 변이물질이 생길 가능성 또한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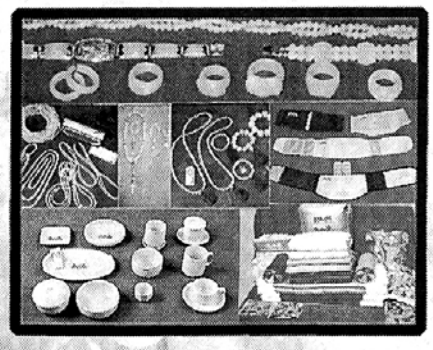
후각과 미각을 북돋아 식용과 소화를 돕고 위생적인 목적에서 하는 조리가 발암성 물질의 합성과정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이같이 영양을 취하고 식욕을 만족시키는 즐거움이 독약을 먹는 음독 사례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다. 26개 OECD 가입국 가운데 우리가 각종 암 사망률, 40대 남성 사망률이 세계 제일이라는 통계가 발표됐다. 이같은 결과는 스트레스 과로 등의 원인도 있지만 잘못된 식문화로 인해 초래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곰쓸개나 독탕을 못 먹었기 때문일까. 우리사회가 도덕 위생 환경 식문화 등 총체적으로 문화수준이 낮은 탓이라고 자책만 하고 있기에는 여유가 없다.

이태넝 〈서울대 명예교수·화학〉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천연옥산가옥의 신비!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내 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찌릿찌릿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내몸-부처님도량, 이 가람을 청정하게 가꿉시다 (SOD, 청혈작용 때문에)
★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체내노폐물 제거 때문에)
★ 현대인의 불안, 초조, 신경질, 홧병 또는 노화방지에… (뇌내 모르핀 활성화 때문에)
★ 장타력, 집중력, 골프머리가 잡히 갑니다. (조금의 차이도 1타를 이깁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만을 꼭찝어서 사이만 효과가 있습니다.

玉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회입력



우산가 옥이 희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천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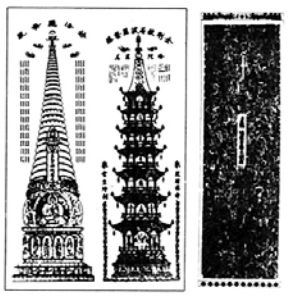
대구여래한방

"佛塔다라니로서 스님과 불자들이 실제 겪었던 영험 사례집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를 사용하면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는 것일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깔아주고 덮어주어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금강경 탑다라니. 이 불탑다라니를 현세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을 찾고 소원을 성취하고 일체재해를 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스님들이 방편으로 시도해보았던 불탑다라니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이세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은 규명하고자 하기보다는 한가닥 의심없이 믿고 행함으로서 실제로 체험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진실로 믿거나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100% 경면주사를 사용하여 조성한 금강경 신탑다라니와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지장보살본원경 사경본의 위신력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3000여 사암에서 주로 스님들을 통하여 불자들에게 보급되어온 본회의 불탑다라니는 사용한 불자들의 대부분이 한결같이 그 불가사의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을 직접체험 하였다고 스님들이 진해옴으로서, 본회에서는 그 사례들 중에서 대략적인 것만 모아 책자를 만들어 인연닿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비의 불탑다라니와 지장보살 본원경"



■고급 한삭금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인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기로)63cm×(세로) 160cm

스님들께는 : 스님용책자와 신도용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스님용책자내용

1. 본회의 금강경 신탑다라니에서 계속적으로 방출된 신비스러운 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운세와 길흉화복을 80%이상 적중시킬수 있는 기(氣)테스트 방법 수록.
2.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 소원이 성취되는 불탑다라니 사용방법과 상세한 처방전.
3. 지장경 사경본을 이용한 조상대대 친족연족 일체지영가 천도방법.
4. 수자영가를 각각 불명을 지어 확실하게 천도시켜 주는 방법.
5. 불탑다라니로서 조상님의 산소를 후손이 발복하는 명당자리로 만들어 주는 방법.
6. 이름없는 영가의 불명짓는 방법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불탑다라니는 로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하는데 일조하고, 소원을 성취시키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또한 조상령과 수자영가인 낙태아, 자연유산아 사산아등의 원혼들을 불명을 지어 위패를 안치시켜주므로서 확실하게 천도시켜 주는 방법등을 제시해드림으로서 다소나마 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
2. 대학입시생을 둔 학부모.
3. 각종질병이나 원인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분.
4. 정신질환이 있는 분.
5.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분.
6.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
7. 삼재나 관재가 있는 분.
8. 집안이 이상하게 시끄럽거나 잘안풀리는 분
9. 고시나 승진시험을 앞 둔 분들은 꼭 받아보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종단소식

조계종

18일 사찰 사무장 교육

총무원은 18일 오전 10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사무장 교육을 실시한다.

종단 산하 일반사찰 사무장 및 경리직원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종무행정, 사찰예결산 및 회계처리방법, 재산관리방법, 전법의 해 및 봉축행사 관련사항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동화사 신도회장 최동원씨

대구광역시 신도회장 이취임식 및 제9교구 동화사 신도회장 취임법회가 10일 낮12시 동화사 통일대전에서 거행된다. 중앙신도회 출범으로 제9교구 초대 신도회장을 맡게 된 최동원회장(여, 73)은 김향린회장의 뒤를 이어 대구광역시 제6대 신도회장도 겸하게 된다. 현재 최회장은 동원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덕여왕숭모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태고종

1천4백여 사찰 등록

태고종 소속 2천여개 사찰중 70%인 1천4백여개 사찰이 종단 사찰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 재등록 마감시한인 지난 3월31일까지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에 등록한 사찰은 서울·인천·경기교구 소속 6백여개 사찰중 45%인 2백70여개 사찰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강원·충북·전남 등 전국 11개 교구의 경우 산하 1천4백여 사찰중 80%인 1천1백30여개 사찰이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불교대 포교사품수

강원불교대(학장 백운)는 3일 제8기 입학식 및 포교사 품수식을 거행했다.

1년과정의 8기 입학생은 모두 2백10명이며, 3년 과정을 수료한 33명이 포교사 자격을 품수받았다.

천태종

삼룡사 20주년 기념법회

서울 삼룡사(주지 경천)는 지난 6일 사부대중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또 진도 삼성사(주지 징궁)는 지난 8일 1백20평 규모의 대법당 기공식을 가졌다.

3사단 통일기원 점등식

총무원은 25일 오후 3시 육군 3사단 멀공OP에서 '통일기원 호국광명등 점등식'을 봉행한다.

이날 점등식은 타종에 이어 사단장 인사,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 다과회 순으로 진행되며, 금강불교대 합창단과 서울지역 사찰의 신도 2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충북 증평 태화사(주지 세은)는 관음보살상 봉불식을 봉행한다.

진각종

총인원서 춘기 스승강공

춘기 스승강공이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간 총인원에서 개최된다.

창종 50주년을 맞아 진각종조 회당 대종사의 창종정신을 상기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교화방법 확립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스승강공은 '진호국가 불사로서 변혁의 바탕 세워가자'를 주제로 모두 2백여명의 정사·전수가 교육에 참가한다.

25사단 509 OP점등식

통리원은 15일 오후6시 육군 25사단 509OP에서 점등식을 봉행한다.

통리원장을 비롯해 종단 주요 간부 등 모두 1천여명이 참석하는 이날 점등식은 사단장의 환영사에 이어 통리원장의 봉축법어, 여군하사의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 순으로 진행되며, CCTV카메라 등 각종 위문품을 전달한다.

불정심인당 헌공불사

대구교구청 불정심인당(주교 회성정사)은 18일 오후 1시 심인당 신축을 축하하는 헌공불사를 봉행한다.

이번에 낙성식을 갖는 불정심인당은 연 건평 3백24평으로 지하포함 3층 건물의 심인당과 2층 건물의 사택이 마련됐다.

일붕선교종

고성 약수암 괘불점안

강원 고성 금강산 약수암(주지 보해)은 13일 약수암 괘불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이번에 봉안되는 괘불은 만봉스님(무형문화재 제48호)이 조성했다.

알림 본지 20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02)737-0698





◇3월 30일 양주군 천보산 산불로 회암사지 선각왕사비(보물 제 387호)가 완전 파손됐다. 사진 오른쪽은 원래 모습.

천보산 나옹선사비 소실

산불로 보호각 무너져…문화재 관리 허점

천보산에서 3월 30일 발생한 산불로 회암사지 선각왕사비(보물 제 387호)가 완전 파손됐다. 이날 산불로 선각왕사비 목조 보호각이 불길에 휩싸여 무너지면서 기둥과 기와가 탑비로 쏟아져 비신과 상륜부가 완전 파손됐다.

피해를 입은 선각왕사비는 높이 3.06m 너비 1.6m로 '선각'이 시호인 나옹화상을 추모하기 위해 고려 우왕3년(1377) 회암사에 세워졌다. 이 비의 비문은 고구려 광개토왕릉비이후 최초로 예서가 쓰였으며 당비(唐碑)의 형식을 닮은 복고풍으로 비신 상부에 쌍룡을 조각했다. 특히 그동안 보존상태는 매우 좋은 상태였다.

한편 초속 5~8m의 강풍을 타고 회암사(주지 인묵)쪽으로 번졌던 산불은 6시간동안 인근 임야만 전소했을 뿐 사찰에는 피해가 없었다.

표충사 발굴유물 공개
금동여래입상등 51점

통일신라시대의 금동여래입상이 발견된지 1년7개월여만에 성스럽고 화려한 본모습을 찾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는 95년 6월 경남 밀양시 표충사 3층석탑(보물 467호)에서 나온 금동여래입상(사진·높이 11.4㎝, 폭 2㎝) 등 총 51점의 유물을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거쳐 지난 3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유물은 불상 19점과 청동 7층소탑 1점 등 51점으로 한 탑에서 다량의 불상이 시대별로 발견되기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지방소식

원각사 찬불가 경연

광주 원각사 불일청년회(회장 김종주)는 지난 3월 28일 1백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시진〉

이날 행사와 관련 김종두회장은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고 찬양함으로서써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부서간의 화합을 이루고자 찬불가 경연대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9개팀이 출전하여 그동안 틈틈이 익힌 찬불가 경연대회에서 1등은 가섭부, 2등 선정부 3등은 목건련부가 차지했다.〈광주=주용직 지사장〉

사찰 창건연대 바로잡기

전라남도는 올해 주요사찰의 창건연대 바로잡기, 목조 문화재감정관실 설치, 해외 유출문화재 파악 등 문화재지키기에 적극나설 계획이다.

백제 패망이전 창건됐음에도 신라연호를 사용하고 있는점 등 문제점을 감안, 전라남도는 최근 도내 4백65개 사찰대상으로 창건연대 바로잡기 조사에 착수했다.

또 문화재연구소건립과 불교미술전시회 등 문화행사 개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동 영국사 복원

법주사와 함께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고찰인 충북 영동군 천태산 영국사(주지 청원)가 옛 모습을 되찾는다.

영국사는 올해 영동군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지원받아 대웅전 및 요사채의 보수공사를 시작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옛 금당터를 발굴조사하여 그 자리에 예전 모습대로 대웅전 건립불사를 벌이게 된다. 또 선원 및 명부전을 건립하는 한편, 만세루를 복원한 뒤 축대를 확장하고 도량의 조경을 완성하면 영국사는 10년안에 예전 모습대로 돌아가게 된다.

제주 연합합창단 창단

제주불교계 합창단의 쌍벽을 이뤘던 바수바라밀다합창단(단장 문영자)과 관세음합창단(단장 채정희)이 통합, 연합합창단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92년 여불련, 관음사 부설로 각각 창단한 바수바라밀다·관세음합창단은 지난 3월 28일 모임을 갖고, "전문합창단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통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모임에서는 (가칭) 연합합창단의 초대회장에 문영자 前 바수바라밀다합창단장을 선출했다.

"해인사의 모든것 세계유산"

유네스코 유적조사관 실 바 내한



지난 95년 우리나라를 방문해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조사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킨 바 있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스리랑카지부 사무총장 실바씨가 3월 31일 내한했다. 지난 3일 실바씨(53)를 만나 골프장 건설로 훼손 위기에 있는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관전을 보존하기 위한 그의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해인사 부근의 골프장 건설로 팔만대장경과 관전이 훼손위기에 처해 있다. 온전히 보존키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한국인 보호의무…골프장건설땐 파괴"

야 하나.

△골프장이 생긴다는 것은 해인사 주변의 울창한 수림을 파괴시키고 결국 헐벗은 곳으로 만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풍향을 변화시켜 주변의 생태환경을 교란시킨다. 세계유산은 단지 장경판전만이 아니다. 해인사의 모든 것을 지정한 것이다. 해인사를 보호하는 것은 한국인의 의무이다.

-해인골프장 사태는 현재 사업주의 재산권 행사가 우선이냐, 문화유산의 보호가 우선이냐가 쟁점이 되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정부와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 나의 분명한 견해를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유네스코는 팔만대장경과 관전이 오래도록 보존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문화유산에 위험이 나타날 때 유네스코가 적극 대처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그랬다. 세계유산이란 한 국가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인류가 공유해야 할 자산이다.

-문화유산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95년 한국을 방문해 대장경과 관전을 처음 보면서 '통일된 하나의 세계'라는 강한 충격을 체험했다. 6백여년 동안 날씨가 변하고 사회적 격동을 겪으면서도 유지된 것은 이들 유산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인간적인 요소 때문이다. 유산에 담긴 선조들의 철학은 후손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정성운·오종욱 기자

"수몰위기 인각사 살리자"

하이텔 토론방 의견 빗발…서명운동도

수몰위기에 처한 인각사를 살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이텔이 3월 29일 인각사를 살리자는 토론방을 개설한 이후 지금까지 119건의 의견들이 올라오면서 서명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종민씨(하이텔 8949)는 토론방에 올린 글에서 "좀더 좋은 물을 먹자고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역사의 땅을 덮어 버린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혼을 팔아 먹고 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혜숙씨(하이텔 kaya)는 "수백만 대구 시민과 사찰 하나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라고 물을 사람도 있겠지만 수백만 대구시민이 중요하기에 사찰 하나 계곡 하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마음 가장 보람있는 농사

붓법은 맛가지 맛이 나는 과일이요 맛가지 향기가 나는 꽃이다. 그리고 수행자들은 그런 과일을 키우는 농부요 그런 꽃을 재배하는 정원사라 할 수 있다. 모든 생산중에서 가장 맛이 나고 해롭맛한 생산, 모든 농사 중에서도 가장 보람있는 농사가 바로 붓법 수행이다.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부처님오신날 설법자료, 법보시책자 보급안내

스님이 들려주신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크기/신국판(15.2cm×22.3cm) 80페이지
■ 정가/1,500원

스님이 들려주신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봉축법요의식, 부처님오신날의 의미, 부처님의 탄생이야기, 등공양의 유래와 공덕, 관불의식의 유래, 봉축법문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사찰에서 초파일 법회 홍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초파일 전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봉축법요의식
부처님오신날 봉축 발원문 1·2
연등공양 발원문/어린이 봉축 발원문
봉축시 1·2/팔상예문(八相禮文)
제2부 이야기 하나
흰 코끼리의 꿈/어린왕자 싯다르타의 탄생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새벽 별…큰 깨침
생명의 고향 열반으로
이야기 둘
부처님오신날 등을 켠다
만개의 등, 하나의 등
온 겨레의 잔칫날, 사월 초파일/등 공양의 유래
연꽃 등 밝히며, 거리를 밝히며
이야기 셋
초파일 아기 부처님께 길상수 부으며
관불 의식의 유래
제3부 봉축법문
봉축법어 1-무우수꽃 피는 룸비니동산
봉축법어 2-하안연꽃 피어나라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맨 뒷장에 법보시자 명단을 넣어드립니다

◈ 온라인 번호 ◈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크기/신국판 64페이지 ■정가/1,500원

연등공양 이야기
부처님의 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생애를
출생, 출가, 성도, 교화, 열반 편으로
나누어 신도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며,
초파일 봉축법회때
신도님들의 불심을 돈독히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크기/신국판 72페이지 ■정가/1,500원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 723-4307, FAX.(02)738-8682

'대체가정' 복지시설 호평

구로복지관 시범운영…양로원 기피 대안책

양산 자비원에서 생활하던 유완근 할아버지(72)는 최근 서울로 올라와 직장을 구하고 있다. 유할아버지는 "자비원에 있으면서 아무런 불편이 없었지만, 시설에 수용되다보니 나태해지고 측은한 생각만 들게 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노령이어선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자비원으로 다시 들어가야할 처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로복지관(관장 도후·신홍사주지)이 시범운영중인 대체가정(재가복지시설) '노인의 집'에서 생활하는 최인덕 나금선 이종숙할머니들은 단독주택에서 새롭게 가정을 꾸려 식사준비등 간단한 집안일도 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있다. 할머니들은 이곳에 오기전까지 돌봐주는 사람없이 혼자 외롭게 살아왔던 무의탁 노인들로 현재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생활이 노인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로서 미흡하게 여겨지는 반면 가족형태운영이 호평을 받고 있다.

이같은 재가복지시설은 주택가에 위치해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나 청·장년 어린이를 한 가족으로 묶는 형태의 '대체가정'은 복지시설 입소를 꺼려하는 어린이 노인들에게 그동안 느끼기 어려웠던 가족간의 사랑등 정서적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다. 고아원에 보내질까봐 아버지 시신과 열흘동안이나 지냈던 최모군(12세 서울D초등학교 6년)이 생활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SOS마을은 어머니격인 보모와 7~8명의 고아들이 형제 자매로 가족을 이루고 있다.

통계청의 95년 인구총조사결과 65세이상 고령자 단독가구는 2백18만2천가구로 전체일반가구중 16.8%를 차지하며 2천년에는 노인인구가 7.1%로 고령화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또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도 1만 7천여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김덕곤씨는 "가정적인 분위기의 재가복지시설 위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혀 교계도 복지수용시설의 형태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불교교양대 인가제 내년실시

조계종, 학제2년 이상등 기준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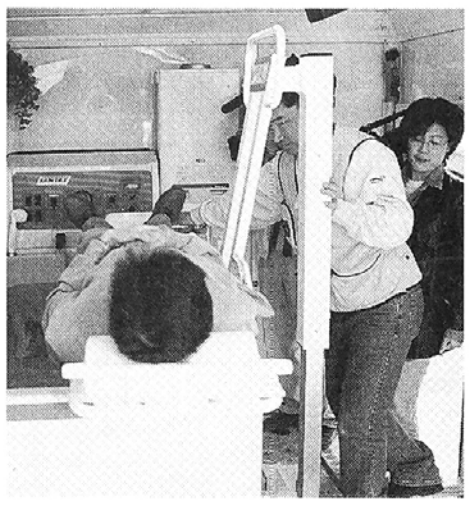
불교(교양)대학 인가제가 실시된다.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2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종단등록 불교(교양)대학 대표자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불교대학 인가제 실시방침을 밝혔다.

포교원이 이날 발표한 인가기준(안)은 학제 2년 이상, 필수교과목 지정, 5인 이상의 강사진 확보, 30평 이상(법당 포함)의 학사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필수교과목은 불교입문 부처님생애 신행 포교방법론 상담심리학 등 11개 과목이다.

불교대학의 인가제 실시는 양질의 교육을 통한 포교사 배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불교대학에서도 줄곧 포교사 남발억제책 마련을 포교원에 건의해 왔었다.

포교원은 인가한 불교대학에 대해서 졸업시 포교원장과 해당 대학장 공동명의의 졸업장 수여, 포교사 응시 때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불교대학의 종단등록 기준도 기존의 6개월 학제를 1년으로 연장하고 필수교과목 개설, 학생수 50명 이상, 대학의 설립자 이사장 학장중 1명은 조계종 소속스님으로 하는 등의 기준안을 발표했다.



◇길음복지관은 이동목욕차를 이용 노인·장애인에게 정기목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신나는 목욕탕' 불러주세요

길음복지관, 노인·장애인 대상 차량서비스

"장기간 와병생활중이거나 중증장애환자들은 '신나는 목욕탕'을 불러만 주세요."

혼자서는 목욕이 불가능했던 환자들에게 무료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제작 이동 목욕차 '신나는 목욕탕' 시연회가 3월31일 오후 2시 길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에서 개최됐다.

길음복지관 '신나는 목욕탕'은 장기간 와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의 위생청결상태를 유지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나는 목욕탕은 한국형 가옥구조로 설계, 중증환자용 들것, 차량용 자동리프트를 이용 환자를 가정에서 차량으로 옮기는 불편을 덜어준다.

또 목욕이 끝난뒤에는 신체소독과 함께 상처부위 치료도 해주는 전자동 목욕차량이다.

신나는 목욕탕에는 온수는 물론 보디샴푸 소독용 오일등이 자동 공급되는 자동목욕기가 설치돼 신체와 머리 치아등을 깨끗히 씻겨준다.

신나는 목욕탕 이용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서 보호자의 도움없이는 목욕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길음복지관(985-0165)은 목욕대상자들의 신청접수를 받아 1주일에 1번의 목욕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금강대등 3곳 단설대 설립신청

교계 5개교로 늘어

천태종(총무원장 운덕) 금강학원 금강불교대와 능인선원(원장 대광) 능인불교선양원, 학교법인 금화학원이 지난 3월말까지 신청 시한인 단설대학 설립 신청서를 교육부에 접수시켰다.

금강불교대는 충남 논산에 학교부지를 마련, 2천년 개교를 예정으로 입학정원 1백명(총정원 4백명)에 불교, 동양철학 2개학과를 개설한다. 또 능인선원은 경기 화성에 입학정원 50명(총정원 2백명)의 불교학과를 개설, 98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금화학원 역시 2천년 개교를 예정으로 불교, 일문, 영문 등 10개학과에 입학정원 4백명(총정원 1천6백명) 규모로 부산에 설립한다.

이로써 불교계에서 설립예정인 단설대학은 지난해 신청한 태고종 동방불교대와 학교법인 보문학원의 한국불교대학원대학을 포함해 대학 4개 및 대학원 대학 1개 등 모두 5개교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6월말까지 학교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내년 3월 개교예정인 대학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인가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전사법 자율성 역행"

전불련, 종교법인법 주장

개정 전통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이 사찰의 자율적 관리능력을 위축시켜 시대에 역행하고 있어 종교법인법의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사법 개정의 문제점과 종교법인법의 전망'을 주제로 8일 열린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선) 토론회에서 "개정전사법은 불교자율성을 규제하는 조항이 강화됐다"며 불교계의 권익을 위해서는 전사법을 폐지하고 종교법인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제시했다.

BBS 이사장 직무대행 영담스님

긴급이사회 사장직대 서돈각·전무 권오현씨

종하스님 1억 변제 밝혀

불교방송 긴급이사회가 4일 열려 이사장 종하스님과 조해형사장의 사임을 결의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에 영담스님(석왕사 주지), 사장직무대행에 서돈각 진흥원이사장, 전무에 권오현 진흥원사무국장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이날 종하스님은 기자들에게 "공금인줄 모르고 이사출자금으로 냈던 1억원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스님의 이사출자금 1억원 문제는 2일 불교방송前 총무국장 이태호씨가 자청한 기자회견 과정서 드러났었다.

이씨는 "재단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94년 12월20일 불교부산방송의 성금이 들어오던 한 일은행 신바람통장서 1억원을 인출, 송병욱 상무를 통해 이사장에게 전달했으며 23일 김선도씨를 통해 1억원을 은행통장으로 돌려받았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병욱 前재단사무국장은 "이태호씨로부터 받은 1억원은 보시금이며, 23일 김선도씨에게 재단이사장 출자금 명목으로 줬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위원장 여연)는 'BBS 공금횡령사건의 진상과 원인' 주제의 공청회를 8일 불교회관 1층에서 열었다.

청소년 헌혈행사 전개

파라미타, 18일~초파일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스님)는 18일 동대부고에서 6백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헌혈행사를 시작으로 부처님오신날까지 전국적인 헌혈운동을 벌인다. 또 이번 행사에서 수거된 헌혈증은 나눔의 집 정신대할머니, 극빈환자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파라미타 헌혈행사는 전국 1백69개 분회 9천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청소년들에게 사신공양(捨身供養)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두 사무국장은 "헌혈은 불교의 '불살생(不殺生) 정신의 적극적인 실천방법"이라며 "학생들에게 헌혈운동이 생명공양운동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소년 범죄예방연맹 법사중심 24일 창립

(사)한국불교청소년범죄예방연맹(가칭)이 24일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강당에서 발족된다.

동연맹은 재가법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2백여명의 발기인이 참여하고 있다. 연맹은 출범후 매월 1일과 말일 '범죄없는 날'과 '참회하는 날'로 정하고, 범국민을 상대로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또 유치장 및 군부대 일일입소등 체험을 위주로 한 청소년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목탁소리

무산된 대장경판 전시회

이 경 숙 〈취재2부 부장〉

해인사는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팔만대장경의 소중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백문이 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 시킬 좋은 기회를 무산시켜버렸다.

해인사고려대장경연구소가 주최하고 삼성미술재단 주관으로 오는 5월1일부터 27일까지 호암갤러리에서 팔만대장경판 전시회가 계획됐었다. 이 전시행사는 문화유산의 해인 올해를 빛내는 가장 두드러진 전시가 될 듯 보였다.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우리의 지혜와 기술문화의 우수성을 가장 배어나게 상징하고 있는 팔만대장경판을 직접 볼수 있는 기회가 어디 그리 쉬운가.

전시도 원래 두 주일만 하기로 됐었으나 팔만대장경의 국보적 가치를 중히 여긴 미술재단측에서 직전 전시를 앞당기고 뒤 전시를 늦추고 하여 한달간의 기한을 만들었다. 법보종찰 해인사로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의 가치를 크게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왜 전시계획이 취소되었는가. 대장경판과 해인사유물 수십점이 나오는데 혹시 도난이나 훼손등에 대한 해인사 대중스님들의 우려가 첫번째 이유라고 한다. 그렇다면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이제 성보문화재도 그저 잘 보관만 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국민속에 살아있는 문화재로서의 적극적인 활용방법이 모색,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팔만대장경은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지만 해인사만의 것이 아니라 전 불자의 것이고 국민들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현불뉴스

조계종종회 15일부터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는 15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불교회관 1층에서 제1백26회 임시종회를 연다. 이번 종회는 성원미달로 지난 3월 29일 폐회된 1백25회 종회에서 이월된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선본사 직영사찰 해제 요청 △불교방송사태 진상조사 특위 구성 등 20여개 안건이 재상정됐다.

'좋은일하는 사람모임' 창립

정의롭고 맑은 신명나는 사회 만들기를 서원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사장 월운스님)'이 4일 의정부 중앙빌딩 4층에서 창립됐다.

월운스님(동국역경원장)을 비롯한 의정부시 관내 40여명의 출·재가자들이 동참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종단 종파를 초월하여 포교복지 문화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간병인제도 활성화, 소년소녀가장 장학사업, 노인 직업알선, 극빈자 돕기 등이다.

전불련 불교자주화 기원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선)은 3월2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2백여명의 재가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종단개혁 3주년 불교자주화 기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조스님(불국사 주지)은 법문을 통해 "종단개혁 3주년을 맞아 의미를 되새겨 현재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도록 모든 종도가 노력해 가자"고 강조했다.

LA동국-로얄대 설명회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8일 90주년 기념문화관 세미나실에서 미국 LA의 '동국-로얄대학교'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국 LA 로얄 한의과 대학교 및 부속한방병원을 인수한 동국대는 14일부터 원서교부 및 접수를 시작하는 등의 학생모집 및 학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소개했다.

위덕대 내년 특차 30%로

위덕대학교(총장 손제석)는 수능성적만으로 특차전형을 실시하며, 특차 모집인원도 97년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등 98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을 3월 25일 확정 발표했다.

불기협 '대선보도'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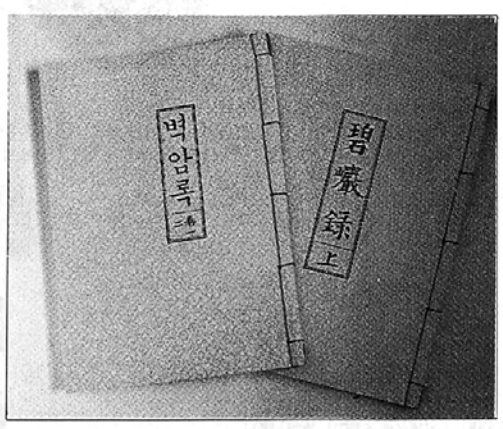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지난 3월29~30일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연수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연수회에서는 공종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97 대선, 불교언론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禪書의 白眉, 宗門의 寶庫

碧巖錄 譯解

일우스님이 생존시 현토(懸吐)하시고
淨圓스님이 한자, 한획 혼을 기울여
필사와 역해하신 것을 고급한지에
담아 낸 소장가치가 높은 벽암록 완결판!





碧巖錄
:중국 宋나라의 원오(圓悟) 설두(雪竇)선사가 지은 송고집(頌古集)을 評唱한 선수행의 뛰어난 지침서. 10권. 碧巖集





- 본서는 승속을 막론하고, 선에 뜻이 있는 이들을 위하여 原文에는 친절하고 철저하게 토를 달고, 역해에는 번역과 함께 해설을 하여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용어나 숱어 故事들도 따로 색인하지 않고 그때 그때 알 수 있도록 본문에서 처리를 하여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 「벽암록 역해」를 보지 않고 벽암록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벽암록의 이해없이 하는 참선은 마치 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는 것처럼 바른 선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 달마가 불심천자 양무제를 뿌리치고 양자강을 건너 소림사로 간 까닭을 아십니까?
- 본서와 인연 맺는 분 임제의 「할」소리를 한 번은 들을 수 있고 덕산의 「방망이」한대 쯤은 얻어 맞을 수 있습니다.

● 고급한지, 수제본, 케이스入 ● 정가 330,000원

先주문시 20% 할인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101호)
전화:738-6270, 735-7202 팩스:733-1016

방 송 단 신

한사람 한경판 후원운동

BBS 문화유산의 해 특집 생방송 '21세기 팔만대장경을 만듭시다'가 지난 7일 방송됐다.

이번 특집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 천산화 작업을 해오고 있는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가 불교방송 중앙일보와 함께 펼치고 있는 '21세기 팔만대장경'의 팔만후원인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뜰앞의…' 비디오 출시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은 지난 1일 '뜰앞의 잣나무'(1집)와 'TV법회'를 비디오로 출시했다.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은 월하(조계종 종정) 서옹(고불총림 방장) 석주(칠보사 조실) 월산(불국선원 조실)스님 등 총 10편으로 구성됐다. (02)3272-0781~5

한마음선원 법회 찾아

불교TV의 어린이 프로그램 '신나는 연꽃동산'(PD 김민석)이 오는 10일 '신나는 찬불동요'(진행자 이성훈) 코너에서 한마음선원 어린이법회를 찾아간다. '노래하는 생활'을 주제로 한바탕 놀이마당이 펼쳐진다.

매주 월·목 오후 4시20분에 방송.

"찬불가 대중화 나섰다"

가수법사 **김태곤**

석굴암 주제 작곡 한창
봉원사 범음대학서 범패공부
동대 불교음악 석사과정



◇전법사 품수를 받은 김태곤씨는 최근 범패공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불교전통음악인 범패는 배우면 배울수록 깊이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지금 석굴암을 주제로 찬불가를 작곡하고 있는데 범패의 가락을 응용해 보려고 합니다."

대금을 연주하며 전통음악에 관심을 보여온 '송학사'의 주인공 민(규)결 김태곤씨는 봉원사 범음대학에서 송암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기능보유자)에게 범패를 공부하고 있다. 규결은 그의 법명.

10년전 송암스님과의 인연으로 범패에 관심을 갖게됐다는 김씨는 지난 3월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불교음악 석사과정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불교음악공부에 뛰어 들었다.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찬불가를 작곡하고 싶다는 김씨는 "불자들이 '아단법석 찬불가'를 노래하며 신심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범패공부도 찬불가 작곡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법사 품수까지 받아 포교에 더욱 사명감을 느끼게 됐다는 김태곤씨는 "전통불교음악이 가미된 찬불가작곡에 힘써 찬불가 대중화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지연 기자

불교TV '황룡사 대종찾기' 제작

기록 토대 컴퓨터 재현…탐사현장도 취재

경주시가 황룡사 대종찾기에 착수하는 등 황룡사 대종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TV가 봉축 특집다큐멘터리 2부작 '황룡사 대종을 찾아라'(PD 최세영) 제작에 한창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록으로만 내려오는 세계 최대의 종인 황룡사 대종을 찾는 과정을 통해 종의 문화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잊혀진 우리문화유산에 대한 자각심을 일깨운다는 기획의도로 만들어진다.

1부에서는 신라인의 대종주조와 관련된 문화사적 의미를 짚어보며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 종의 고유문양 형태 규모 주조방법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2부에서는 종탐사기를 통해와 감은사지 매립지로 나눠 일지형식으로 꾸민다.

이영배 교수(서울대), 권오찬 위원(경주문화원), 김상현 교수(동국대), 이원식 소장(원인고대선박연구소) 등이 고증작업을 맡는다. (연)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65)

♦ The wise man wanders about with his organs of sense guarded, and his senses conquered, standing firm in Dhamma, delighting in what is right and mild; having overcome all ties and left behind all pain, he does not cling to what is seen and heard.

감관을 지키고 감각을 억제하며 행하라. 법을 확립하고 바르고 솔직한 것을 즐기고, 집착을 떠나 모든 고통을 버린 어진이는 보고 듣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 Whosoever uses words to friends without effect, the wise know as one that only talks, but does not do anything.

모든 친구에게 실천이 없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말만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임을 어진이는 알고 있다.

♦ Having tasted the sweetness of seclusion and tranquillity one becomes free from fear and free from sin, drinking in the sweetness of the Dhamma.

은둔과 평정의 맛을 아는 이는 고뇌와 과업에서 벗어나 법향(法香)을 즐긴다.

♦ Giving alms, living religiously, protecting relatives, blameless deeds, this is the highest blessing.

보시와 이치에 맞는 행위와 친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과 비난을 받지 않는 행위,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 Those who know whence it sin arises, drive it away.

번뇌가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번뇌를 버릴 수 있다.

♦ A Bhikkhu who delights in quarrelling and is shrouded in folly, does not understand that sin is the way leading to hell.

말다툼을 즐기고 우매한 성미로 덮여 있는 수행자는 번뇌가 지옥으로 가는 길임을 알지 못한다.

*organ (n) 기관, organs of sense 감관
*firm (a) 확고한, 변치않는
*mild (a) 온화한, 관대한
*cling (a) 집착하다, 연연해 하다.
*seclusion (n) 은둔, 한거(閑居)
*tranquility (n) 평정, 고요함
*alms (n) 자선 기부금 giving alms 보시
*whence (ad) 어떻게, 왜
*quarrel (n) 말다툼, 시비
*shroud (v) 가리다, 덮다, 싸다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조건없이 사는 삶 〈③·끝〉 〈특별상〉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날 꿈에서였다. 눈이 시도록 하얀 들판에 기차길이 있는데 그 철로변에서 시아버님이 나를 보시더니 손을 흔드시는 것이었다. 마치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하시는 것 같았다. 서로 올라와서도 나는 그와는 다른 꿈에 가끔 시달린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주예수를 믿으라' 고 소리치는 것이다.

그 즈음 나는 이유없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 움직이질 못했다. 번역하던 책도 인쇄문제로 무산되어 버렸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학문과 관련된 모든 욕심을 끊고 그야말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으로 맘 편히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두달이 채 못되어 속이 메슥거림을 느꼈다. 간이 나쁜게 아닌가 하여 병원을 찾아갔더니 걱정과는 달리 임신이라는 것이다.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고통을 모두 잊게 할 만큼 반가운 것이었다. 힘들게 오랫동안 기다려 온 것이어서 조심하면서 생활했다. 한달은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같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어느날 밤에 하혈을 하기 시작했다. 놀라 병원에 연락을 하였더니 '그럴 수도 있으니 조심하고 내일 아침에 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 새벽까지 나는 심한 주기적인 복통과 함께 하혈을 계속하였고 그렇게 나의 꿈은 사라졌다.

"유산·우울증 시달리다 경전 의지하니 이젠 조건없는 삶을…"

생산없는 산고를 치른 뒤 내게는 심한 우울증과 한여름인데도 손발이 시리는 증세가 찾아왔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던 나는 작은 일에도 눈물을 보이고 서서히 내 자신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내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어머니의 권유대로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강경독송은 오래가지 못했다. 최소한 10독은 해야지 하고 마음먹었지만 금강경이 워낙 길다보니 잘 되지 않았다. 돌아가신 아버님들을 생각하며 지장경을 읽었다. 지장경을 읽는 동안 흘러내리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렇게 지장경 독송이 끝나면 진이 빠질 정도였다. 마음 속의 응어리도 함께 빠져나가는 듯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동안 지장경 독송과 반야심경 사경을 함께 하였다. 그렇게 한달을 보내니 차차 안정이 되었다.

바로 그즈음에 가산불교문화원과 인연을 맺게 됐다. 지관 큰스님의 강의로 진행되는 화엄경을 들었는데 그 강의는 설화에서부터 교판론까지, 원시불교에서부터 독일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핵심은 '제악막작, 중선봉행(諸惡莫作, 衆善奉行)' 즉 '중도(中道)'인 것 같았다. 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정화되는 것을 실감한다. 살면서 이리 부딪치고 저리 부딪쳐 찌그러진 나를 바로 세워 균형을 잡아주고 광정을 찾게 해주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노심초사하며 일을 추진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한 습관을 서서히 벗어 던지는데 스님의 말씀은 매우 효과가 있었다.

최근에는 교수공채 공고도 뜸해졌을 뿐만 아니라 대학개혁의 일환으로 하부제가 실시되면서 강사에게 돌아오는 강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예전 같았으면 이러한 사실 또한 커다란 스트레스였겠지만 지금은 약간 다르다.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 10년가량 나를 지배했던 나의 어리석었던 계획,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고 교수가 되어서 불교관련 논문을 쓰겠다는 것 등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림·이준석

폐 오랜기간동안 나는 조건붙이고 따지기를 즐겨하고 원인과 결과 분석에 익숙해 있었다.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인연생기법(因緣生起法)을 좋아했으나 이제는 인연을 귀하게 여기되 조건없이 사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몇달 전부터는 대학불교학생회의 중문회에서 한달에 한 번씩 나오는 회보에 글을 쓰고 있다. 주변으로부터 '바쁠텐데 고생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위안이고 기쁨이다. 그것은 내가 쓰고 싶었던 논문의 밑거름이며, 그동안의 부처님의 가피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이무애심 〈서울 은평구 신사2동〉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教史料!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합본집('96년판) : 제 60호(1996. 1. 3) 제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하늘에 핀 연꽃

봉축행사의 대미를 이루는 축제의 장엄물

讚佛애드벌룬



■규 격 : 지름(280㎝) 둘레(880㎝)
■현수막 : 기본90㎝ ×6m
선택90㎝ ×8m (20,000원 추가)
■보급가격 : ₩480,000(현수막 기본 5m포함)
전화주시면 설치하여 드립니다 (지방은 출장비 추가)

본 애드벌룬은 사용후 보관하셨다가 행사때마다 다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봉 축 등

한번 구입으로 매해 사용하십시오!
독특한 구성, 화려한 색상, 섬세한디자인의 삼전기획등
운반 및 보관시 해체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줄여지고
재사용시 원형대로 복원되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봉축등

기획제작 三 田 佛 事
電話 (02)732-6095~6
FAX (02)735-5 2 9 3


●찬불등
불교기 상징의 오색등으로 화려한 수실로 장식이 된 원통형 주름등 입니다.



●禪등
선을 닦는 마음을 소를 찾는 마음에 비유한 십우도의 원통형 등


●연등
화려한 연화무늬 종선 등으로 가운데 원통이 들어 있어 전구나 촛불을 밝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상등
파노라마와 같은 부처님의 생애를 화려하게 표현한 팔상성도의 팔각형등(석가세존일대기)

봉축현수막



■ 단청휘장 : 크기 및 보급가격(90㎝×6m) ₩40,000 / (90㎝×8m) ₩50,000



■ 불교기(오색)휘장 : 크기 및 보급가격(90㎝×6m) ₩40,000 / (90㎝×8m) ₩50,000

봉축리본



(大)


(小)

■ 가격
(大) 100매 ₩30,000
(小) 100매 ₩25,000

■ 1000매이상 주문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